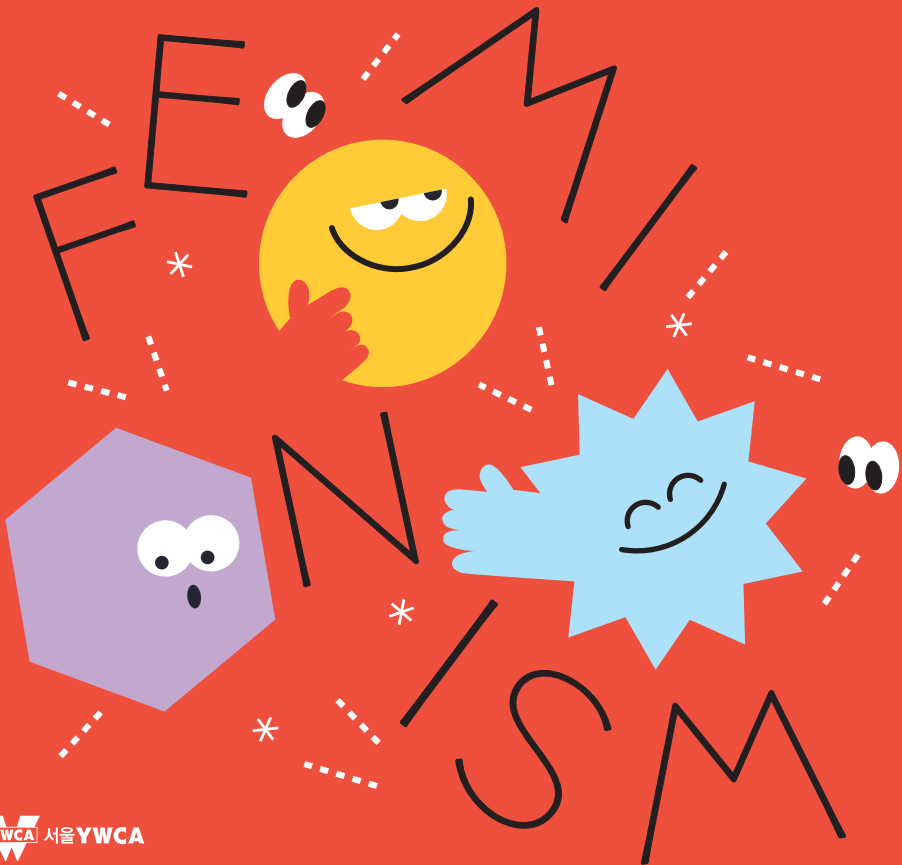


# 살롱, 페미니즘 입니다

페미니즘과 신앙 사이에 선  
청년들에게 건네는 인사



페미니즘과  
신앙 사이에 선  
청년들에게  
건네는 인사





## 이 땅의 마리아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며

2018년 3월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교회 언니들의 불금 파티-금지된 것은 없다. Nixing'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성차별의 경험을 '교회 언니들(여성신학자)'에게 털어놓는 안전한 공간으로 마련한 자리. 무려 80여 명이 그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중에는 더러 남성도 있었죠.

청년들은 암묵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했던, 교회에서의 성차별과 여성 혐오의 경험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뛰쳐나가고픈 마음을 신앙으로 겨우 붙들고는 있으나, 교회에서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흐드는 상황에 놀려 있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성차별적 언어 폭력으로 교회를 뛰쳐나왔다는 한 참가자는 이미 10년도 더 된 경험을 회상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청년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들 쉽게 아물지 않았고, 그에 대해 분노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삼키며 말하기를 이어갔고, 용기를 담아 전하는 이야기에 참가자들은 박수와 눈물로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성차별적 문화에 침묵하며 견디는 것도, 홀로 대항하는 것도 너무 힘겨운 여성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한다는 현실을 직면하며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한 부르심을 발견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

곧 100살이 되는 기독교여성시민단체인 서울YWCA는 든든한 '교회 언니'로서 상처 받은 기독교 여성 청년들과 함께 아파하고, 이들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리라는 소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때가 많지만 작은 부분부터 바뀌나갈 용기가 생겼다'라는 한 청년의 고백이 서울YWCA가 소명을 붙잡을 용기가 되리라는 확신과 함께요.

이 책은 그 소명을 기꺼이 함께 짊어진 기독교여성주의 연구 커뮤니티의 열두 명이 페미니즘과 신앙의 경계에 선 2030 청년을 위해 쓴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신학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필진이 공동으로 기독교 페미니즘의 폭넓은 이슈를 다룬 책으로, 일부 내용은 서울YWCA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진의 다양한 글은 기독교와 페미니즘의 맥락을 폭넓게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어 청년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글을 나눠주신 필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페미니즘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한 사람’이 차근차근 공존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읽어주신 세 분의 편집위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교회에도 페미니즘이 필요합니다. 이 책이 페미니즘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내려놓고 페미니즘 이야기를 시작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다양한 기독교 청년 공동체에서 페미니즘과 신앙에 대한 열띤 토론과 열린 대화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 10.

서울YWCA 회장 

01  
페미니즘과  
신앙, 만나다

- 010 • 1 — 살롬, 페미니즘입니다  
장근지
- 026 • 2 — 젠더와 페미니즘, 무슨 관계인가요?  
백소영
- 038 • 3 — 페미니즘과 기독교가 만난다면  
백소영
- 050 • 4 — 하나님은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강호숙
- 064 • 5 — 젠더 렌즈로 읽는 한국 기독교 역사  
채송희

02  
성경을  
뚫고 나온 여성

- 078 • 1 —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박유미
- 090 • 2 — 왜곡된 여성: 하와의 딸들을 찾아서  
박유미
- 102 • 3 — 지워진 여성: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은 여성을 찾아서  
이은애
- 114 • 4 — 경계를 넘는 여성, 금기에 도전하는 여성  
: 슬로브릿의 딸들, 와스디 왕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송진순
- 128 • 5 — 다양한 경험적 존재로서의 여성  
: 룻, 사마리아 여인, 다비다  
송진순

페미니즘과 신앙 사이에 선  
청년들에게 건네는 인사

살롬, 페미니즘입니다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 집** 최봄, 김예리, 이기쁨  
 (서울YWCA 여성운동국)  
 오수경, 장근지, 채송희  
 (편집위원회)  
**발행처** 서울YWCA  
**후 원**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 03

익숙한 가족,  
새로운 가족

- 144 • 1 \_\_\_ 가부장제는 정말 정상일까?  
오수경
- 156 • 2 \_\_\_ 태초에 가족이 있었다?  
채송희
- 168 • 3 \_\_\_ 새로운 '가족들'이 온다  
오수경

## 04

성(聖)스러운  
성(性)

- 182 • 1 \_\_\_ 성성(sexuality)과 성성(holiness)의  
'거룩한' 관계성  
백소영
- 194 • 2 \_\_\_ 금기 너머 성(聖)스러운  
성적 쾌락 이야기  
심에스더
- 208 • 3 \_\_\_ 성(性)과 성(聖)이 만날 때  
이주아

## 05

교회 안의  
선량한 성차별과  
성폭력

- 222 • 1 \_\_\_ 누가 성경을 말하고 정책을 결정하는가?  
강호숙
- 236 • 2 \_\_\_ 신앙의 탈을 쓴 차별  
이주아
- 248 • 3 \_\_\_ 모두가 "아멘"할 수 있는 설교와 교육  
이주아
- 260 • 4 \_\_\_ 교회 성폭력에 대한 이해  
김희선
- 270 • 5 \_\_\_ 성폭력 없는 세상, 정의로운 교회  
이은재



# 1

## 살롬, 페미니즘입니다

장근지

###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여성/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찾으면 다양한 내용의 인터뷰와 뉴스, 설문조사, 책이 나옵니다. 다양한 견해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청년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교회를 '떠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말하는 '청년'의 대표는 '남성의 성별을 띤 비장애인'의 이미지입니다. 아쉽게도 사회적 문법의 언어는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특정 성별과 경험을 보편과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남성을 '청년'이라고 부르지 굳이 '남자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청년'보다는 '여자 청년'으로 부릅니다. 여대생, 여직원, 여교사, 여배우, 여기자, 여경, 여검사... '여'(女)를 붙여야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학생, 직원, 교사, 배우, 기자, 경찰, 검사라고 하면 '남'(男)을 굳이 붙여 부르지 않아도 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직업을 지칭하는 말은 당연한 듯이 비장애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에는 대개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성의 경험, 장애인의 삶은 청년 담론에서 소외되거나 사소하게 다루어집니다.

두 번째, 청년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호명됩니다. 사실 호명하는 자와 호명되는 자 사이에는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호명할 특권을 가집니다. 청년들은 본인이 경험하는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권위자들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서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결국 청년들은 '다음 세대'로 호명되면서 그들의 현실은 다음으로, 나중에 미루어집니다.

세 번째, 목회자의 자기 성찰 부족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은 목회자가 저지르는 성폭력, 혐오와 차별이 내포된 설교, 위계적인 소통 관계, 목회자의 비윤

리적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한 반면, 목회자들은 청년들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여전히 청년의 시선이 아닌 목회자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럴수록 청년들은 더욱 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회 안에는 그 누구의 삶도 소외되지 않도록, 나중을 외치기보다 지금 함께 말할 수 있도록, 자기 반성과 성찰로 자신의 편견에 균열을 내고 삶을 바라보도록 하는 관점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읽어내는 힘과 상상력을 길러줍니다.

어쩌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는 페미니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교회에도 페미니즘이 필요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시 118:22)라는 고백을 생각해봅시다. 그동안 청년들의 목소리, 곧 청년으로 호명되지 않은 채 지워진 이들의 목소리는 '버린 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소리는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들리지 않던, 왜곡되어 버려진 목소리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페미니즘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매 순간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같이, 페미니즘이 교회 안에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졌을 때 많은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요!

## 여성/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다양한 사정과 이유를 꿰뚫는 본질은 '페미니즘이 충분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 인터뷰와 뉴스 기사, 책과 팟캐스트에 나온 교회 청년들의 사연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1 / (성적)대상화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두 가지의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생산성과 효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와 그것'(I-It)의 관계, 상호적이며 서로 의존하고 연대하는 '나와 너'(I-Thou) 관계입니다. 삶의 위기와 위협은 '나와 너'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물화할 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대상화'라고 하는데, 인간에게는 자율성과 주체성이 없다고 여기고 인간을 다른 존재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수동적·도구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상의 가치를 성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성적 대상화'라고 합니다. 고유하고 유일한 '너'를 마치 대체 가능한 물건이나 기호, 소재와 같은 '그것'으로 인식할 때 '너'의 존재가치와 의미는 짓밟히고 모독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를 인식할 때 '나와 그것'의 관계로, 즉 대상화 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부흥회 때 초청한 강사님이 찬양 사역자였다. 그가 간증하기를 “하나님께 ‘작곡 잘하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을 제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으로 저희 집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했다. 두렵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존재가 남성의 사역과 능력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되고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여겨질까봐.*

위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면 배우자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기도 내용 속에서 배우자(사례에서는 여성)는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집사람이고, 남성의 사역을 보조하고 뒷받침하는 존재입니다. 집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여성의 커리어를 보면 피아니스트이고 작곡가입니다. 커리어가 있는 여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반려자와 함께 사역을 하는 여성이, 왜 '집사람'으로 소개될까요? 동역하는 상황에서 남성이 찬양 사역자라



면 여성도 찬양 사역자 아닌가요?

배우자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드리는 배우자 기도의 내용은 종종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의 상호 평등한 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나와 그것'의 관계, 곧 상대를 대상화 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껴가는 일입니다. 나의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대치되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성의 외모와 몸을 평가하거나, 옷차림을 성적 농담의 소재로 삼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예전에 교회 연합 수련회를 가면 '은혜 담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성들에게 빌려주는 담요인데,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은혜롭게 가리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여성의 살이 드러날수록 남성들이 시각적으로 유혹되어 실족할 수 있으니, 은혜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덮으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의 관점에서 보이는 객체가 되고 은혜의 범위에서 소외됩니다.

여성의 외모나 몸을 평가하며 웃음의 소재로 삼는 경우를 몇 가지 살펴봅시다. 아래의 사례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때 장로들이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남성 장로가 "새벽에 민낯의 여성 장로들과 여신도들을 맞이할 때면 남자들이 민망해"라고 웃으며 이야기 한다. 다음 날 새벽, 다른 남성 장로가 다시 그 얘기를 꺼내면서, 옆에 있는 여성 장로에게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는다. 새벽 5시, 여성들은 화장 못한 죄인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예배당에 들어간다.

은혜가 안 되는 건 화장 안 한 여성의 민낯이 아니다. 여성의 외모를 지적하며 웃음으로 소비하는 남성들의 발언이 교회의 은혜를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민낯이다.

교회 안에는 여성의 외모와 몸의 형태, 옷가짐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통제해도 괜찮다는 낯은 문화적 습관이 당연한 규칙인 것처럼 떠돌아 다닙니다. 거리낌 없이 여성의 겉모습을 지적하고 우스갯소리의 소재로 삼습니다.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의 몸이 웃음거리가 되고 신체의 특정 부분이 성적 흥분 요소가 되는 것은, 모두 교회의 문화적 습관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굳어지면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므로 낯은 습관이 이어지는 것을 끊어내는 일, 그 속에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 2 / 고정적인 성역할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과 행동을 기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도 성별에 따라 사역을 다르게 배분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성별 간 역할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왜곡합니다.

교회 주방의 싱크대를 유심히 살펴보면 다른 싱크대와는 달리 높이가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싱크대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년 여성 신앙인이기에 그들의 신장에 맞춰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서 영아부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이 양육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자모실'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돌보는 성별은 '모'(母), 곧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빠나 다른 양육자가 함께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엄마가 자모실에 있고 아빠는 공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나온 서울YWCA의 「교회 성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10~20대 신앙인들에게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사역을 모두 골라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운영과 관련된 일을 논의하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여성들은 누군가를 돌보고 교육하는 일, 주방 봉

사나 청소, 예배 전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 사역도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대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고 싶었던 사역은 무엇일까요? 기존에 하고 있던 혹은 해야 하는 사역과 괴리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기존과 비슷하게 예배의 사회, 기도, 성경 봉독을 하고 싶다는 답변이 나왔고, 교사를 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들은 다양한 사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담당해온 '차량부/운전'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온 교사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성 또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부과해온 돌봄과 양육, 안내 등과 같은 역할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 순서 담당자나 준비자로서 주체적이고 활동적인 영역, 보이는 영역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성원들에게 성별에 따라 사역을 배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에 맞게 배분해야 합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누군가가 그 사역의 자리에 갈 때 그 과정을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논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3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

페미니즘을 알게 된 청년들에게 어떤 계기로 페미니즘을 만났는지를 물어보면, 많은 청년들이 2016년에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정신병을 앓던 한 남성이 저지른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했지만, 사실 그 사건은 '여성 혐오'에 기반해 일어난 살인이었습니다.

이제 일상의 공간이 성폭력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과 더불어 '내가 그 자리에게 있었다면 나도 죽을 수도 있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이었다'라는 공동의 의식이 형성됐고,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죽음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행렬과 추모하는 메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물결이 이어져서 2016년 후반에는 'OO 내 성폭력 고발 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조직과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미투(Metoo) 운동'이 2018년부터 확산됐고,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교회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폭력을 예방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 준비가 된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교단별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저 매뉴얼로 그칠 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기존 교회의 구조, 즉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 소통과 구조 체계는 교회가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청년들 가운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교회의 문화와 태도, 낡은 습관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성폭력이라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성차별적인 여러 작은 요소가 하나씩 켜켜이 쌓이면서 성폭력을 용이하게 만드는 구조를 형성하고, 구조 가운데 잘못된 습관과 시스템에 기대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힘을 악용할 때, 그것을 제재하지 않을 때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anada)에서 발행한 성폭력 매뉴얼은, 교회가 성폭력을 근절해야 할 명확한 사명과 책임감을 갖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신학적 관점에서 진술합니다.

*우리는 확언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학대와 부당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 하십니다. 성적인 폭력과 착취 및 학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침해하며, 사람들의 창조성과 은사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학대가 일어나는 곳에 회복적 정의와 치유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

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해지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교회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삶과 죽음, 죽음 너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폭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power)을 악용할 때 발생합니다. 힘이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힘의 목적은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존재를 억압하고 통제하며 그들의 힘을 박탈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받아들인 힘의 개념은 '지배하고 정복하라!'와 같이 기독교적·남성 중심적·제국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준 힘(power)은 '임파워링'(empowering)입니다. 힘을 배분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납작해진 삶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확장합니다. 예수님의 힘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사랑을 통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악용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고, 각자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된 힘이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근절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폭력 가운데 평화와 회복을 이루어갈 책임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맡은 사명을 책임있게 수행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페미니즘과 신앙,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만남을 위해 누구를 혹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왜 만나는지를 고려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치관, 어떤 의견, 어떤 느낌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각자의 경험도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페미니즘과 신앙의 만남이 생소할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굳이 만나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야 만났구나 하면서 반가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페미니즘을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이나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페미니즘과 신앙이 만나는 모습을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페미니즘과 신앙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원수 같은 존재,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 심지어는 페미니즘은 신앙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신앙은 페미니즘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존재라고 날 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페미니즘과 신앙, 그들은 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야만 했는지, 아니, 그 다리는 어떤 이유로 좁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여러 매체에서 그려내는 페미니즘의 얼굴은 '과격함', '사악한', '파괴적인', '여성우월적인', '이기적인', '열등감 있는' 등으로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미디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정 소재를 자극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럴수록 상황과 사건의 맥락과 의미는 단순해지거나 삭제됩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극히 '일부'를 확대해석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편견'을 생산합니다. 편견이 쌓일수록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사건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나는 페미니즘을 바라볼 때 편견에서 자유로운가요? 혹시 페미니즘을 진솔하게

알아가기도 전에 편견을 먼저 만나는 바람에 그 편견을 기준 삼아 페미니즘을 바라본 건 아니었나요?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성으로서 같은 다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함께 걸을 수 있는 다리가 편견으로 계속 잘리고 갈라져서 좁아져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좁은 다리를 여럿이 건너려고 하면 위협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밀쳐내며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은 이렇게 서로에게 닿는 진실과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기에 편견에 균열을 내고 편견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 상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 경계 '밖의' 시선으로부터

페미니즘은 이름 그대로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여성의 시선'일까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졌던 이들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의 경험과 시선이 반영된 의미와 해석이 보편적·일반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기독교적 종교성, 즉 신학이라는 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신학은 크게 교리적 신학과 작용적 신학으로 나뉩니다. 교리적 신학은 '하나님은 ~하다', '~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영역입니다. 작용적 신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경험과 실천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의미를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바로 교리적 신학과 작용적 신학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해하는 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구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이성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과 내가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교회에서 약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볼 때, '정의로운 신'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자를 외면하며 상처를 주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이때 우리가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신학을 논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남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신학 체계의 대부분은 사실 남성의 경험과 시선이 독점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은 보편의 관점에서 소외된 '시선 밖의 시선'으로, 즉 '여성들'의 경험과 시선에 집중하여, 남성 경험이 독점한 교리적·경험적 신학과 신학에 균열을 냅니다. 균열이 가져온 틈새 속에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것을 질문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하고 확장하며 새로운 해석을 가져옵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발견되지 않은 존재의 삶과 납작해진 목소리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기존의 체계와 제도의 관점에서 소외된 '낮선' 존재를 환대하고 곁을 내어줍니다.

페미니즘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적 신학과 작용적 신학 사이에 있는 괴리감과 단절을 연결해주기 위해, 위기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내면의 근육을 길러 주기위해, 페미니즘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 불편한 부르심, 불편해질 용기

우리는 '불평등'과 '불편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왔다. 하나

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막 1:15)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미 와버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맞이하는 첫 번째 과정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같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회개하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편한 과정입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라”(눅 18:22),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마 10:34),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눅 9:23),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 5:43)와 같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생소한, 낯선 메시지는 우리의 편안한 삶을 흔들어놓기 때문입니다.

특권을 일상적으로 누린 사람에게는 평등이 억압처럼 느껴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불평등으로 쉽게 치환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불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길을 평등의 길로 다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불편함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이 우리를 해칩니다.

페미니즘의 언어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결국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불편함은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고 사랑의 힘을 부여하지만, 불평등은 사랑을 악용하고 기만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삶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살려야 하는 것을 죽이는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불편한 회개와 변화의 과정으로 부르십니다. 부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그 불편한 부르심에 용기 있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 우리가 이어갈 이야기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은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을 처음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두 세 사람이 증인으로 서면 그 증언이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나, 여성에게는 증인의 자격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빈 무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을 증언하게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 갔습니다”(마 28:13). 병사는 그 당시 강력하고 신빙성 있는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증언과 병사의 증언이 대립됩니다. 하나는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는 거짓을 이야기하지만 모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살아남았나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고, 그 부활의 증언이 이어져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의 목소리는 진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들을 때, 우리는 기존의 보편과 일반으로 정의된 것이 특정한 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는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 곧 여성, 아이, 장애인, 흑인, 가난한 자, 이주민의 삶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밖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시선 밖의 시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이며 앞으로 우리가 이어갈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갈 이야기는 기존의 상식을 답습하지 않고 “그건 그러면 안 되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와 같이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고 형성하는 데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에 두는 것입니다. 결이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이며, 서로를 참조하며 배우는 ‘결의 언어’가 존재하는 공간, ‘개인적 경험을 공적 이슈로 바꾸는 역량’



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편은 나뉘지만 곁은 옆에 함께 있습니다. 페미니즘과 신앙은 서로에게 '결의 언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살롬~ 페미니즘입니다."

#### 참고문헌

- \_ 엄기호, 『단속사회』, 창비, 2014.
- \_ 이은혜,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뉴스앤조이, 2021. 04.16. <https://www.newsno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99>
- \_ 믿는 페미, "나만 화내기 아까운 글", 2018. 03. 01. <https://www.facebook.com/midneunfemi/photos/457595227992770>
- \_ <https://united-church.ca/sites/default/files/2021-01/sexual-misconduct-prevention-response-2020.pdf>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거나 소외된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02

—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편을 가르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그 언어를 '결의 언어'로 새롭게 창조해봅시다.  
(예시: 자모실 → 작은 예배실)

# 2

## 젠더와 페미니즘, 무슨 관계인가요?

백소영

### ‘사회적 성’으로서의 젠더

『위험사회』, 『피로사회』, 『분노사회』. 오늘날의 사회 현상을 분석하며 근간에 소개된 책의 제목입니다. 책 제목만 읽어보아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회 문제가 한눈에 읽힙니다.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쉬지 않고 피로하게 달리는 사람들의 누적된 감정이 ‘분노’는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분노는 개인의 병리적 현상을 넘어 하나의 ‘제도적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특정 세대, 특정 계층의 몫도 아닙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혐오가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게 가시화 된 갈등 중 하나가 젠더(gender)와 관련된 것입니다. 2018년도에 일어난 ‘이수역 사건’은 작은 호프집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연루된 일이었지만 현재의 젠더 갈등 상황을 잘 드러내는, 상징적이고 대표성을 가지는 일화였습니다.

“잠깐만요. 이수역 사건이 급진적 페미니즘의 문제가 아니고 젠더 갈등이라고요?”

네. 그 사건은 생물학적 성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긴장이나 여성 인권과 관련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성역할 인지와 수행성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형성한 (혹은 믿고 있는) 젠더적 관점을 상대방에게 폭력적으로 밀고 나간 까닭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대표성을 갖는다는 건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젠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이론에서 ‘젠더’(gender)란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을 의미합니다. 라틴어 ‘genus’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유형, 범주’의 뜻을 지닙니다. 유형론은 언제나 실재를 다 담지 못하지만, 실재의 유사한 특성을 개념화 합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이 특정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형성한 성 정체성/역할의 범주, 이것이 젠더입니다.

사람은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자연환경과 함께 ‘사회’(society)라는 인위적 환경을 하나 더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연(自然)은 의미 그대로 ‘스스로 그러함’이고 거기에는 사회적 차원의 기대가 없습니다. 자연 생명체는 ‘종’으로 분류되는 개체 간 유사성, 즉

공통된 생물학적 특성을 구현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사회'라는 환경 안에서도 태어나는데,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 생물학적 특성과는 별도로 사회가 부여하는 제도적 행동양식을 습득하여 자기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것'과 한 사회에서 '남자란 이런 특성을 지니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학습하는 것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남성의 생물학적 능력과는 별도로, 모계 중심의 여초 집단에서 태어난 남성의 사회적 성역할과 가부장적 고대 사회에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의 사회적 성역할은 다를 것입니다. 사회에서 부여하는 성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동안 그것이 자신의 특성이고 정체성이라고 믿게 되는 성(역할), 그것이 젠더입니다.

문제는 근현대 사회가 유난히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성(역할)을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녀를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전통 사회가 더 심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남존여비'라는 말이 드러내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 사회에서 여성은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통 사회는 남녀의 차이보다 신분의 차이가 훨씬 컸습니다. 오죽하면 '혈통'이라는 말로 피 자체의 가치와 무게가 다르다고 믿었겠어요? 평등한 시민사회 구성원인 우리 시각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지만, '신분'이 실재한다고 믿던 전통 사회에서 귀족과 노비의 차이는 남녀 차이보다 더 크게 작동했습니다.

근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지만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신분제라는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고 나자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구조와 생산성 변화,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 형태가 바뀌면서 일어난 역할의 재분담 등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분화되었습니다. 사회학 용어로는 '칸막이화'(compartmentalization)라고 합니다. 효율성을 위해 직장 내 업무공간에 파티션으로 칸막이를 치듯, 공적인 생산 영역과 사적인 재생산·생활 영역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생긴 것이지요.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은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에서 남편/아빠의 외벌이 노동만으로도 생계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고 점차 도시화되면서 아버지의 부재 상태(출근)는 가정을 전담하여 보살피고 꾸려나갈 아내/엄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절을 통과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젠더 이해, 즉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역할 이해가 생성되었습니다.

“남성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비슷한 답이 나왔어요. 강함, 근력, 이성, 책임감, 적극성, 전문성, 능력(재력), 기사도... 반면에 '여성다움' 하면 가장 많이 들린 것은 여리여리, 하늘하늘, 조곤조곤, 부드러움, 돌봄, 사랑스러움 같은 단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성역할 분담을 통해 유지되었던 20세기형 중산층 핵가족의 형태가 약화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수행성이나 기대도 점차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도 서서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반복되던 수행성이 형성한 사고방식은 언제나 사회보다 그 변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젠더 인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개체 인격인데도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물었을 때 비슷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느덧 자기 정체성이라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젠더' 즉 사회적 성입니다.

##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 사이, 자아 정체성 형성하기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성 혹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만약 나의 자연적 특성이 사



회가 요청하는 사회적 성역할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가 속한 특정 사회의 제도나 신념의 강도에 따라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을 받거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중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시스젠더'(cisgender), 즉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성(역할)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 사회에서 기득권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 역할을 하고 남성으로 태어나 남성 역할을 하는 것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삶의 커다란 난제가 하나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는 생물학적으로 손가락 열 개, 발가락 열 개, 머리 하나, 주요 장기 다섯 개 등이 잘 작동하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를 '정상아'라고 분류합니다. 그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비정상'인가요? 장애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만약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범주화한다면 장애가 아닌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은 '비장애'여야 합니다. 장애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사회에서 '비장애'로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일단 '비정상'이라는 편견적 시선이나 배제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뿐인가요? 생물학적 편리함은 물론이거니와 건물, 제도, 관계까지도 모두 그들의 신체적 조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될 테니까요.

물론 이 비유는 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속한 사회 제도나 다수자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고 인정할 때, 시스젠더 위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다른 젠더 인식을 가진 구성원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생물학적인 장애인인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든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길을 건너기 힘든 것처럼, 시스젠더가 아닌 젠더 인식 주체들은 사회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정상'이라는 편견 가득한 시선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서부터 큰 걸림돌을 만나겠죠.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성과 사회적 성 사이에 불일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범주화한 용어로는 대표적으로 '트랜스젠더'(transgender,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역할이 일치하지 않기에 자신이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성으로 접근해가는 사람)와 '바이젠더'(bigender, 남성과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개별적으로 다 형성한 상태에서 두 성역할 사이를 오가는 사람)가 있습니다. '트라이젠더'(trigender)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 이외에 또 하나의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셋 사이를 오가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는 '사회적 성역할'에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자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세부적 명칭들을 포괄하는 상위 범주로 '젠더퀴어'(genderqueer)를 많이 사용합니다. 소위 '당연해', '정상이야'라고 분류한 젠더 범주 바깥의 모든 '이상한'(queer) 사회적 성역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말입니다. '젠더퀴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항대립적 유형론에서 벗어난 성역할을 자기 정체성으로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규정한 전형적인 성역할을 거부하는 젠더퀴어 중에는 '에이젠더'(agender), 즉 성애의 주체가 되든 대상이 되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이젠더는 현재의 젠더 질서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제도와 성관계를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스젠더들이 여러 젠더퀴어 유형 중에 그나마 거부감을 덜 표시하는 유형입니다. 에이젠더는 감정이 없는 냉혈한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느끼지만, 다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혹은 어느 젠더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그들을 향해서 성욕을 느끼지 않을 뿐입니다. 이들이 불감증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젠더 감수성이 적은 것입니다. 어떤 젠더 인식이라도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공존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우리가 제지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건 개인의 자유의 권리니까요.

사실 우리 역사와 문화 안에는 이미 에이젠더들이 다른 이름으로 존재해 왔습니

다.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은 있는데 성욕은 없는 사람들, 소위 '성자'(聖子)라고 범주화되는 경우도 사회적으로는 에이젠더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제도에 강하게 통제되고 사회화되는 가운데 정체성이 형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금욕주의적 기독교인이나 몸의 집착에서 해탈한 불교 신자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에이젠더'적 성향은 다분히 '사회적으로 혼용된 젠더 정체성' 일 테니까요. '젠더퀴어'라는 말만 붙이지 않는다면 이런 정신적 박애주의자를 만났다고 '사탄'이니 '반하나님적'이니 하며 비판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안드로진'(androgyn)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생물학적 의미보다는 자기 정체성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성적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이젠더'와는 다릅니다. 각각 별도의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체성 안에서 통합되어 있으니까요. 안드로진은 성애를 가지지 않는 에이젠더와도 다릅니다. 안드로진은 무성애자가 아니므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게이(gay)나 레즈비언(lesbian)과 같이 동성애(homo-sexuality)를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이들도 큰 범주에서 '젠더퀴어'입니다. 사실은 현재의 이항대립적 젠더 질서에 질문과 저항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게이와 레즈비언들이어서, 많은 경우 '젠더'라는 말을 하면 곧장 게이와 레즈비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가장 마지막에 소개하느냐고요? 이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졌기에 한편으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공격도 가장 많이 받는 젠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경우, 젠더 인식과 성적 성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독자적인 여성 정체성을 가진 여성이 생물학적으로도 자신을 온전한 여성 주체로 인식하는 대상과 성애를 주고받는 것도 레즈비언이라 분류되고, 자신의 생물학적 성은 여성인데 젠더 정체성을 남성으로 인지하면서 생물학적인 여성을 사랑하는 경우도 같은 이름으로 범주화되니까요. 또한 생물학적 성향은 이성애적(heterosexual)인데 가

부장제에 물든 남성들과는 사랑할 수 없다는 전략적 이유로 레즈비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으로 범주를 나누고 속단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같이 구성주의적 입장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성(sex)과 젠더를 굳이 개념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인간은 진공상태에서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성을 본질이나 근본(essence)으로 가지지 못할 테니까요. 결국 현재의 사회 제도가 규정한 성역할을 기준으로 할 때 '정상성'을 벗어난 사회적 성인식과 역할을 자기 정체성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젠더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LGBTQ+라는 말로 표현하더군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그리고 더... “아, 복잡해요.” 이것이 '성정적'인가는 둘째치고 정신없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일입니다. 이런 다양한 자기 선언들이 왜 이 제야 등장하고 있는 것인지.

## 젠더 이해에 페미니즘이 필요한 까닭은?

다시 '이수역 사건'으로 되돌아갑시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건을 살펴보면, 이성애적 연애를 하는 한 커플을 보고 건너편에 앉아 있던 두 '생물학적 여성'(그러나 젠더 정체성은 다르게 규정했을 사람들)이 비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언행에는 남성과 연애하는 여성을 '홍자'(남성 성기로 상징되는 가부장 시스템에 부역하는 여자)라는 말로 비하하며 조롱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젠더 수행성이 깔려 있었죠. 한편 그녀들에게 격분하여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 젊은 남성의 응대는 그들의 가부장적 젠더 수행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이수역 사건은, 한 공간 안에 앉아 있던 사회 구성원들의 젠더 인식이 극명하게 달랐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를 '비정상' 혹은

‘무가치’로 규정했기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었던 셈입니다.

호프집에서 어쩌다 발생하는 작은 일화로 끝날 수도 있었을 두 테이블 사이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불거진 까닭은, 그 갈등을 고정된 젠더 인식, 즉 남녀 이항 구도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페미가 페미했다.”, “한남은 재기하라.”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타고 확산된 이 논쟁은 20~30대 젊은이들을 양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근대적 기획 자체가 갖는 결함에 이성적 성찰을 하는 대신에 그 기획의 후기 상태에서 존재의 불안을 느끼는 젊은 세대 남성이 붙잡은 것은 ‘마지막 기득권’인 남성성인 듯합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향유했던 권력, 그것을 문명사적으로 ‘처음’ 박탈당한 세대인 젊은 남성은, 자신들이 학습해온 사회적 성역할 즉 가부장적 젠더 이해와 21세기 사회 변동이 반영하는 실재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여 자신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또래 여성들에게 분출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잘못 고른 행동입니다. 젠더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1980년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지적처럼 ‘남근로고스중심적’(phallogocentric) 사회, 즉 수탉들의 꼬기 서열처럼 위계화된 사회구조와 제도 안에서는 남성이라고 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적인 투자-금융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는 ‘고용유연성’, ‘효용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쓰고 버립니다. 잠시만 쓰이고 버려지는 이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게 멸시당하고, 회사에서 가축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정규직’은 부모 소유의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가 통장에 매달 딱딱따박 들어오는 ‘건물주 자녀’에게 멸시당합니다. 이제 비난과 멸시의 대상은 젠더퀴어만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죠.

리셋! 세상을 다시 포매팅하고 싶은 열망은 젠더퀴어들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제도란 결국 ‘구성원들이 합의한 공동체적 살기 방식’입니다. 하여 불평등과 불의와 부정을 ‘당연한 권력’쯤으로 여기는 살기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여기저기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억압 구조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운동의 성격이 달라집니다만, 젠더 질서와 연관해서는 ‘페미니즘’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페미니즘(feminism)이란 지난 5,000년 간 남성이 만들어놓은 법, 제도, 언어, 수행성 전반에 질문을 던지는 사상입니다. 단어 그대로 ‘여자들의 사상’입니다. 복수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사상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상가의 단독 사상도 초기-중기-후기가 다르고 제자들의 시각에 따라 좌와 우로 갈리기도 합니다. 단 한 분의 ‘주님’을 신앙하는 기독교 역시 2,000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교단과 교파로 갈라졌습니다. 하물며 ‘여자들의 사상’이라니요. 이 말은 ‘나도 맞고 네 말도 일리가 있으니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상대주의적으로 살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자유가 만들어낸 ‘다양성’을 실재(實在)로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페미니즘에도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성차별을 가져오는 현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선언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상상하고 건설하는 배타적 주체로서 ‘생물학적 여성’을 주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이 있습니다. 한편 현행 사회구조를 기본적인 삶의 장(場)으로 받아들이되 현존하는 법과 가치관 등을 성평등하게 바꾸고자 하는 ‘온건한 페미니즘’도 있죠. 교육권과 참정권을 요구했던 서구의 1기 페미니스트들(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활동)을 포함하여 이들의 계보를 잇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liberal feminism)이 이에 속합니다. 여성 억압의 근본적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생태여성주의, 테크노 페미니즘 등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생물학적 여성이든 자신을 여성으로 인지하든 혹은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강제적으로 배치되어 있든,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사상이 페미니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사상’이라고 하여 모든 여성의 언행을 다 페미니즘의 우산 안에서 소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인 남성이 공동체 안에서 공적 권위를 독점하는 ‘가부장제’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제도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 제도 안에서의 여성 배치에 순응한 여성(거세된 여성)이나 이에 불만을 품고 남성과 같아지려는 여성(명예 남성)의 주장은 둘 다 가부장제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미 추구가 새로운 질서나 시스템을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 변동의 필요성과 맞물려 젊은 세대들에게 ‘급진적 페미니즘’이 더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래디컬’이라는 말에 걸맞게 밑바닥부터 시스템 자체를 새로 구성하고자 함이죠. 다음 장에서는 현재 다시 부상하는(리부트) 페미니즘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시각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 \_ 거다 러너, 강세영 옮김,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 \_ 케이트 밀렛, 김진유경 옮김, 『성 정치학』, 이후, 2009.
- \_ 백소영,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뉴스앤조이, 2018.
- \_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 \_ 루스 이리가래, 박정오 옮김, 『나, 너, 우리: 차이의 문화를 위하여』, 동문선, 1998.
- \_ 이희원·이명호·윤조원 외,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문학동네, 2011.
- \_ 솔라미스 파이어스톤, 김예숙 옮김, 『성의 변증법』, 풀빛, 1996.
- \_ 벨 훅스, 이경아 옮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문학동네, 2017.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역할로서의 젠더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02

— 나의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던지 생각해봅시다.

03

— 만약 특정한 젠더를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 페미니즘과 기독교가 만난다면

백소영

### 복음을 왜곡하는 가부장제를 넘어서

“예수께서는 의인/죄인의 구도를 허물고 유대인/이방인의 배타적 이분법도 넘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관계적 혁명을 이루셨으니 예수 따라 사는 것이 ‘래디컬’한 삶이지, 관계만 불편하게 만드는 페미니즘이 기독교인에게 왜 필요하나요?”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팎으로 전개되는 페미니즘의 확산을 보며 이렇게 묻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2016년 한 복음적인 선교단체의 여성 간사들을 중심으로 출발한 ‘갓페미’나 강남역 살인 사건을 보며 각성한 기독교인 여성들이 온라인을 베이스로 결성한 ‘믿는 페미’와 같은 움직임도 향해서도 부정적이지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편견과 불평등이 사라질 텐데, 왜 굳이 ‘세속 사상’인 페미니즘을 신앙에 접목시키려 애쓰느냐고 말합니다. 행여 성평등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해도,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오염되고 왜곡된 최근 문화 현상을 주목한다면 굳이 그 이름을 고수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하죠.

혹자는 ‘평등주의(equalism)’라는 말로 대체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등주의라는 말은 제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은폐합니다. ‘인권 운동’이 포괄적 의미를 지니지만, 흑인 인권 운동, 노동자 인권 운동이라고 했을 때 누가 인종 차별, 자본주의의 피해자인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페미니즘 대신에 ‘여성 인권 운동’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페미니즘이 ‘원리 증진’만을 다루는 사상인지 반문할 때, ‘현 체제 밖의 시선이고 사유이고 언어’로서 페미니즘이 지닌 전복성과 혁명성을 모두 담아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화하는 순간 입에서 곁돌고 마음에 걸리는 단어인 ‘페미니즘’을 당분간은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낫선 렌즈로 삼아 우리의 익숙한 전통과 신앙을 성찰하는 작업은 보편 복음을 찾아내는 데 꼭 필요하니까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의 기독교 선배들이 가부장제의 전제들과 하나님의 보편



계시를 버무려서 전해왔거든요.

‘여성의 영혼은 남성의 영혼보다 저급하다’든가, ‘여성은 남성보다 신앙이 부족하기에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말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을까요? 2세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155~240?)는 “여성들은 악마가 공격하지 못한 남성을 유혹해서 신의 이미지를 망가뜨린 악마의 문이기에 비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저주를 쏟아낸 테르툴리아누스가 평화신학자였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살아라, 그리고 비난받아라!”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강단에서 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면 경건한 여신도들의 시선과 사유와 언어는 어떻게 내면화될까요? 여신도에게 자기를 혐오하고 부정하고 가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과연 복음(기쁜 소식)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인지 의심됩니다.

##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나 기능적으로는 위계적인?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남성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결이 조금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다름’ 뿐이지 열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지도하고 쟁취하는 남성성과 격려하고 보조하는 여성성이 어우러져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돕고 함께 협력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라고 주장했죠. 이를 신학 용어로는 ‘상보론’(相補論)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이 힘을 가지는 사회에서 ‘성경적 여성’의 삶이란 남성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되 세상의 일, 공적인 일을 욕망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현숙한 내조자요 어머니로서의 ‘운명’이 주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비난받으면서 저주의 삶을 살라’고 했던 전통 사회 가톨릭의 여성관보다는 진일보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여성 이해에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남성 지도자들이 집단 회개라도 한 것일까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를 외치며 텍스트를 다시 목상한 것이 전통 사회의 여성 혐오적 시선을 그치게 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이유는 사회 변동과 그에 따른 남녀 역할의 변화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유럽에서 부상하던 기독교회의 주된 신자들은 부르주아 계층, 즉 자유독립 도시에서 상업이나 공업, 무역업 등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생산 수단을 소유했고 재능과 성실성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3의 계급이었죠. 그런 이유로 이들은 사제(1계급)나 귀족(2계급)의 제도적 제한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제도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새로운 방식의 생활관과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정당화할 담론과 질서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점점 도시화되고 생산 영역이 가정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즈음에, 성실하게 가사와 육아의 임무를 소명으로 여기며 담당해주는 아내/엄마를 존중하되 남녀의 위계는 확보하는 담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기독교 목회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관계를 맺을 필요성이 있는 청중을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부드러운 가부장제’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가정 담론으로 딱 맞는 구절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요(엡 5:22-25). 상당히 위계적이고 고압적인 전통적 남녀 관계를 막 빠져나온 시점에 ‘그리스도가 하셨듯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남편들에게 권고했으니 얼마나 ‘로맨틱’하게 들렸을까요. 이렇게 사회학적 유형으로서의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은, 기독교적 토대와 근현대 중산층의 핵가족 이상이 만나면서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나의 여왕”, “영혼의 파트너”, “하나님의 선물”, “신실한 친구”라니! 그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어 보였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자신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를 “나

의 안주인”, “나의 박사남”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호칭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정에서 가지는 지배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부르주아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생산 노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권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생산 공간으로부터 점차 분리되어가는 근현대형 가정 영역의 임무를 주도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책임과 권위는 사적 영역 안에서만 발휘하도록 허용되었고, 그것도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기능적 위계를 갖는다고 배웠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가정/여성 담론은 ‘부드럽지만’ 여전히 ‘가부장제’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남녀의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으나, 사회생활에서는 기능적 위계가 있으며 이 위계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부여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청교도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윌리엄 구지(William Gouge, 1575~1653)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머리 다음으로 신체에서 중요한 기관인 심장에 해당한다. 심장은 머리의 지배를 받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탁월하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머리와 거의 동등하고 머리만큼이나 소중하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다는 것인가요, ‘거의 동등할 만큼’ 중요하지만 동등하지는 않다는 말인가요? ‘약간’, ‘심장’, ‘탁월’ 등의 언어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는 명백한 ‘불평등’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기능적 위계를 확고히 하는 이런 담론과 제도와 가치를 ‘신적 질서’라고 주장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내면화한 것이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계층도, 인종도, 종교도 운명적이지 않다고 선언했던 근현대 시민사회에서도 성별은 여전히 ‘운명’이 되어버렸죠.

종교적 신념과 견고하게 결부된 수행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거룩한 신적 질서’로 고착화된 성별 구분과 기능적 위계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회나 기독교인의 관계망에서 힘을 가지고 작동되고 있죠. 2018년 19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성평등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 조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자신을 소위 ‘그리스도 중심층’(연구자 정재영 교수가 제시한 신앙의 단계 질문에서 4번째 단계로서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답한 부류)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기존 교리를 신앙적 진리로 절대화하는 경향성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남녀의 성역할이 구별되어 있다고 믿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목사님의 설교가 전혀 성차별적이지 않다고 답했던 그룹이죠. 그런데 그들이 들은 설교는 성차별적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통’ 안에 있어서 설교 안에 담긴 성차별적 시선과 사유와 언어를 발견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설교 내용 안에 포함된 내용, 즉 “아내의 기본 역할은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다”, “여성은 순종적이고 지혜로워야 한다”, “교회에서 여성 리더는 부드럽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여성은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 “여성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말들이 성차별적이냐는 질문에 그리스도 중심층은 전혀 성차별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 ‘낭만적 가부장제’ 이후, 마주 봄의 혁명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전통을 성찰할 때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해방의 기쁜 소식(복음)이고 무엇이 제도적 편견인지를 구별하는 ‘외부의 시선과 사유와 언어’가 필요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유한성과 제약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교정을 볼 때도 그렇죠? ‘낮선 시선’을 가진 사람이 읽을 때 오타자나 의미가 불분명한 것이 얼른 들어오잖아요.

가정의 수장이 아버지인 제도, 즉 가부장제는 결코 ‘자연의 법칙’도 ‘신적 질서’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가부장제를 창조하셨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가부장제의 질서는 창세기 3장의 ‘타락 내러티브’

에 와서야 등장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상황은 에텐의 질서, 모두가 기쁜 복음의 질서가 아니었다는 말이지.

텍스트에 따르면 그것은 죄의 대가, 벌의 측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는 논점이 아닙니다. 여자가 먼저 따 먹어서든 남자가 생각 없이 동참해서든, 수고로운 노동과 살을 찢는 듯한 산고는 이후에 올 후세의 설정값이라고 선포됩니다. 하지만 이는 에텐의 창조질서와는 상관없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사하셨다’고 믿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죄의 대가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디 이 본문뿐이었습니까? 잠시만 생각해 보면 논리적 모순이 성경과 전통 안에 무수합니다. 이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을 해보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 성경과 전통을 다시 들여다보는 노력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와해하거나 오염시키려는 시도도 아니고요. ‘특수’를 넘어 ‘보편’에 참여하려는 노력이고, 왜곡을 넘어 ‘진리’에 도달하려는 신앙적 행동입니다.

이런 노력을 해온 기독교 페미니스트 선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성의 시각에서 성경 주해를 시도하여 『여성의 성서』(The Woman's Bible)를 집필한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Elizabeth Cady Stanton),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죄는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형상인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발레리 세이빙(Valerie Saiving), 만약 한 여자가 이 세상에 원죄를 가져올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으로 여성들이 연대하여 잘못된 세상을 똑바로 고치자고 선언했던 소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 기독교 신앙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실제로 있었던 일과 남성이 선택적으로 거룩한 것들 사이에는 간극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사이를 채우는 해석학적 상상력으로 초청한 엘리자베스 피오렌자(Elizabeth Scüssler Fiorenza)···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가부장제의 모순을 지적할 용기와 권위를 가졌던 여성들의 이름을 이 짧은 지면에서 모두 소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가부장제 한가운데를 살아가며 기독교가

제도적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여 저지른 폭력적 제한 속에서도 진리를 찾아 나선 선배 여성도들에게 힘을 부여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작가를 꿈꾸는 여성은 백일몽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성에 힘입어 이 땅에 새로움을 지어내는 작가가 되었던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는 소설 『셜리』에서 극 중 인물의 입을 빌려 이렇게 신앙고백 했죠.

만일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열 달란트를 주셨다면, 나의 의무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열 달란트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집 안의 장롱 먼지 속에 그 동전을 묻어 두어서는 안 되지요. 나는 그것을 찻주전자에 넣어 찬장 속에 놓아두지 않겠어요. 식료품 선반 위, 빵·버터·과자·햄과 나란히 놓지 않을래요. ...어머니,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주님은 언젠가 집에 오셔서 모두에게 보고서를 요구하실 거예요.

어디 서구 여성들뿐일까요. 헌신적인 기독교인으로서 농촌계몽운동과 여성·어린이 교육에 힘쓴 최용신은 근대 교육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졸업식에서 동료들을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초청했습니다.

우리 조선 여성들은 5,00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사회의 대세는 고사하고 자기들의 개성조차 망각하고 말았다. 이로 보아 남녀 양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가 남성만의 활동과 노력만으로 원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여기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각하여 자기들의 책임의 분을 지고 분투한다면 비로소 안전한 사회가 건설될 줄로 믿는다. ...중등 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 생활만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만 꿈꾸어야 옳을 것인가.

제도적 언어와 가치를 복음과 뒤섞어 여성의 배치와 자기 인식을 조정하려 했던



가부장제 한복판에서 '기독교 시스템 바깥의 시선과 사유와 언어'를 불러들이도록 여성 성도들의 힘을 복돋은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 복음이죠. 하지만 제도적 언어를 걷어내고 복음을 발견하게 해준 힘, 그것을 이론적·체계적으로 전개한 사상은 페미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기독교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읽어보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아 창조하고 선택할 자유를 지닌 존재인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엔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 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텍스트에서 강조되는 것은 '다스리라'는 청지기적 소명을 받는 부분이에요. 다스림의 특권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다스림처럼 다스리라는 의미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다스림이 피조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다스림은 아닐 것입니다. 어리고 연약하고 힘없는 생명을 보듬고 살리고 길러내는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창조의 명령을 소명의 왜곡 없이 오늘날 받아들이기 명료한 표현으로 번역한다면 '살려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함께 받은 존재 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생의 축복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찌 개체수를 늘리는 일만 의미하겠습니까. 이 명령을 위해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해석하는 것은, 생명에게 복을 주고 삶을 풍성하게 살아내길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새 생명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력을 닮은 경이로운 능력이에요 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각자의 재능과 소명을 잘 '길러내며' 생의 기쁨을 충만히 채우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도적·신앙적 이유로 자기 포기를 강요받아온 여성의 자리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나'로 살아남과 동시에 '너'를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도리이며, '사람의 도리'를 수행하는 데에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말하면, 전통주의적 시각을 가진 성도들은 창세기 2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과 차이가 드러나 있다고 하며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로 지음 받은 여성의 창조 목적은 남성을 돕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다스림'을 수행하는 남성을 돕는, 그림자 노동을 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여자가 창조되기 이전에 남자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요. 따라서 창세기 2장의 강조점은 남녀 위계나 구별에 있지 않고, '다름'의 분화와 '상호 도움'의 요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이 잠들었다'는 표현을 읽을 때 그동안의 전통에 익숙한 성도들은 '남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잠든 것은 '사람'입니다.

“아, 그럼 잠든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가요?”

설마요. 본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잇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어 여자(잇사)를 만든 뒤에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돕는 배필'로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에제르 케네그도'(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고요. 그러니까 2장을 페미니즘의 낯선 시각으로 읽어보면, 그동안 남자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로 분화된 개별자 인간 둘이 서로 마주 보고 서로가 가진 다름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도와주며 '다스림'을 수행해가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인 거죠.

그동안 '도움'의 주체를 여성에게, 그것도 가사와 육아로 제한한 것은 '가부장들이'였을 뿐입니다. '도움(에제르)'이란 상대를 마주하기 전에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을 도와야 할지, 그건 사람마다 처한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성경 텍스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 역시 '에제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찌 에제르가 집안에서 살림하고 남편을 보조하는 일로 제한되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이 페미니스트들에게도 '낯선 시각, 사유, 언어'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만 살자는 것이 기독교의 본령이 아니듯이, '여성만 살자는' 주장은 페미니즘의 본령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젊은 페미니스트들에게서 걱정스러운 입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 사회의 자기 계발 담론과 페미니즘 사상을 선택적으로 버무린 혼종성입니다. 사는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이 없이 '무한 경쟁', '각자도생'이라는 현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갖게 되는 '병리적' 태도입니다. "재기해", "주혁해" 그것이 제아무리 오랫동안 있어온 여성 살해에 대한 '상징적 미러링'이라고 해도, 생명을 향해 죽으라고 외치는 것은 그 어떤 사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 않을까요. 기독교인이 받은 두 가지 창조 명령, 즉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내고'(존재 명령) '연약한 생명을 살려내는'(구원 명령)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믿고 주장하고 삶에 적용하는 기독교적 소명이 페미니즘과 만난다면, '살고 살리는' 페미니즘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 참고문헌

- \_ 백소영,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뉴스앤조이, 2018.
- \_ 기 베슈텔, 전해경 옮김, 『신의 네 여자』, 여성신문사, 2004.
- \_ 리랜드 라이큰, 김성웅 옮김,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 생명의 말씀사, 2003.
- \_ 키르시 스티에르나, 박경수·김영란 옮김, 『여성과 종교개혁』, 대한기독교서회, 2013.
- \_ 오정화, 『19세기 영국 여성 작가와 기독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_ 유달영, 『농촌 계몽의 선 구여성 최용신 소전』, 성서조신사, 1939.
- \_ 송인규·정재영 외,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IVP, 2018.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페미니즘이라는 '낯선 렌즈'를 적용할 때, 그동안 익숙했던 성경 본문이나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02

— 기독교를 '낯선 렌즈'로 적용할 때, 오늘날 대중화된 페미니즘 안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수행성은 무엇일까요?

03

—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페미니스트도 패러다임은 다양합니다.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지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 4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하나님의 이미지와 젠더 정체성

## 하나님은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강호숙

###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 페미니즘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인간의 성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동시에 남성과 여성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도록 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주체가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따라서, 그리고 인종과 연령 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삶의 실존적 경험인 인간관계와 분리될 수 없고, 제한적이며 임의적인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희한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모두 포용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신학자의 성경 해석과 교회의 가르침에 의존하는 의식적 경험, 그리고 개인이 체험하였을 때의 감정과 기억으로 이루어진 정서적 경험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삶의 주체자의 관점과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여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남성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는 주체임을 자처하며 성경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남성 이미지라고 강조했고, 남성 하나님의 이미지가 전통적 신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여성들은 남성 하나님의 신적 이미지에 기반한 남녀의 위계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표출할 수조차 없는 ‘주체성을 잃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성적 하나님 이미지와 상징이 모든 인간의 궁극적 기준과 신앙의 고백이 될 수는 없으며, 남성이 이해한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정해 놓은 정체성과 역할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임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창조 교리(창 1:27)는, 여성도 하나님의 이미지와 신비를 드러내는 고유함과 대표성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뚝서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메리 스투어트 밴 르우윈(Mary Stewart van Leeuwen)은 “젠더 정체성의 인식과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측면으로써, 남녀는 생식이라는 최소한의 성역할을 제외하고는 성역할의 ‘상보성’ 가운데 창조, 다스림, 사회성, 성령의 열매, 정의와 평화, 자유를 실천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남녀가 이해한 하나님의 모든 이미지를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과 신앙 그리고 인간성 실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일이 됩니다.

페미니즘 역시 ‘여성됨이 곧 인간됨’이라는 지향을 가진 이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주체성과 고유성을 가졌다는 기독교 신앙의 지향과 맥을 같이합니다. 페미니즘은 우선 남녀의 수직적인 관계에 의문을 품는 데서 시작하여 평등한 인간관계와 인간성을 추구하는 관점(또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가지 성(性)을 편들지 않는다고 교회가 믿는다면,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성경 읽기를 통해 기독교의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와 신앙을 규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체적인 결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나와 타인, 더 나아가 나와 창조 세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을 승인하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여성의 관계, 교회와 여성의 관계,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 전체를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 성경에 나타난, 성과 관련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은 남성적인 이미지라고 믿게 만드는 호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은 주님이 모범으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나오기에 정당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라기보다, 남성 중심의 교회가 주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의 의도를 놓치고, ‘남성성’을 신적 권위로 투사하여 힘과 통치로 다스리는 ‘남성 아버지’ 이미지로 고착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은 시편 89편 26절에 딱 한번 나타날 정도로 희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의도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녔던 유대 사회에서 만물의 근원 이면서 동시에 내재하여 돌보시는 친근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당대의 언어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이미지는 유대 가부장 사회에 익숙했던, 엄격하고 권위적인 남성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집 나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다 맨발로 뛰어나가 반갑게 맞이하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로,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은 유대 사회에 통용되었던 하나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혁신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친근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남성대명사(He)로 묘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는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자 할 때 남성대명사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폴 주이트(Paul K. Jewett)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He)를 남성적 언어로 해석하지 않고 유추적으로 해석한다. 유추의 분명한 요소는 그 단어가 갖는 성(性)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의미를 가리킨다”라고 적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性)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남성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적 이미지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구약학자 이영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자식을 잊지 못하는 젖먹이의 어머니로 비유되고 있다. 기독교 전통과 구약학자들은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의 상징을 혼돈 세력과의 싸움에 비유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남성 전쟁신과 비교하지만, 창조의 원리는 생명 잉태와 모태에서 비롯된 여성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왕’(시 145)과 ‘용사’(사 42:13)처럼 힘과 통치를 기반한 남성적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몸이 마치 자궁을 지닌 여성, 더 나아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젖을 먹이며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는 어머니의 이미지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사 1:2, 43:1, 49:15; 호 11:3-4; 마 23:37). 민수기 11장 12절을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가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가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자신의 몸을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명 잉태와 출산의 이미지를 갖는 하나님의 여성적 창조 사역은 여성 ‘하와’를 모든 생명의 모태(산 자의 어미)가 되게 함으로써 여성을 통한 생명 잉태와 양육, 더 나아가 ‘여성의 후손’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한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과 십자가의 희생,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과 공활하심에서는 힘과 능력으로 통치하는 남성적 이미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활 그리고 위로의 여성적 가치와 이미지가 더 많이 발견됩니다.

## 남성적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떻게 여성을 소외시켜왔는가?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를 인지했던 이레니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초대 교부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가슴에 품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의 핵심

은 신분의 높고 낮음, 빈부의 격차, 남녀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포용성, 평등성, 사랑의 돌봄, 성령의 충만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가부장적인 교회가 남성 인물 중심의 구속사를 강조해오면서, 창조 사역에 나타난 생명 잉태와 돌봄이라는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와 ‘여성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낸 포용성과 평등성의 의미를 ‘남성적 상징’으로 모두 대체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존슨(Elizabeth A. Johnson)이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징의 문제는, 그 은유가 남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적 상징이 배타적이고 임의적이며 가부장적으로 적용되어 남성성 적용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자리 잡는 데 있다.*

인간의 언어와 몸의 경험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남성이 털이 있다는 것은 남성의 뛰어난 속성 중 하나이다…그래서 남성은 여성보다 털이 많고 더 따뜻한 피를 갖고 있으며, 더욱 완벽하고 더욱 성숙하다”라면서 여성의 몸을 열등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성은 ‘실패한 남성’”이라고 한 편견을 이어받아, 여성이 육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부정적인 여성관을 정립하였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수많은 남성 신학자들,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산에서 난자와 정자가 함께 협력한다는 방식을 1827년이 되어서야 발견했다는 역사적 사실만 봐도, 교회사에서 가부장적인 하나님 이미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의 몸을 남성의 시선을 가지고 함부로 취급했으며, 여성이 몸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를 어떻게 소외시켜왔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가부장적인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남성적 이미지만 드러냅니다.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남성 저자들 역시 가부장 시대의 옷을 입었기에,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



만, 남성 중심의 관점과 시대의 성별 편견과 문화의 한계에 따라 남성 인물 중심의 구속사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남성을 부르는 ‘형제들’이라는 호칭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울러 남성은 ‘죄’에 무관하나 여성은 죄악을 범한 국가나 음행의 주체자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멸망할 딸 바벨론아”(시 137:8),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겔 16:38), “간음한 여인들이”(약 4:4) 등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에서 ‘나라’, ‘백성’, ‘도시’라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인데, 성경을 기록한 남성과 성경을 번역한 남성들은 여성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여성형 명사를 강조하여, 유독 여성을 ‘음란한 죄인’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라고 말씀하면서, 가부장 유대 사회에서 오히려 간음의 주체를 ‘남성’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21세기 현대 사회의 눈높이에 맞게, 여성 혐오적인 단어보다는 ‘간음하는 백성들’처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젠더 정체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기본으로 개인의 정체감 발달과 신앙, 인간관계 형성 그리고 젠더 역할의 인식적 기초가 되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를 반영하기에,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투사되어 고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몇 해 전, 여성학 수업 시간에 한 여학생이 무려 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신이 경험한 친아버지의 폭력적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겹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남성적 신관을 강요할 때, 실제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투영되면서, 신앙생활과 정상적인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황혜리와 김지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정체감 확립과 자아 성취, 행복감뿐 아니라, 불안, 우울, 욕구, 좌절, 소외 등의 심리적 병리의 주원인이 되어 심리적 안녕과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바람직한 하나님 이미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성을 하나님 이미지의 대변자로 자처하면서, 여성이 경험한 하나님 이미지와 신앙 그리고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 질문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이미지와 상징을 제한하고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교회는 성폭력적 성경 본문(창 34; 사 19-21; 삼하 13)을 해석할 때도 성경 속 남성들의 성폭력과 죄악은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이나 ‘왕이 없어서’라는 명분으로 가부장적인 지배구조를 강화하기에만 급급한 설교를 합니다.

남성 교부들과 남성 신학자, 그리고 남성 목회자들은 남성만을 완전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긴 나머지, 예수를 남성을 위한 지배와 통치의 구원자로 삼고, 여성은 죄와 연결하여 열등하게 보면서 인류 타락의 원인이라는 오명을 여성에게 뒤집어 씌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구속자는 여성으로 올 수 없다. 여성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여성이 우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수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에 왔어도 만나주지 않았고, 그 당시 증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천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과 ‘사도들의 전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퀴나스와 같은 해석은 예수님의 의도를 무시한 가부장적 해석일 뿐입니다.

또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사사기 19-21장에 나오는 모든 성폭력과 토막 살인의 원인을 모두 ‘레위인 첩의 음행 탓’으로 돌리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삿 21:25)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성폭력의 잔인성과 가부장적 악습을 인지하지 못하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성이 독점하면서 성폭력이라는 죄가 분명한데도 남성성 보존을 위해 침묵 속에 묻혔고, 그뿐 아니라 여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남성 목회자에게 신앙적·정신적·육체적으로 종속시키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언어 권력을 지닌 남성 목사나 교수들은 여성의 몸을 비하하는 성희롱적인 발언과 성

차별적인 설교를 남발하여 여성들에게 모욕감과 상처,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남성적 이미지로 고착화하는 것은 가부장적 독단주의를 양산하는 일이며, 남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독점하는 것은 여성이 억압과 소외, 차별과 분열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남성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남성적 이미지로 굳히고 사역도 남성 중심으로 성별에 따라 분업했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를 품어주는 ‘어머니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성’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성(sexuality)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남성은 성(聖)에 속하고 여성은 속(俗)에 속한다는 성숙 이론론과 남녀 위계적 인간관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해온 여성의 생명 잉태와 출산, 그리고 성적 친밀감이 주는 평등성과 인격성, 성령의 충만과 신비로운 연합도 놓쳐버렸습니다.

##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본 하나님의 이미지와 여성의 정체성, 그리고 남녀관계

기독교 윤리학자 백소영은, 가부장적 시각과 제한에 갇힌 여성의 몸에서 벗어나 온전한 실재에서 출발하면서 발현하는 여성성을 실현하려면, 여성 상징을 상상하는 여성적 언어와 글쓰기로 서로 대화하며 성장하는 존재로서의 나와 너, 궁극적으로는 ‘우리’라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구원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페미니즘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여성적 하나님 이미지와 여성의 정체성 그리고 남녀관계를 해석해야 합니다. 여성이 주체성과 대표성을 갖고서 성경(text) 속에서 페미니즘적 가치와 젠더 요소를 발견하여 기존의 가부장적인 하나님 이미지와 젠더 인식을 의심해야 합니다. 남성과 동일하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위와 정체성을 찾아, 성평등을 비롯하여 깨진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존재와 생

태 정의 등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과 여성 사이, 여성과 남성 사이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와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을 지닌 ‘관점’이 페미니즘의 시각입니다.

페미니즘 성경 해석 분야에서 ‘제2의 물결’의 실질적 창시자로 알려진 여성 신학자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Elisabeth Schüssler Fiorenza)는 “복음서에 나오는 여성들의 증언과 선포가 신학적으로 개념화되고 기억되지 않는다면, 남성에 의한 성경 텍스트와 전승이 도리어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피아(Sophia, 지혜)를 통해 여성이 경험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지혜를 해방과 평등을 위한 ‘제자도’로 해석하였습니다.

구약학자 김순영은, 구약 잠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잠 1:7)이며, 특히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가르침의 내용은 ‘인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애로 표현된 히브리말 ‘헤세드’는 구약에서 성실, 호의와 사랑, 자비와 선한 행실과 관련된 것으로서,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거나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존재로 여겼던 구약 이스라엘의 가부장적인 여성 개념을 초월하는 시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모두 남성이 기록했다 해도,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과 어린 시절, 공생애 이전의 생애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엄마 마리아는 성육신 탄생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인간성을 증언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기에, 그녀의 부활 증언은 ‘사도 중 사도’의 권위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첫 복음 선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며, 부활의 복음은 교회의 설립을 촉진한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 증인이든 남성 증인이든, 부활 후에 세워진 교회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증인의 권위와 역할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 ‘평등 제자직’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자산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자처하는 교회에서는, 남성의 몸이든 여성의 몸이든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와 젠더 정체성, 성역할과 성윤리 등 모두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와 젠더 정체성, 그리고 젠더 역할에 대해 도전과 해석의 가능성을 주는 성경은 민수기 27장 1-11절의 '슬로브핫의 다섯 딸' 본문입니다. 가부장적 성경 해석은 남성만 가문을 잇거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선입견에 치우쳐 여성의 권리와 역할을 배제하며 축소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을 누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가부장 질서가 곧 '신적 질서'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 아버지, 남편, 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받는데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모세에게 상속을 요청하여 딸도 지파의 대표로서 상속받는 '판결의 율례'가 규정되었습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용기 있고 주체적인 문제 제기와 도전은 젠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를 드러냈으며 젠더 정체성과 젠더 역할의 큰 전환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열린 신관과 겸손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슬로브핫 딸들의 문제 제기가 헤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율례로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청원으로 제정된 새로운 율례의 판결은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없거나 형제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의 범위가 확장되어, 성 편견과 사회문화적 한계를 뛰어넘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민 27:9-11).

하나님은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애굽 출신인 사라의 여종 하갈도 만나주셨습니다. 하갈은 자신을 감찰해주신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과의 체험을 담아 샘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창 16:13-14). 우리는 하갈이 샘에 이름을 붙이는 모습에서, 가부장 족장 시대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천한 신분의 하갈의 신음을 듣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따뜻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비천한 곳으로 임하신 예수의 성육신 탄생과

뜨거운 구속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사라를 '열국의 어미'(창 17:15-6)로, 이삭과 똑같이 리브가를 '천만인의 어미'로, 야곱과 똑같이 레아와 라헬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세운 여인들'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부장적 계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와 라헬로 이어지는 남녀 파트너십 구속사를 통해 하나님의 남성적-여성적 이미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페미니즘과 젠더 이슈가 부상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젠더, 기독교 신앙과 젠더 윤리에 관심이 많아졌으므로 여성들이 더욱 연대하여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주체적으로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 속 하나님의 이미지와 경험 그리고 젠더 정체성과 남녀관계를 규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인간성'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에드вина 게이틀리(Edwina Gately)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여성의 정체성, 그리고 남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내 하느님이 내 중년의 뼈를 소생시키고 내 모든 '그러나'들을 제지시키며 내 배에서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내 정신이 무아지경에 들어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기서 따뜻하고, 촉촉하고, 짝조름한 하느님이 일어나서 함께 춤추자고 고갯짓을 했다. ...여성의 에너지는 단련되지 않은 남성성에 균형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여성이 자신의 억압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면, 남성도 그 비현실적이고 파괴적인 힘과 통제의 고지에서 내려와 중간지대에서 여성성을 만나야 한다. 여성과 남성은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만들어내고,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탄생시켜야 한다. 여행은 멀고 고통스럽지만, 여성과 남성이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다. 하느님-어머니요 아버지인-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이는 우리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갈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남녀의 하나 됨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고전 11:12),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는 말씀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 대결 구도로부터 자유로우시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고유함과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회가 지나치게 남성적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여성의 하나님 이미지를 드러내야 비로소 ‘온전하신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우리’를 알게 됩니다. ‘남녀의 평등한 하나 됨’이 곧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변혁적인 도전이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참고문헌

- \_ 메리 스투어트 맨 르우윈, 윤귀남 옮김, 『신앙의 눈으로 본 남성과 여성』, IVP, 1999.
- \_ 스탠리 J. 그렌츠-데니스 키에스보, 이은순 옮김, 『교회와 여성』, CLC, 1998.
- \_ 이영미, “여성의 눈으로 다시 읽는 구약성서의 하나님”, 『구약 논단』(19/3), 2013.
- \_ 엘리자베스 존슨, 함세웅 옮김, 『하느님의 백한 번째 이름: 하느님 신비에 관한 여성 신학적 논의』, 바오로 달, 2000.
- \_ 황혜라-김지윤, “기독교 상담에서 하나님 이미지의 중요성 연구: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의 영적 안녕,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2012.
- \_ 백소영, 『페미니즘과 한국 교회의 맥락들』, 뉴스앤조이, 2018.
- \_ Elisabeth Schüsler Fiorenza, *In 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s*,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4.
- \_ 김순영, 『어찌하여 그 여자와 이야기하십니까?』, 꽃자리, 2017.
- \_ 에드위나 게이틀리, 황애경 옮김, 『따뜻하고 축복하고 짝조름한 하느님』, 분도출판사, 1998.
- \_ 진 에드워드, 임정은 옮김, 『하나님의 딸들』, 죠이선교회, 2009.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던 의도에서, 오늘날 교회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02

— 가부장적인 하나님 이미지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나눠봅시다.

03

— 여성이 체험한 하나님 이미지와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며 깨달은 것들을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남녀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말해봅시다.

# 5

## 젠더 렌즈로 읽는 한국 기독교 역사

채송희

### 젠더 렌즈로 역사를 읽는다는 것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고, 한반도에 기독교 신앙이 전해진 지도 130년이 더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130년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이야기인데도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나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온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3·1운동 등 한국 교회 역사를 소개하는 책을 읽다보면 발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안 한 삶을 포기하고 낯선 한국에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들 중에는 여성 선교사가 많았을까요, 남성 선교사가 많았을까요? 여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성 선교사들은 대부분 결혼하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아내 선교사가 있었고, 또 독신 여성들이 선교사로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당연하게 남성 선교사의 수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는 여성과 남성 중 누가 더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 기독교 역사 이야기에서는 여성들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는 누군가가 기록되고 해석한 것인데 그 기록과 해석을 대부분 남성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해야 할 주제가 많은 상황에서 남성들 눈에 여성의 이야기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둘째, 역사를 기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역사적 자료, 즉 사료(史料)가 필요한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 글을 깨우칠 기회, 자신의 생각을 남길 기회가 적어서 사료를 많이 남기지 못했습니다. 셋째, 기존의 역사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 혹은 정치, 경제, 기구 등 힘을 가진 제도와 권력을 연구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구조적으

로 그런 시스템에 진입할 수 없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여성 학자가 많아졌고 또 여성을 다루는 연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한 착시 현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력이 떨어져서 시야가 흐려지면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끼서 시력 교정을 하는 것처럼 이런 착시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젠더를 렌즈로 삼아 역사를 다시 보고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젠더 렌즈로 역사를 다루는 것은 사실 여성의 문제를 넘어서 계급, 인종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지만, 이 글에서는 여성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젠더 렌즈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역사라도 그것이 남성의 시선과 논리로 해석되고 규정되었다면 그것을 비판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흔히 과거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록하는 사람이든 기록된 역사를 접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역사를 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와 연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 복음에 반응한 여성들

복음이 처음 한국에 전해졌을 당시, 한국 여성들은 가부장적 유교의 질서 속에서 일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아버지, 남편, 아들)에게서 발견해야 하는 종속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갖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낮에는 바깥출입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한 채 안쪽의 방(안방)에 격리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의 내외법 때문에 낮은 남성은 여성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에

게는 여성이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선교 초기 여성 선교사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도우미를 두어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주는 돈으로 선교사들을 돕거나 성경을 팔던 여성들을 영어로는 '바이블우먼'(Bible Woman)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로는 '전도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바이블우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전도부인은 한국 교회의 토착화 과정에서 독특하게 등장한 여성 리더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포하고, 여성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한국 여성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복음을 들려주고, 사경회를 인도하고,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쳤습니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전도부인들은 선교사들이 주는 돈을 받고 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지역 교회의 후원을 받거나 무보수로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초기 전도부인들은 대부분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남긴 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루이시 맥컬리라는 여성 선교사의 기록을 통해 한 전도부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전도부인인 한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월 첫째 주간, 그녀는 함흥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후에 이런 경험은 점점 깊어져서 이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신비한 힘과 충만한 영이 그를 감쌌다. 봄에는 나와 함께 순회 전도 예배를 다녔다. 한나는 복음서 426권을 팔았고 작년 한 해 동안 3,000여 명의 여성에게 설교를 했다. 또 도시에 있을 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반을 지도했다.*

남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절대자와 직접 소통하고, 세례를 통해 '한나'와 같은 이름을 얻고, 자신을 통해 다른 존재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성들은 난생처음 주체로 살아가는 해방을 경험하였습니다.

## 연대의 힘을 경험한 여성들

여성 선교사와 전도부인들이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결과 한국 교회에는 여성 성도의 수가 해마다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교육하고 전도에 박차를 가할 목적으로, 당시 각국 선교회의 선교정책에 따라 선교사와 전도부인들은 지역 단위로 주로 농한기에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사경회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 강의를 들으려고 일정 기간 동안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사경회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열렸고, 여성들은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먼 곳에서부터 짐을 싸서 왔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12개의 산을 넘어 225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걸어서 열흘 간 열리는 사경회에 참석했다는 등의 일화가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 학교가 소녀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했다면, 사경회는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부녀자들을 교육하는 장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처음으로 가정을 벗어나 다른 여성들과 삶과 신앙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경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면서, 사경회의 결과로 지역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의 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여성들은 힘을 모으면 더 많은 여성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성들의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1897년 '조이스회'와 1900년 '보호여회'가 만들어졌고, 장로교에서는 1898년 평양 날다리골에서 '부인전도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여성들의 모임은 1920년대 이후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장로교의 여전도회전국연합회(예장 통합)와 여신도회전국연합회(기장), 감리교의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조직된 빼놓을 수 없는 여성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던 YWCA가 1922년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됨을 인정하게 하고, 구세주이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실천하게 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발기문으로 한국에서도 조직되었습니다. 한국의 YWCA는 오늘날도 정의·평화·창조질

서의 보존의 가치를 내세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조직을 통해 연대의 힘을 경험하며 단체 조직과 운영을 배웠고, 연대를 통해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 교육의 기회를 얻은 여성들

19세기 말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지던 시기는, 500년 조선 왕조의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면서 나라를 지탱해오던 가부장적 유교 사상도 더 이상 국가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신교보다 100여 년 일찍 한국에 들어온 천주교와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학에 반대하여 등장한 동학의 신 사상, 인간의 가치, 더 나아가 여성의 가치와 교육의 중요성 등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한국 사회에 등장한 정부 주도의 근대적 교육기관은 대부분 남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둔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서양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교육사업에 주력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기독교 여학교는 1886년 감리교 스크랜턴 여사가 세운 이화학당입니다. 장로교계 여학교는 1887년에 엘러즈 선교사가 제중원 사택에 설립한 정동여학당이 처음이며, 이 학교는 나중에 수많은 기독교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정신여학교가 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1894년에 처음으로 평양에 정의여학교가 설립되었고, 이후 선교부의 정책에 따라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남학교와 더불어 기독교 여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여학교에서 공부한 여학생들은 고아나 하층민의 자녀들이었고, 선교사들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부모의 유교적인 사고방식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양반집 여자아이들은 집밖으로 내보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집 여자아이들도 기독교 여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여 1910년대 말에는 기독교 여학교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근대 여성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한국에서 근대 여성 교육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통해 배출된 여성 지도자들은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민족운동, 교육사업, 사회사업, 종교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기여했습니다.

## 민족을 품은 여성들

복음이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던 20세기 초, 한국은 일제의 통치를 받던 암울하고 어둡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18-19세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대부분 선교사를 통해 제국주의와 복음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는 독특한 역사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교회가 경험한 복음은 상대적으로 서양의 제국주의에 물들지 않은 복음이었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거국적인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3·1운동에서도 기독교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사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독립을 향한 기독교 여성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이미 여기저기에서 움트고 있었습니다. 1913년 평양의 숭의여학교와 송현여학교의 학생과 교사, 평양 지역의 전도부인들이 모여 송죽비밀결사단을 조직했습니다. 송죽비밀결사단의 여성들은 수예와 편물로 돈을 모아 상하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평양 지역 여전도회를 통해 여성 인권 각각 계몽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족정신과 독립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자연스럽게 3·1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비폭력 만세운동입니다. 교회 여성들의 모임인

여선교회나 여전도회의 전국적인 조직은 만세운동의 연락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관순처럼 기독교 계열 여학교의 학생들은 지방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의 최고 통치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는 3·1운동에 연루되어 검거된 사람의 수를 19,525명, 이 중에서 여성의 총수를 471명이라고 기록했는데, 체포된 여성의 80퍼센트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5퍼센트였다는 것과 여성의 사회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신앙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한 기독교 여성들의 활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독교 학교 출신의 여학생, 전도부인과 여성 지도자들은 힘을 합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들

190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 교회는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는 1907년에 독노회를 조직했는데 전원이 남성이었습니다. 독노회는 '목사와 장로는 세례 받은 남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했고, 지역 교회 당회의 회원을 목사나 장로로 한정했습니다. 이로써 장로교에서 여성은 공식적으로 의사 결정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감리교도 북감리회가 1908년에, 남감리회가 1918년에 각각 연회를 구성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여성은 배제되었습니다. 다만 1930년 남·북 감리회가 단일 감리회로 통합되면서 만든 '교리와 장정'에서는 여성 목사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인 여성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으며, 이 규정으로 외국인 여성 선교사 14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후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감리교에 한국인 여성 목사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장로교 재건교회가 1951년에 최덕지를 목사로 인정하면서 1974년 기독교장로회, 1994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2003년에 예수교성결교 등이 여성 안수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하며 여성에게 리더가 될 기회를 주지 않는 교단이 많습니다.



여성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도록 못 박은 차별적 규정과 더불어 실제로 여성들이 교회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점차 제한되었습니다. 초기 전도여성들은 설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는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직화와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은 주로 교회에서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6년 한 남성 목사는 전도부인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목회상 남교역자는, 첫째 진리를 먹이고 가르치는 일, 둘째 교회 치리하는 일, 셋째 교회 경제에 관한 일 등이며, 전도부인들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의무는 있으나 밭 벗고 나서거나 간섭함은 자타의 불리한 것이나...”

교회 밖의 기독교 여성 조직이었던 YWCA 같은 단체들과는 달리 제도교회의 일부였던 여성교회나 여전도회 등의 모임도, 그 시작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조직이었지만 점차 남성들의 지도와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1928년에 총회의 허락을 받은 장로교의 여전도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34년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전도회 규칙 가운데 “당회와 노회, 총회의 지도하에 내외지 전도사업의 찬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 시작한 여전도회가 이제 남성들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여성의 일은 총회 전도사업을 ‘찬조’(찬동하며 도와줌)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여성의 독특한 직제가 있습니다. 바로 ‘권사 제도’입니다.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 애쓰신 귀한 분들입니다. 원래 권사 제도는 감리교에 있는 직제이고, 감리교에서 권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장로교에는 원래 권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5년 제40회 예수교장로교 총회에서 봉사를 잘 감당하는 여성들에게 권사 직을 주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교회 현장에서 헌신된 여성들에게 장로의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당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권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장로교에서는 여성 장로

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 장로의 수는 남성 장로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 이후의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여성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젠더 렌즈로 역사를 읽는 아주 작은 시도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교회가 보수화되면서 교회 여성들의 역할도 보수화의 경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원하는 여성은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된 여성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마다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고 투쟁하며 소외된 자들과 함께한 선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교(통합) 여성 안수는 1930년대 처음 여성 장로 청원이 시작된 후 60여 년에 걸친 끈질긴 투쟁의 결과입니다. 1960년대에는 교단을 뛰어넘은 여성들의 연대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라는 단체를 통해 이루어졌고, 1980년대 기독교 여성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아, 1980년대에 한국에 여성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여성학자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신학화한 것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위안부 운동과 정대협도 사실 기독교 여성들의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더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이제 초기 기독교 여성들의 헌신을 오늘날에도 여성의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가부장적 역사 해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만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독교 여성들도 그들처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자리를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젠더 렌즈로 역사 읽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이 글에 등장하는 이야기 외에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들의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02

— 교회의 조직화, 제도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위치가 규정된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내가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참고문헌**

- \_ 김은정, 「미국 복장로회 전도부인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21.
- \_ 이화여대 여성신학연구소, 『한국 여성과 교회론』, 대한기독교서회, 1998.
- \_ 정현백,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의 젠더 인식: 가족사와 여성사 연구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7권 제2호, 2017.
- \_ Louise McCully, “Fruit of Revival”, *Korea Mission Field*, 1907. 06.
- \_ 이우정·이현숙, 『여신도회 60년사』, 여신도회전국연합회, 1989.





# 1

##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박유미

교회는 어떤 문제에 대해 최종적 근거와 권위를 어디서 찾을까요? 현재 기독교는 교회의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개신교)의 시작인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관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이고, 둘째는 누가 성경을 해석하느냐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 본문 자체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해석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제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성경 속의 가부장 문화

첫 번째 문제인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갑자기 하늘에서 푹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전 15세기 혹은 13세기 모세 시대부터 주후 1세기 초대교회 시대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여러 저자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1차 독자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신약 시대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풍습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서가 기록된 시기와 3,000년에서 2,000년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고, 근동지역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서 현대 문명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고 당시의 지리적·문화적·역사적 배경과 성서의 문학적 구조를 공부하며 성서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는 꼭 성서가 기록된

당시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구약 시대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성경도 가부장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성과 관련하여 성경 속에 어떤 가부장 문화들이 담겨 있는지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시에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결혼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의 경우 그의 딸 약사를 승리의 상품으로 내놓았고, 라반은 레아의 의사와 관계없이 야곱과 결혼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남성 손님을 위해 딸들을 희생시킬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룻, 기브아 노인). 그리고 결혼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부다쳐 사회였으며, 아내는 남편의 소유로 여겨져 사라의 경우처럼 남편이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창 12:10-20). 또한 남편은 언제든지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할 수 있지만(신 24:1-4)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서원은 남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무효화 될 수 있었습니다(민 30:3-12).

둘째, 남성이 여성의 성(sexuality)을 철저히 통제하는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성은 일종의 거래 대상으로 여겨져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시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신부값은 신부의 처녀성을 사는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본 것입니다(신 22:21).

그리고 결혼 시 신랑은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면 재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부의 가족은 그녀가 처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부정을 의심만 해도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총각이 아니라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성은 철저히 통제하는 반면 남성의 성은 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 여성에게는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편이나 아버지의 땅

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땅은 경제 생활의 기반이었으므로 땅을 갖지 못하는 것은 경제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는 과부나 땅을 물려줄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자였습니다. 여성은 오로지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 등 남성에게 속해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여성 차별과 혐오가 더 팽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토라를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지만 신약 시대는 여성에게 토라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공식 인원으로 계수하지 않았기에 공중 예배에 필요한 정족수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구약 시대의 성전과 달리 여성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증인으로 여성이 선택된 것은 이런 문화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율법학자인 랍비들은 여성 혐오적인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 여성 혐오가 팽배하였습니다.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금기시하였고, 여성은 음식을 탐하며 수다나 험담을 즐기고 게으르고 질투심이 강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의 차별도 심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여성 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가부장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가부장적 해석

이제 두 번째 문제인 ‘누가 성경을 해석했는가?’를 이야기해봅시다. 인간은 성별, 자신이 자라온 가정,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는 이런 요소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객관적인 인간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해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교회의 지도자는 남성들이 독점하였고, 성경 해석자도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가부장 문화 속에서 자란 남성은 여성을 차별적 관점으로 보았고, 성경 역시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해석이 마치 객관적인 성경의 진정한 의미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성들에게 교육하고 강요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여성을 차별적으로 해석했을까요?

첫째, 여성을 열등한 존재, 종속적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해석해온 가장 오래된 논쟁은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인가?’입니다. 좀 어이없죠? 현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여성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하다는 주장이 주류였습니다. 여성을 온전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부장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크리소스톰은 오직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도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칼뱅에 와서야 비로소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래도 남성의 우월성과 우선성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종속적 혹은 보조적인 존재로 보는 가장 전통적인 근거는 ‘돕는 배필’입니다. 개정개역 성경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마주 보고 돕는 자’입니다. 즉,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게 서로 마주 보며 도와주는, 상호 보완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구문을 ‘여성은 남성을 돕는 보조자로 창조되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칼뱅은 히브리어를 잘하면서도 ‘돕는 배필’의 정확한 의미를 원어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시대의 여성관을 따라 여성이 남성의 보조자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아무리 원어를 잘 알고 시대를 앞선 개혁자라도 그 시대의 가부장적 문화를 넘어서는 해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특정 본문만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본문만 선택하여 문자

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가부장적 관점을 가진 해석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만 부정한 존재로 해석한 경우입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은 현대에서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의 월경에 대해선 아직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레위기 15장 16-18절은 남성의 설정에 따른 부정을, 19-24절에서는 여성의 월경에 따른 부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남성 해석자들은 남성의 부정에 이미 폐기된 것으로 여기고 언급하지 않지만 여성의 월경은 여전히 부정하다고 말하며, 이를 근거로 여성을 부정하고 열등한 존재로 비하하는 해석을 합니다.

다음은 남성이 불리할 때 혹은 여성 안수를 반대할 때만 여성의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여성은 잠잠해야 한다’(고전 14:34-35),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딤후 2:11-14)라는 본문을 볼 때 문화적·사회적 배경은 무시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며 여성 지도자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성가대를 하거나 전도사나 교사로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 남성만 안 가르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도사가 성인 예배, 성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곳도 많습니다. 해석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모두 가르치든지 모두 가르칠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성의 봉사가 필요한 경우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싶을 때만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합니다.

셋째, 성경의 여성들을 가부장 문화의 이상적 여성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여성 인물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라는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모습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주장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설교에서는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만 등장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한나도 자식을 얻기 전의 슬픔과 고통,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 뛰어난 신학적 찬양 등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설교자들은 한나의 신앙보다는 현모양처인 한나를 주로 말합

니다. 룯도 본토, 친척, 어머니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신앙인, 약자에게 한없는 인자를 베푸는 인간의 모습보다는 유교적 관점에서 시어머니를 잘 섬긴 착한 며느리로 해석합니다.

이상에서 보듯 가부장적 해석은 성경에 기록된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가부장적 가치관에 맞게 각색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납니다.

##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

앞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부장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과 지금까지 교회의 주류를 이룬 해석은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진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읽은 해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부장적 특성과 남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의 한계를 알게 되면서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 즉 페미니즘 성경 해석학입니다.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동안 무시되었던 여성의 생각과 경험을 인정하고 이를 해석의 출발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페미니즘 성경 해석은 성경에 대하여 두 가지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과 남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평등한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모든 인간이 모든 억압과 차별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평등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페미니즘 해석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 해석학의 전제입니다. 그 어떤 해석자도 성경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평등과 자유를 반대한다고 말하거나 차별과 혐오를 기독교적 가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 성경 해석에는 다양한 갈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 의심하기

성경이 가부장적 문화를 입고 있고 남성의 관점으로 기록되고 해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현재 성경학자들은 문화적·시간적·지리적·신학적 요소를 고려하며 성경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에 대한 본문만을 선택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해왔고, 성경 해석자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성경이 여성을 차별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본문이 현재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둘째로 본문의 해석이 가부장적 관점인지 아니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인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현재는 본문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우선, 구약의 제의법과 정·부정법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약 교회에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월경이나 출산을 부정하게 보고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보게 하는 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평등을 사회적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반영하는 성차별적 본문,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본문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다처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결혼 강요, 순결 강요), 여성의 상속 배제 등과 같은 법과 여성의 침묵 강요, 순종 강요, 여성의 교육 금지가 언급된 차별적 본문은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는 재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전통적으로 여성을 열등하거나 부정적 존재로 해석한 본문 혹은 가부장적 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해석되어온 본문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의심하며 여성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형상 문제나 돕는 배필의 문제 외에도, 야곱의 두 부인 레아와 라헬의 갈등에 대해 갈등 구조를 만든 라반에 대한 비난 없이 속 좁은 여인들의 질투로 치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해석이 과연 정당한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더 이상 지키지 않는 법이지만 여성 인권 존중의 정신을 드러내는 본문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시에 이혼증서를 주라는 것은, 남성에게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성이 이혼 후 다른 남성과 적법하게 재혼할 수 있게 하라는 의미로, 이혼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여종이나 여성 포로에 대한 규례도 여성을 성적 대상 혹은 상품으로 보고 함부로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안에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문화에서 보면 여성 차별과 반인권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그 당시의 주변 나라보다 여성의 인격을 보호하고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현재에 적용할 때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2 / 기억하기

성경이 비록 가부장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지만 성경 속에는 상당히 많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여성의 활약이나 모습이 원래보다 축소되어 기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축소되어 기록된 여성마저 그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기’는 성경 속에서 축소되고 과편적으로 기록된 여성들의 모습을 찾아내고 그들을 온전히 기억하는 읽기를 의미합니다.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편화 된 여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기록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여성은 남성 주인공의 이야기 속에서 조연으로 토막토막 등장합니다. 이런 기록 방식 때문에 그의 사역과 업적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암의 경우 그녀를 선지자로 부르고 있지만, 출애굽기 15장 20-21

절에서 여성들의 찬양을 인도하며 등장하는 것 외에 그녀의 사역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가서 6장 4절에서 보면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광야 시대를 이끈 지도자의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리암은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민수기 12장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은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동안 여성 신학자들은 이런 본문을 찾아가며 과편화된 여성 지도자들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둘째, 시대를 뚫고 행동한 여성들을 찾아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부장 문화에 순종적인 여성들도 있지만 이런 문화를 뛰어넘는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남성 해석자들은 그들을 찾아내고 설교하는 것에 인색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성의 리더십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부장적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선지자, 사사, 지혜자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도 있고,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한 아비가일과 야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며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등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고,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여성 동역자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그들이 복음 전도에 헌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여성의 대다수는 시대를 뚫고 행동한 주체적 여성들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가부장 문화를 뛰어넘어 여성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 속의 희생당한 여성들을 기억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딸 디나, 입다의 딸, 레위인의 부인, 다윗의 딸 다말처럼 비극적인 삶을 산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의 해석학은 이들의 억압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을 재구성하고 기억함으로써 그 사건을 고발합니다. 기억은 사건의 폭력성과 비극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예: 강남역 살인 사건, 세월호). 또한 그 사건을 오늘날의 여성 문제와 연결시켜 현재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역의 해석학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험입니다. 남성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비극을 성경의 여성과 현재의 여성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해석을 통해 대화하며, 현재 여성들의 비극적 상황, 억압적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 3 / 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여성을 한 그룹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 인종, 경제적 상태, 학력, 사회적 위치, 결혼 상태, 출산 경험, 식민지 경험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여성의 경험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데도 각 여성이 경험한 환경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신학도 다양한 갈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해석자가 자신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와 하갈의 문제를 볼 때, 결혼한 백인 중산층 여성의 시각과 식민지 경험이 있는 아시아 독신 여성의 시각과 인종 차별을 겪는 가난한 여성의 시각은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의 시각도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 참고문헌

- \_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동녘, 2017.
- \_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 김호경 옮김, 『성서-소피아의 힘』, 다산글방, 2002.
- \_ 이경숙 외 5명, 『여성이 읽는 성서 구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2005.
- \_ 필리스 트리블, 유연희 옮김,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태초, 1996.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여성으로서 성경의 어느 부분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봅시다.

02

— 여성 차별적인 가부장적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구체적인 대처방안도 생각해봅시다.

03

— 내가 기억하고 싶은 성경의 여성은 누구며, 그 기억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2

# 왜곡된 여성

## :하와의 딸들을 찾아서

박유미

성경에는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부장적 관점에서 여성들은 열등한 존재, 유혹하는 존재 등 부정적으로 해석되거나 성경에서 나타난 모습과 다르게 왜곡하여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현재 교회가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는 왜곡된 시각을 걷어내고 재해석함으로 성경 속의 여성의 모습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 여성은 존재론적으로 열등하다? 창조 시 선언된 남녀평등

#### 1 /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성(창 1:2)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 인간을 영혼과 감각, 이성과 감성 등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남성은 더 우수한 이성과 영혼을 상징하며 여성은 열등한 감각과 감성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과 영혼에 있으므로 여성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불완전하거나 열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성을 열등하게 보는 사상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따른 것으로 그는 '여성'을 '실패한 남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 철학의 여성 혐오적 관점이 기독교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해석하게 된 뿌리입니다.

종교개혁 시 칼뱅은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의 주석에서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그는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누고 남성은 현세적·정치적·가정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여성은 오직 영적이고 영원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여성에게도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여성의 지도력과 사회적 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

은 21세기 현재까지도 '존재론적 평등, 기능적 종속'이라는 모순적인 말로 교회 여성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사람인 하와는 창세기 1장 26절 인간 창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 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가를 토론하는 본문으로, 남성은 머리를 가리지 말고 여성은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수치와 방탕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교회가 여성들을 방탕하게 만든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문화적 맥락에서 여성들에게 수건을 쓸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12절에서, 남성과 여성은 상호존재적 존재이며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구절은 당시 문화적·선교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선포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뒤엎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화가 사라진 현대 교회에서 이 본문은 비기독교인에게 비난받지 않게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예배를 드리자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여성을 아버지와 남편의 종속된 존재로 여기며 독립된 인간으로 보지 않던 가부장적 시대에 창세기 1장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목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나라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 / 돕는 배필(창 2:20) 다시 읽기

창세기 2장 20절의 '돕는 배필'은 여성이 열등성과 종속성을 가진 존재로만 해석

해은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즉 여성은 남성을 돕는 보조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문을 근거로 사회와 교회와 모든 기관에서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로 제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 뜻은 '마주 보며 돕는 자'로, 여기서 '돕는 자'(에제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주 보는(케네그도)이란 표현은 남녀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남녀 간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아내를 남편의 소유로 생각하고 철저한 상하 관계를 요구하던 가부장적 시대를 뛰어넘는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 여성은 유혹자인가? - 유혹자 프레임 깨기

### 1 / 하와 다시 읽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여성은 남성을 죄에 빠뜨리는 유혹자라고 하였습니다. 존 밀턴의 실낙원에서 "아담은 먹지 않으려고 망설였다. 더 좋은 지식을 버리고 속지 않으려고 주저했다. 그러나 여성의 매력에 어리석게도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견해는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교회가 하와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최초의 여성 하와에게 유혹자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모든 여성에게 확대하여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6절을 이 문제와 연결시켜, 하와가 남편을 유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벌을 받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여성이 남편에게 종속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은 이런 유혹의 대가이며, 이것은 모든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규율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해석은 여성을 부정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성을 유혹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와의 부정확한 기억(“죽을까 하노라”)을 파고들어(“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3:6)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는 행동도 말도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하와는 자기 옆에 있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넘겼고, 아담은 그것을 받아먹었습니다.

이 본문은 행동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가 뱀과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듣고 있다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도 안 죽은 것을 보고 자신도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즉,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처럼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지 하와의 유혹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와가 유혹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것을 추궁하실 때 “그(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여성은 유혹자, 남성은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뱀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전가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듣지 않고 각자에게 그들이 행한 죄를 따라 벌을 내리십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 후 여성과 남성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려졌습니다. 여성이 받은 벌 중 하나가 남편과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너는 남편을 향한 갈망이 있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인데, 여기서 ‘갈망’은 기본적으로 먹잇감을 삼키려고 하는 동물의 욕망을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아내가 남편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욕망과 아내를 지배하려는 남편의 힘이 충돌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리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가 한 몸으로 느꼈던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서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관계가 아니며 회복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남녀 관계 또한 타락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독교인의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 2 / 뱀세바 다시 읽기

전통적으로 사무엘하 11장에 일어난 사건에 이름을 붙일 때 ‘뱀세바 간음 사건’ 혹은 ‘다윗과 뱀세바의 간통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뱀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정욕을 참지 못해 일어난 간음 사건, 혹은 뱀세바가 다윗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추어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하여 다윗을 유혹한 간통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남성 해석자들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뱀세바는 왜 그 시간에 열린 공간에서 알몸으로 목욕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유혹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뱀세바를 유혹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의 유혹에 안 넘어갈 남성은 없다며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의 범죄를 축소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해석하기 원했던 남성 해석자들이 다윗의 죄를 숨기기 위해 뱀세바를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남성 가해자 중심의 해석을 대신하여, 사무엘하 11장을 피해자 중심으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건에 대한 이름부터 다시 붙여야 합니다. 전

통적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인 밧세바를 중심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일으킨 다윗을 중심으로, 그리고 관계의 강제성을 인정하여 '다윗의 성폭행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왕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한 '위계에 의한 다윗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성폭행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11장 1-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왕들이 전쟁할 시기에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렀다고 하며 다윗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모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2-4절은 1절의 나태한 모습과 다르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는 밧세바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가 율법에 금지된 범죄임을 알면서도 밧세바를 불러와서 동침합니다. 밧세바는 적극적인 다윗과 대조적으로 다윗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다윗의 주도하에 일어난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위계에 의한 다윗의 성폭행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의 수직적 관계 때문입니다. 밧세바 입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나라의 왕이고 자신의 남편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가부장적 사회에 순응적인 여성인 밧세바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닥칠 후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남성이고 밧세바는 힘 없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왜 다윗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했느냐며 밧세바를 비난하곤 합니다. 이것은 가해자의 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의 전형입니다. 본문을 보면 밧세바는 자신의 집 어딘가에서, 그것도 월경이 끝난 후 부정함을 씻기 위한 제의적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삼하 11:2,4). 다윗 궁은 예루살렘에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백성들의 집은 그 아래에 가깝게 있었기에 열려 있는 문이나 창문을 통해 그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이 그 시간에 왕궁

옥상에 나올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밧세바가 시간을 맞추어 옥상에서 목욕했다는 것은 본문과 무관하게 상상력을 동원한 해석입니다. 자신의 집 어딘가에서 정결례를 위한 목욕을 한 밧세바가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비난받아야 하는 사람은, 우연히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범죄인 줄 알면서도 눈의 즐거움을 따라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불러들여 성폭행한 다윗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유혹적인 모습을 보았던 옥상에서 본 것이나 그로 인해 성욕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윗에게는 욕망을 참지 않아도 될 권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성 해석자들은 남성의 성욕에 대해 남자는 원래 그렇다며 관대하게 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빼고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며 남성에게 엄격한 성욕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밧세바를 성군 다윗을 유혹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유혹자가 아닌 성폭행 피해자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3 / 잠언의 음녀 다시 읽기

여성을 유혹자로 보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성경 중 하나가 잠언입니다.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얻고 어리석음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인데, 그 와중에 지혜와 반대되는 인물로 '음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모든 명예와 부와 생명을 잃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음녀'의 사전적 의미는 '음란하고 방탕한 여성'으로 성적으로 방탕한 여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음녀'라고 해석된 히브리어는 대부분 성적으로 음란한 여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 나오는 '음녀'라는 단어는 재번역이 필요합니다.

잠언에서 '음녀'가 등장하는 구절은 여덟 개입니다(잠 2:16, 5:3, 5:20, 6:26, 7:5, 22:14, 23:27, 30:20). 여기서 성적으로 방탕한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인 '조나'가 나오는

구절은 두 개(6:26, 23:27)이며, 간통을 한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인 ‘페나아페트’가 나온 구절은 하나(30:20)입니다. 그 외 다섯 구절은 ‘낮선 여성’, ‘이방 여성’을 뜻하는 단어인 ‘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6장 26절은 창녀와 유부녀(음란한 여인)와의 관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23장 27절도 성적 방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구이므로 ‘음녀’로 번역한 것을 완전히 오역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개의 본문은 ‘이방 여성’ 혹은 ‘낮선 여성’으로 쓰는 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의미가 없는 여성에 대해서도 성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번역한 것은 여성을 유혹자로 보는 남성의 관점을 반영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성’을 ‘음녀’로 번역한 것은 남성 중심의 해석일 뿐 아니라 잠언의 전체적인 상징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의 ‘이방 여성’은 ‘지혜 여성’의 반대된 상징으로 ‘여호와 신앙 밖에 있는 것’ 즉, 이방 문화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은 지혜 여성과 이방 여성을 대척점에 놓고 둘을 비교하며, 지혜 여성은 생명이고 이방 여성은 죽음이니 지혜 여성의 말을 듣고 그의 길을 따르라 촉구합니다. 지혜 여성은 선지자(1장), 창조주의 딸(8장), 집을 지은 여주인(9장), 유능한 여성(31장)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참고로 잠언 31장의 ‘유능한 여성’도 우리말에서는 원래 뜻이나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잠언은 가부장 문화 속에서 남자아이(“내 아들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혜 여성’나 ‘이방 여성’은 남자아이에게 교육하기에 적합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로 인한 성차별을 막기 위해 ‘지혜자와 낮선 사람’, 혹은 ‘지혜와 타인’ 등 성이 드러나지 않는 중성적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 4/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성 찾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오랫동안 동행하였고, 그의 죽음의 순간과 부활의 순간을 목격한 중요한 증인이며,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

로 강단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누가복음 7장 37-50절에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인인 여성과 막달라 마리아를 같은 여성으로 설명하며 창녀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해석은 6세기 이후 교회 지도자들이 하와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성적 결합으로 죄가 전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죄, 성(sex), 여성을 같은 범주에 넣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창녀를 쉽게 연결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해서 창녀로 해석하였습니다. 그 후 교회 역사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 회개한 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산 회개의 아이콘으로 설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교회 역사 속에서 해석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말하고 초대교회에선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16:9)과 누가복음(8:2)에서 일곱 귀신 들렸던 여성으로 소개합니다. 두 본문 모두 그녀를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주시는 여성이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성 제자의 한 명으로 소개합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성 제자들이 도망간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은 예수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고, 부활한 예수를 맨 처음 만났습니다. 여성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을 부활 증인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녀들이 예수의 죽음을 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한 여성 제자로 봅니다. 그 증거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거론될 때 그녀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또한 맨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따른 여성 제자들의 리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초대교회의 사도성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난 그녀는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고 상당한 영향



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위상은 외경(초대교회의 중요한 글들)과 1~5세기 초대교회 지도자의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세기 이후 교회가 제도화 되고 직분이 서열화 되고 베드로가 중심이 되면서 여성의 지도력은 제도권에서 밀려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증언한 사도에서 창녀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부활의 첫 증인이며 초대교회의 사도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가진 인물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문헌

- \_ 레너드 스위들러, 이성청 옮김,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 신앙과 지성사, 2017.
- \_ 채승희, “초대교회의 막달라 마리아의 표상(表象)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56(1), 2008.
- \_ 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 대한기독교서회, 2015.
- \_ 박유미 외 7명, 『이런 악한 일을 내게 하지 말라-구약의 성폭력 그리고 권력』, 동연출판사, 2020.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성경이 말하는 남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02

— 여성에게 씌워진 유혹자 프레임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03

— 교회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이런 차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방법을 나누어봅시다.



## 3

# 지워진 여성: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은 여성을 찾아서

이은애

성경은 남성 중심적인 시대와 그런 사회에서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성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 안에서 여성은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남성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니까요. 성경을 기록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후대에 와서도 여전히 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언급하지 않거나 해석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여성의 눈으로 여성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와 활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전쟁에 나간 사사 드보라와 전쟁을 끝낸 여성 야엘

구약성경에는 특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 아론과 함께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 광야 생활에서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던 미리암 외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 지파별로 흩어져 살면서 약 200년 동안 왕이 없는 시기를 지냈습니다. 왕이 없었지만 대신 사사(士師, shophet)가 있어서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재판하거나(재판관), 주변의 적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는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기에는 열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중에는 여사사 드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삿 4-5장).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억압할 때에(삿 4:1-3)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랍비들의 아내 여선지자(삿 4:4)로 소개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드보라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에 맞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갈 것을 청하고,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성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국 드보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고, 홀로 도망하던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성의 활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군대와 함께 나가 전쟁에 승리한 드보라의 활동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며 동시에 사사로서 출애굽 당시 모세의 역할과 비교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야엘의 역할도 흥미롭습니다. 겐 족속은 가나안과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시스라가 그리로 도망갔다고 추정되는데, 야엘은 오히려 장막에 그를 재우고는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민족적·종교적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성경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야엘이라는 여성이, 전쟁 무기가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강한 군대장관을 죽임으로써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야엘은 이스라엘 군대장관 바락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하고 승리의 공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야엘의 예상치 못한 행동은, 사사기 5장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 중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며 젊은 여성을 전쟁의 약탈물로 언급하는 것에 근거한다면, 전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젊은 여성이 먼저 반격하여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편을 선택하였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전쟁 내러티브들 속에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드보라와 공동체 밖에 있던 의외의 여성 야엘의 활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 종교개혁의 조력자, 여선지자 홀다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는 다윗의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는 과정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왕국의 역사는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데,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야웨를 배반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종교적 이유에서 찾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종교적 평가, 즉 야웨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주를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신명기적 가르침과 기준에 따라 왕과 왕국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쓴 역사가를 신명기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역사가에 의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벧엘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하므로(왕상 12:28-33)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왕들도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북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앗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반면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남 유다의 왕들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야웨 신앙으로 돌아가는 종교 정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남 유다의 왕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하면서 발견한 율법책을 근간으로 유다의 야웨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시도합니다(왕하 22-23장, B.C. 621).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대한 야웨의 뜻을 물을 때 여선지자 홀다를 찾습니다(왕하 22:9-13). 보통 성경에서 여성은 이름 없이 활동만 기술한 것과는 다르게 홀다는 여선지자로 명명되며 남편과 거주지까지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왕하 22:14).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도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왕궁의 관리들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의미를 몰으려고 예레미야가 아닌 홀다를 찾았다는 것은 홀다가 잘 알려진 예언자였음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둘째 구역에 거주한다는 것 또한 홀다가 당시 사회 중심부에서 활동했던 공식적인 제의 관료에 속하였다고 증거입니다.

예언자이며 제의 관료인 홀다는, 이전에 므낫세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앗수르의 갖가지 우상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이 아웨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언하면서, 예루살렘과 산당들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왕하 22:14-20). 홀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은 앗수르가 망할 것을 확신하며 이방 제사장들을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천체 숭배를 비롯한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종교 정화를 단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왕하 23:1-14).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것을 전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여선지자 홀다가 존재했고, 그의 활동은 왕국의 운명을 바꾸어놓았습니다.

## 도성을 구한 아벨의 지혜로운 여성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통일국가를 이루어나갔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고, 두 번째가 바로 세바의 반란입니다(삼하 20장).

베냐민 지파 출신 세바가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삼하 20:1)라고 외친 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북 이스라엘 지파와 남 유다 지파가 하나의 국가로 화합한 민족적 통일성을 위협하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세

바를 따랐고, 이에 다윗은 아버지세와 요압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삼하 20:6-7). 반란자 세바는 도망다니다가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에 위치한 벤마야가의 아벨로 숨어들어갔습니다(삼하 20:14). 도시 아벨이 반란자인 세바를 받아들인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도시는 곧 다윗의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민족 내에서 전쟁과 무차별 살인이 행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자 군대장관인 요압은 도시 아벨을 포위하고 그 도시의 성벽만큼 댐같이 높은 둔덕을 쌓아올렸습니다. 경사진 형태로 흙더미를 높이 쌓는 것은 마치 벽을 뚫는 전쟁기구처럼 두꺼운 성벽 안으로 병사들이 직접 침입할 수 있는 전쟁 기술이었고, 동시에 성 내부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요압의 군사들이 이 둔덕으로 성벽을 침입하려고 할 때 그 도시에서 한 지혜로운 여성(הַחַכְמָה, isha hakamah)이 등장하여 요압과 이야기하기를 청합니다(삼하 20:16). 그녀는 큰 소리로 두 번에 걸쳐 명령형으로 ‘들어보라’고 외침으로써 공격을 멈추게 하고 군대 사령관과 대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군사적 문제에서 협상의 당사자로 나타났습니다. 요압 앞에서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칭하면서(삼하 20:17) 외교적인 어투를 사용했지만 그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는 요압의 군대와 무력이 오랜 전통을 가진 도시 아벨을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고발합니다(삼하 20:19). 이 대화에서 여성은 도시의 대표자로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인격화된 도시가 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압의 폭력적인 전쟁은 도성 안의 백성들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즉 땅의 소유는 아웨의 기업인데 요압이 ‘아웨의 유산’(19절)인 도성 아벨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이 전통에 근거하여 요압을 비난한 것은, 거칠 것 없는 군대 사령관 요압을 당황시켰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멀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삼하 20:20-21a).

여러 번에 걸친 강한 부정은 요압이 당황하여 강하게 비난을 피하려 했음을 나타냅니다. 요압은 그가 원하는 것은 반란자 세바뿐이므로, 그를 내준다면 군대가 물러날 것이니 성읍이 안전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세바의 머리를 성벽으로 던져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이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요압과 대등한 관계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도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직역하면 ‘그녀의 지혜로’ 설득하였고, 약속대로 아벨 벤마야가의 주민은 세바의 머리를 잘라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반란은 끝났고 더 이상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병사들을 물러나게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삼하 20:22b).

왕정 시대에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칭호는 공적인 신분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사 시대 혹은 왕정 초기에 특정한 지도자적 신분을 가진 여인의 칭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인격화된 도시, 아벨 벤마야가의 그 ‘지혜로운 여성’은 위기 상황에서 대표자로 나서서 당당하게 군대장관과 협상하고 도성의 안전과 민족의 평화 그리고 야웨 종교의 전통을 보전해 나갔습니다.

## 예수를 섬기던 어머니들

### : 베드로의 장모,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신약성경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예수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마리아나 마르다 외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이 예수를 따르고 섬겼는데, ‘따르고 섬긴다’라는 말은 예수의 제자들의 특징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남성으로 이루어진 열두 제자 외에도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

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의 십자가 수난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의 열두 제자가 모두 도망쳐버렸을 때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마 27:55-56).

여기에서는 예수의 많은 여성 제자들 중에 주목받지 못한 두 어머니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중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공관복음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 8:14-15; 막 1:29-31; 눅 4:38-39).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에 이어지는 베드로 장모의 치유 기사는 앞의 두 이야기와 달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마 8:15)라고 보도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예수가 베드로의 집에 계속 머물렀고, 날이 저물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으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마 8:16)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에게 사역의 장소를 제공하고 옆에서 그를 도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마 20:17-28)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수난 예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을 예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께 청하는, 세속적 탐욕이 가득하고 욕심 많은 어머니로 해석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수난을 이해 못 한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주위의 모든 제자들, 심지어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예수의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죠(막 9:2-13).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여러 번에 걸쳐 ‘사람의 아들의 수난과 부활’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문

기조차 두려워했다'(막 9:32)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께 나아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막 10:37)라고 요청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모두 예수의 수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등장시켜 제자들의 무지와 잘못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성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낚고 있다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아버지인 세베대와 샅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라갔을 때(막 1:19-20) 그들의 어머니도 그들과 함께 예수를 따라갔으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함께했습니다(마 27:55-56). 그 아들과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을 때에도 이 어머니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하였으며 예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며 섬긴 수많은 이름 없는 여인들은 예수의 수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며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었습니다.

## 초대교회 영적 여성, 바울의 동역자들

여성들은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고 알고 증언한 선포자일 뿐 아니라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한 '사도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 사도들은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부활한 주에 의해 성령으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도록 보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초대교회의 주역으로 나타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초대교회에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많은 여성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와

예언자와 교사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의 관료화된 교회 직분 제도와는 달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부활한 주와 영의 은사인 카리스마를 받고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르며 섬기다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증언했던 '갈릴리의 여인들'입니다(눅 23:49-24:53). 구약성경에서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여할 것이며"(을 2:29)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사도행전에서는 마지막 때의 그 일이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행 2:16-21).

안나는 여예언자로서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였으며(눅 2:36-38), 전도자 빌립의 네 딸도 모두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행 21:9).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여인들은 방언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일들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여성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무언가를 써서 머리를 가리라고 한 것(고전 11:2-16), 방언과 예언을 하는 남녀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직절하게 질서있게 하라고 말한 것(고전 14:1-40)은 오히려 바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방언과 예언하는 일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문안을 당부한 안드로니코와 유니아 중 유니아는 여성으로서 사도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도였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로 활동하였으며,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여인이었습니다(롬 16:7). 사도행전 9장 36-43절에는 그리스어로 '도르가'라고도 불렸던 여제자 다비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여인은 평소 선한 일과 구제를 많이 한 여인으로 '여제자'(μαθήτρια, mathetria)로 불렸습니다. 이 여성이 읍바에서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 그의 집으로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여제자 다비드는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가졌거나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여인들, 즉 요한의 어머니 마리



아(행 12:12-17), 자색 옷감 장수인 이방 여인 루디아(행 16:11-15), 라오디게아에 있는 늬바(골 4:15)는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하였고, 브리스가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가정교회의 집회를 인도하고 교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브리스가는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주었습니다(행 18:26-28). 바울은 브리스가를 아굴라와 함께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고(롬 16:3), 그 부부는 바울이 시리아와 에베소로 전도여행을 할 때 동행하였습니다(행 18:18-28).

비비는 겐그리아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한 오늘날의 여성 목사직을 담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2절에서 비비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며 로마 성도들이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할 것을 당부합니다. 비비는 겐그리아의 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을 도왔으며 바울도 그의 신세를 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비를 '지도자, 행정가'를 뜻하는 헬리어 '프로스타티스'(προστάτις, prostatis)로 칭하며 그녀를 자신의 자매(ἀδελφή, adelphē)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매는 선교자의 칭호이며 가정교회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존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부장적 문화와 시대 속에서도 많은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와 예언자와 교사로 활동하고, 자신들의 집을 가정교회로 세우며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나 여성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갈 3:28)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문헌

- \_ 이경숙 외, 『여성이 읽는 성서 구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2005.
- \_ 최영실, 『신약성서의 여성들』, 동연, 2012.
- \_ 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 대한기독교서회, 2015.
- \_ 캐롤 A. 뉴섬·샤론 H. 린지 엮음,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구약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_ 캐롤 A. 뉴섬·샤론 H. 린지 엮음,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신약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왜 교회에서는 성경의 여성 지도자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02

—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 지도자와 현재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을 비교해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03

— 앞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4

경계를 넘는 여성,  
금기에 도전하는 여성:  
슬로브하트의 딸들, 와스디 왕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송진순

## 경계를 넘고, 금기에 도전하는 여성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입니다. 1908년 2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 1만 5천 명이 노동 환경 개선과 여성의 투표권 쟁취를 위해 함께 일어났습니다. 당시 서구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과 이를 지지하는 사회운동이 활발했지만 '여성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평균 12~14시간 동안 온갖 더럽고 굶은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남성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한 사람의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발언하고 행동할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여성의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친 이 행진은, 이후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개혁하려는 여성들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했는데, 일제의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1985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를 계기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의 금기와 잘못된 관행에 도전하고 투쟁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져왔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차별과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해방하려는 운동입니다. 보다 큰 사회적 맥락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변혁적 운동으로써 '가난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이로써 이 땅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눅 4:16-20).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 모두의 존엄함과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가부장제라는 역사적 한계 아래서 기록되고 구성된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본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 신학자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Elisabeth Schüssler Fiorenza)는 성경을 읽는 귀한 통찰을 전합니다. 성경이 가진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차별적인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하게 수용하거나 성차별적인 성경 본문에 분노하여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표면에 드러난 이야기를 ‘직시하고 의심하라’고 제안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전통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과정은, 믿음을 깨뜨리고 성경에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에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 여성이 경험한 고통과 기억을 마주하고 창조적 상상력과 회상을 통해 여성을 해방하고, 그와 진정한 유대를 이어가는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장에서는 당대 유대 사회의 엄격한 규례와 금기에 도전했던 성경 속 여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며 경계를 넘는 여성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의 권리를 찾아서, 슬로브핫의 딸들 (민 27:1-11, 36:1-13; 수 17:1-6)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나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27장에는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기대하며 두 차례의 인구 조사를 시행하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므낫세 자손인 슬로브핫의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으로 아들 없이 죽은 슬로브핫이 딸들이 여호와에게 믿음으로 청하였기에 기업을 받고 가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한 주장의 이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을까요?

민수기 27장 1절의 원문을 보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는 도전적인 문구로 시작됩니다. 슬로브핫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이름의 다섯 딸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민수기(26:33, 27:1, 36:11)와 여호수아(17:3)에서 네 번에 걸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의 이

름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문데, 민수기 저자는 므낫세 자손인 슬로브핫의 딸들을 언급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사건을 매우 비중있게 보도합니다.

슬로브핫은 기업을 상속할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부재는 가문의 존속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민수기는 26장은 두 번째 인구 조사와 토지 분배 상황을 전합니다. 모든 지파는 계수함을 입은 수 대로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민 26:52-53). 토지 분배는 지파의 경제적 생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 혈통을 계승할 아들이 없어 토지 분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슬로브핫 가문의 삶의 터전이 사라짐과 동시에 므낫세 지파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슬로브핫의 다섯 딸은 가문을 존속시키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섰습니다. 모세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속법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비록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는 여호와를 거스른 자들과는 전혀 다르고 다만 아들을 남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니 하나님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을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라”고 답변하십니다. 이후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들 없이 죽은 경우 딸이 유산을 상속하되, 만일 딸이 없으면 고인의 형제나 친족에게 줄 것을 확정합니다.

사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상속 규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사건으로써 상황에 따른 상속법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가부장 제도가 남성에게 특별한 권리와 경제적 이권을 부여한 것이라 점에서 그동안 이 본문은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유지한 용기있는 딸들의 이야기로 축소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슬로브핫의 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핫 가문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딸도 아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당시 남성 중심의 상속법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여성도 가문을 계승

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행동입니다.

둘째, 모세를 비롯한 당대 지도부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한 제도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견 개진의 과정이 허용되었습니다. 다섯 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친족의 입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들고 나와 모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권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항변은 정당했고, 이로써 여성에게 막혀 있는 상속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모세나 지도부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말씀은, 딸의 권리를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권리를 확증하고 상속 규례를 실천하기 위해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 권리가 인정될 때까지 자신의 요청을 거듭하여 관철합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따르면, 므낫세 지파는 제비를 뽑아 요단 강 서쪽 땅 일부를 나누었습니다. 현장에서 다섯 명의 딸들은 소외된 듯 보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킴으로써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수 17:1-4). 여성의 상속권이 규례에 명시되었다 해도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재차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를 통해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여성이 어떻게 기업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속법이 제정되었지만(민 27:8-11),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가는 과정은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혁법을 이행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의 상속분에 대해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민 36:3). 상속받은 딸이 다른 지파 남성과 결혼하면 조상 지파의 기업을 잃게 된다고 역설하면서, 상속받은 여성은 반드시 같은 지파 사람과 결혼하라고 주장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혈통 계승을 중시하는 당대 규례를 준수하면서도 새로 제정된 상속법에 따라 사촌들과 결혼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유지하고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 상속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장자에게 더 많은 상속을 했고, 아들과 딸에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수천 년 전 팔레스타인의 지파 공동체에서 딸

들의 토지 분배 상속법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입니까?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라 해도 인간의 생존과 가문의 유지를 위한 결의를 우선시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이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반복되고 이 규례가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은, 단지 상속법을 소개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상속 규례를 변혁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제시하는 만큼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이 상속자로서 자기 권리를 찾고 가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 도전과 경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로 성경에 깊이 각인된 이유입니다.

##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낸 와스디(에 1:1-22)

에스더가 바사(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배경에는 와스디의 폐위 사건이 필연적으로 자리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외모를 믿고 교만하게 행동한 와스디와 순종적이고 믿음 좋은 에스더가 여성성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여성은 남성/남편-왕의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가 아니라 남성/삼촌-보호자의 청을 묵숨 걸고 수락한 현숙한 에스더가 되기를 은연중에 강요받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이세벨 왕비만큼이나 악녀 반열에 오른 와스디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바사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집권한 지 3년, 왕은 바사와 메대(메디아) 장수와 각 지방 귀족들과 총독들을 불러놓고 부와 위엄을 자랑하는 초대형 연회를 180일 동안 열었습니다. 호화로운 연회 규모에 주목하기 전에 그것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생각해야 합니다. 연회는 각기 다른 지방 권력을 규합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쟁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곧이어 왕은 수산 도성의 모

든 백성을 위해 7일간 연회를 이어갑니다.

왕후 역시 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마도 귀족과 총독의 부인들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궁 안의 모든 의전이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한다면, 왕의 연회만큼이나 왕후의 연회도 궁 밖의 민심과 정치 지도자들의 연대와 충성도를 가늠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와스디의 연회 역시 왕의 연회 이상으로 많은 준비와 배려를 통해 내정을 정비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제는 연회 마지막 날 일어났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법도대로 연회를 즐기던 왕이 그날은 주홍이 올라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나올 것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미모를 지방 총독들과 백성들에게 전시함으로써 성공한 왕의 완벽한 트로피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내시 일곱을 불러 와스디가 오기를 강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와스디 역시 왕후의 위엄을 갖고 여성을 위한 연회를 주관하고 있었으니 왕의 명령이 불편하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외관을 정비하고 왕 앞에 가면 수많은 남성 총독과 귀족들 앞에서 그녀의 육체가 찬양받고 왕의 위대함도 인증받았겠지요. 그러나 그 일이 와스디에게는 욕망으로 가득 찬 수많은 시선을 받는 것이며, 외관만 왕후일 뿐 결국은 남성의 주홍을 올리기 위한 성적 대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와스디가 거절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물론 성경의 행간에서는 그녀가 왜 왕명을 거절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랍비 문헌의 일종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와스디는 바벨론(바빌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의 손녀이자 벨사살의 딸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하고 패국의 왕족이 승자인 왕의 아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지요. 미드라시는 그녀가 정치 야욕이 많고 교만했다고 기록하여,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여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정당화 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와스디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19세기 말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Elizabeth Cady Stanton)은 에스터를 주석하면서, 와스디를 기구한 삶에도 불구하고 왕후로서의 위엄을 지킨 여성으로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자신을 존중

할 줄 아는 여성이자 시대의 페미니스트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왕후의 거절에 분노한 왕만큼이나 화가 난 일곱 총독이 왕의 화를 부추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왕후의 행실이 왕뿐만 아니라 연회에 초대된 총독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된 것이므로, 만약 이 일이 다른 부녀에게도 영향을 끼치면 온 나라에서 남편의 권위가 서지 못할 것이라고 고합니다. 와스디를 폐위시켜서 나라의 기강, 즉 남편/남성의 권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권합니다. 왕과 총독들로 구성된 남성 연대는 남성의 권위를 보호하고 가부장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법과 규례를 변경하면서 한 여성의 삶을 본보기로 무너뜨렸습니다.

소녀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 가부장제의 욕망을 이용하였다는 대담한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 에스더 1장에서 필연적으로 와스디의 사건을 등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와스디에게 덧씌워진 왜곡된 이해와 시선은 소위 여성성에 부합하지 않은 교만하고 야욕 있는 여성, 그리하여 남편에게 불순종한 대가로 비극적으로 사라진 여성으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와스디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기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을 자유를 지닌 여성으로 다시 읽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와스디는 남편—왕의 명을 거절하여 폐위당한 불명예의 아이콘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사건을 직시하고 의심하며 그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와스디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된 금기를 넘어 자신의 존엄을 지킨 여성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 복음의 시작을 열어 보인 마리아(눅 1:26-38)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청순하고 순종적인 소녀이자, 말없이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는 현숙한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눈앞



에 떠오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으로 중세 유럽의 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산 마르코 수도원의 한쪽 벽에는 1430년경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395~1455)가 그린 수태고지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수도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성서화를 보



프라 안젤리코 「수태고지」, 1430~1432, 프라도미술관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Annunciation\\_\(Fra\\_Angelico,\\_Madrid\)](https://en.wikipedia.org/wiki/Annunciation_(Fra_Angelico,_Madrid))]

며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크고 화려한 날개를 단 천사가 기도문을 읽고 있는 마리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마리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이내 두 손을 모으고 천사를 향해 몸을 낮추며 옛된 얼굴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천사도 마리아도 숭고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온몸으로 경이로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둘기로 표상된 신령한 빛이 마리아에게 내려옵니다. 이 광경이 마리아를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일 것입니다.

수태고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는 남성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황당한 계시를 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잘 묘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 칭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눅 1:38).

우리는 예수의 탄생 보도를 읽으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을, 마태복음에서는 잉태한 약혼녀를 조건 없이 맞이하는 요셉의 의로움과 신앙을 칭송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임을 되새깁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은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예수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수동적이고 부차적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마리아의 대답이 순종적이고 수동적이기만 했을까요? 자신의 '주의 여종'이라는 명명한 고백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녀의 반응이 1세기 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마리아의 응답과 태도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는 여성이라면 결코 시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순리를 넘어서는 결연한 의지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혼한 사람이 있지만,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혼전 임신을 수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 이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약혼자인 요셉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십대 소녀인 마리아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요셉이 떠난다면 마리아는 당장 미혼모가 되어야 했고, 그가 함께한다 해도 임신을 수습하기 위한 은밀한 전략을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혹스러운 계시를 받고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현실적이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여성에게 그저 듣는 태도를 요구하고, 듣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조용히 숙고하고 배울 것을 권면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봐도 여성들이 직접 질문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계시를 되받아친 장면은 밤새 천사와 생사를 건 결투를 했던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한 답변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 그 자체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구원 역사에 마리아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무모한 제안을 대담하게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의 질문과 현실의 수많은 금기를 넘어서는 결단은 자신을 주의 종으로 명명함으로써 분명하게 선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비천한 소녀를 택하셨다는 자부심보다는 앞일의 염려와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앞에 평범하고 평안한 삶이 펼쳐지지 않으리라고 예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온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고(눅 2:19), 열두 살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태연하게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눅 2:51). 예수가 장성한 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는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답했지만, 그녀는 아들의 능력을 이미 알아차렸고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첫 번째 표적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지시하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요 2:5).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받는 예수를 앞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주검을 거뒀습니다(요 19:25).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담보자이자 예수의 어머니이고 그의 동역자로서 가장 가까워서 예수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녀는 금기에 도전하고 질문함으로써 예수에게 삶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누며 그 살림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선경지명은 엘리사벳이 그녀의 잉태를 알고 기뻐하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눅 1:46-55)는 구약에 기록된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와 함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노래로 손꼽힙니다. 마리아는 권세자를 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며 세상의 질서를 거꾸러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리아의 질문과 결의에서 비롯되었음을 보도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여선지자 '미리암'의 헬라어 표기가 '마리아'라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흔하지 않은 이름이었던 마리아, 그녀가 이스라엘의 해방과 건설의 중심에 있던 미리암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의 이미지를 덧씌웠

습니다. 성녀 마리아에 대한 환상은 그녀를 신성한 예수의 어머니이자 교회와 제도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범적인 여인으로 삼아 기념했습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 70인 역본에서 동정녀를 뜻하는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는 문자 그대로 '처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인 '알마'를 번역한 것으로, 결혼 연령에 이른 젊은 여성일 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에는 '파르테노스'라는 말 대신 '귀네'(γενή) 즉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 4:4)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헬라어에 능했던 바울은 애당초 마리아를 순결한 존재로 여기거나 신비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활동했던 그레코-로마 지역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반신반인에 대한 종교적 신화를 흔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서는 이러한 신화적 모티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유대인으로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에게서' 그리고 '유대 율법 아래에서' 난 자로서 예수를 묘사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갈 4:4-7). 마리아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이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초대교회는 시간이 지나고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예수의 신성함과 동시에 마리아의 순종과 성결함을 강조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가부장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여성상—순결한 성녀이자 헌신적 어머니—이 교회 제도와 교리에 그대로 유입되면서 본래 예수가 전하고 활동했던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동떨어진,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과 헌신과 인내의 덕을 보여준 어머니 마리아보다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도전하고 결단하며 예수의 삶을 성실하게 이끌어낸 마리아, 그녀가 복음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서서 예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그 기쁜 소식은 한 여인의 삶 속에서 결연한 자기 도전과 결단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전승한 남성의 시각이 아니라 비판적 질문을 하며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부장제라는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행간에 묻혀버린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규례에 도전했던 슬로브핫의 딸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이의를 제기한 미리암, 남성의 성적 대상화가 되기를 거부한 와스디, 정략 결혼과 정치권력의 한복판에서 선 이세벨 등, 여성에게 씌워진 장막을 걷어내고 새롭게 마주해야 할 여성의 이야기는 풍성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만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해방이 창조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구조를 인식하고 자각하는 힘, 순응의 미덕이 아니라 의심과 불편함을 담은 질문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성경에 나온 여성 이야기를 읽으며 불편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02

— 와스디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03

— 잠언이나 이사야 같은 성경에는 여성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비유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5

## 다양한 경험적 존재로서의 여성: 룻, 사마리아 여인, 다비다

송진순

### 다양한 경험적 존재로서의 여성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가 『제2의 성』에서 한 이 말은 여성성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에서 인간 주체는 늘 남성이었고, 여성은 인간 주체인 남성과 다른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가 상하/주종이라는 위계적 질서로 인식되면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성차별은, 인종 차별이나 계급 차별 이상으로 오랫동안 인간 내면과 사회구조에 고착되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 억압의 뿌리를 발견하고 성차별을 넘어 모든 인간의 해방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기 페미니즘 운동이 백인 중산층 여성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벨 훅스(bell hooks)는 페미니즘 운동은 모든 종류의 지배 형태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성차별의 근절로는 사회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백인 중심 여성운동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흑인 여성들의 차별화된 경험을 강조합니다. 여성 개개인이 처한 인종, 계급, 젠더 외 다양한 억압에서 나온 차이를 고려하는 페미니즘이 출현하게 된 것이지요. 가난한 흑인 여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 계층, 백인 중심 사회에서 유색 인종,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다양한 구조의 차별과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백인 여성이 이끄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흑인 여성의 삶의 경험과 차별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머니즘(womanism)이 출현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흑인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와 하나님 경험을 신학화 한 것이 우머니스트 신학입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억압의 구조가 달라지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조 속에서 경험된 차이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페미니즘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구

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읽어내는 실천입니다. 따라서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구조 속에서 경험하는 여성과 여성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 다른 경험과 차이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태도가 요청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경 속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맥락,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삶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 다윗의 가문을 열어 보인 모압 여인, 룯(룯 1-4장)

구약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나온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룯기이고, 다른 하나는 에스터입니다. 에스터가 유대 고아 소녀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어 민족을 구한 영웅 이야기라면, 룯기는 모압 출신의 이방인 과부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룯은 에스터 왕후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었으나 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룯기는 200년간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이야기로서, 다윗 왕의 조상이자 메시아 계보가 모압 출신의 이주민 과부 노동자에게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유대인에게 모압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의 기원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룯은 소금기둥이 된 아내를 두고 두 딸과 탈출합니다. 가계를 잇기 위한 고육책이었겠지만 룯과 두 딸을 통해 비극적인 혈통 계승이 이뤄집니다. 두 딸의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에 임시로 거류했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친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룯 1:1). 그러나 불행하게도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

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기였지만 나오미와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아들마저 죽자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며 각자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합니다. 이에 작은며느리 오르바는 제 민족에게 돌아갔으나, 큰며느리 룯은 나오미와 동행하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룯 1:16-17).

이방 남성과 결혼했다가 사별한 젊은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다고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 없이 유대 땅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과 모압 족속 간에 오랫동안 반목과 적대가 있었으니 젊은 과부인 이방 여성이 베들레헴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룯은 나오미와 살면서 수모와 조롱을 받을 것을 각오했겠지요. 하지만 아들을 잃은 여인과 남편을 잃은 여인이 서로의 등을 기대면 홀로 있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두 여인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룯은 '가난한' '과부'에 '이방인' '나그네'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룯은 우연히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아스는 룯의 상황을 상세히 전해 듣고는 룯에게 다가가 곡식 이삭을 충분히 가져갈 것을 권하며,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자 종들을 통해 그녀의 안전까지 보장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룯과 함께 보아스의 마음을 뺏을 작전을 짭니다. 젊은 며느리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가문의 이름과 기업을 유지해줄 사람이라는 점에서 시도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를 맞이하여 그녀의 생계와 안녕을 보존하는 시형제 결혼(Levirate)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아들이 없으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유대 사회에는 또 다른 구제책으로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은 분배받은 기업을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는 제도로, 가난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친족의 땅을 되찾아 주는 제도입니다. 또는 자녀 없이 사별한 과부와 결혼하여 기업과 생계를 보존하는 사적 안전망으로, 기업을 무를 자는 반드시 친족 관계여야 하고 땅을 매입할 능력도 갖춰야 가능했습니다(신 25:5,7). 나오미는 고엘을 통해 며느리 룯의 생계를 지켜주고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이 가문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룯은 보아스의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그의 성품과 책임감을 보아하니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3장에 묘사된 룯과 보아스의 하룻밤은 아가서의 어떤 본문보다 더 달콤하고 에로틱한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보아스는 곧바로 자신이 룯을 책임질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원로들을 앉혀놓고 맨 먼저 기업을 무를 자와 담판을 짓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밭을 내놓았다고 하니 당신이 사려니와 아니거든 내가 사겠다. 단, 기업을 무를 때에는 모압 여인 룯에게 사되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말에 그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거절하고 그 증표를 열린 신을 벗어 원로들 앞에서 자신의 결의를 확증하였습니다. 자기 기업에 손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 여인을 책임지고 혼혈아를 낳아 남의 가문의 혈통까지 계승해야 하는 부담감에 즉시 거절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원로들 앞에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룯을 내 아내로 맞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가문이 이어지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룯은 혼인했고, 아들을 낳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룯의 아들에게 찾아온 이웃 여인들의 찬가입니다.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위로와 축하를 전하며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본문은 아기의 양육자가 나오미라고 하지만, 아기 오벳은 룯과 나오미 그리고 이웃 여성들의 연대 속에서 여성 모두의 아이로 자랍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나오미와 룯은 출신도 나이도 달랐으나 남편과 아들을 잃은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연대했던 엄마와 딸의 이야기로 변모합니다. 이스라엘 왕조

의 새로운 시대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였던 젊은 모압 여성의 상처투성이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계급, 출신, 민족과 성별을 넘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비천한 여성인 룯이 왕가의 이름을 울리며 영광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사실을, 나아가서 그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참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 복음의 선포자, 사마리아 여인(요 4:4-42)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세멜에게 구입한 산에 성을 건축하면서 원주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데서 유래합니다(왕상 16:24).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전 722년 앗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북 이스라엘이 정복당한 후 앗수르의 정책 때문에 지역민들이 강제로 앗수르로 이주되었고 역으로 이방인들이 북 이스라엘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 간의 통혼으로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남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북 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섞인 불결한 인종이었고 사마리아는 이방신의 문화가 유입된 혐오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남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사건(B.C. 586)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 율법을 재정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더럽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방인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오랜 갈등은 정치적·사회적·종교적 단절로 이어졌고,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 산에 성전을 세우고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은 유월절 같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도 사마리아를 지나는 쉽고 빠른 길 대신에 지형이 험한 여리고와 요단 강을 건너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예수는 굳이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 성에 도착합니다. 제6시, 곧 작열하는 태양으로 가득한 정오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범상치 않습니다. 태양을 피해 저녁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상례인데 인적이 드문 그때 물을 길으러 왔다는 것은, 아마도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처지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여인의 이러한 상황이나 결혼 상태 등을 분석하면서 그녀가 창기이거나 부정한 여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대법에 시형제 결혼 제도가 있다 해도 유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 세 번 이상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하니, 그리 추정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관습에 대한 문헌 증거도 없이 그녀가 어떠한 연유로 다섯 명의 남자를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혹 여인의 결혼 상태는 북 이스라엘에 주둔했던 다섯 이상의 이방 민족을 비유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이 또한 추정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물을 청하자 그녀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요 4:9)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로써 시작된 여인과 예수의 대화는, 마시는 물과 하나님의 생명의 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남성 제자들과도 나누지 못했던 심도 있는 대화로 진행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여성은 남성에게 질문하기보다는 들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불결한 땅 사마리아, 마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다섯 남자를 거쳐도 남편이 없는 소외당한 여성, 유대 남성과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비천한 여인이 예수와 대면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정치·종교·사회·젠더적 구별을 넘어섭니다. 예수는 여인을 하나님의 구원, 예배의 자세, 진리의 탐구,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문제로 깊숙이 끌고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네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여인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

다. 질문과 답변이 진행될수록 그녀는 예수의 말과 생각과 존재에 한 발 한 발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물과 관련하여 예수가 영원한 생수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어 더 이상 갈증 나지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것이 아이와 같은 순수한 답변이었던지 아니면 의심과 조소의 답변이었던지는 두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바람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미 그렇게 흘러와버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었을까요? 여러 남편을 거치면서 밑바닥 인생이었던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 뜨거운 광야 길을 홀로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의미 없는 생을 살아야 하는 체념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는 그녀의 갈급한 마음을 꿰뚫어보았고, 이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즉 구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서 예수에게 눈을 뜹니다. 처음에는 예수에게 ‘당신’(요 4:9)이라고 부르다가 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요 4:12), 아니 ‘선지자’(요 4:19)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에게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을 안다’(요 4:25)라는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라”(요 4:26). 여인은 예수에게서 ‘오실 그분,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받아내고,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요 4:27-28).

여인이 예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를 알아본 그 순간, 그녀는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기쁨과 감격을 넘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자기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물 길는 것조차 잊은 채 땀방울이 내리쬐는 흠길을, 치마를 들고 황급히 뛰어가려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깨달



음의 순간, 그 격정과 기쁨을 누구에게든 먼저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달리지는 않았을까요?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불결하고 더러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자(使者)로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대언하는 예언자이자 복음의 증언자였습니다. 스승과 여인의 대화를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남성 제자들과는 달리, 그녀는 복음을 발 빠르게 선포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남성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의 메시아됨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다'를 뜻하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Εγώ ειμι)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핵심 용어입니다. 빛이신 예수를 맞아들인 이들은 혈과 육 그리고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요 1:12-13), 예수를 맞아들인 사마리아 여인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복음의 담지자이자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자신의 과거만이 아니라 여성, 인종, 계급이라는 자기 한계를 벗어나 오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들고 흠길을 달렸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복음 선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직접 보고 알게 된 연유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요 4:42).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기자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여인과 그리고 그녀의 복음 선포 행위를 전하고 있습니다.

### 초대교회의 대모, 여제자 다비다(행 9:36-42)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6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도시 읍바, 그곳에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입니

다. 누가는 여인의 이름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 사건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설명합니다. 이는 다비다가 꽤나 이름난 여인이기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사실 다비다와 도르가는 모두 '사슴' 혹은 '영양'(Gazelle)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시 42:1)라는 표현에 착안하여, 학자들은 이름과 삶의 터전을 근거로 다비다를 구원받아 개종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 혹은 딸이라는 수식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과부는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남편과 사별하여 홀로 있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이혼했거나 아버지의 보호 없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나 전제이나 여러 이유로 오랫동안 홀로 지낸 여성도 과부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성의 보호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선의 대상이었지만, 모든 과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비다가 나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여인으로 나타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은 애통하며 베드로에게 그녀가 지어준 속옷과 겹옷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다비다가 재단사가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비다도 계급이 낮은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실제 직업과 계급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비다는 '여제자'(마테트리아, μαθητρια)로 언급될 정도로 신앙을 갖고 선행과 구제에 힘쓴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교회와 지역 공동체에서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돌볼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항구도시는 외국인과 노동자가 많고 활기가 넘치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향한 다비다의 신앙과 선행은 다비다가 교회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게 했습니다.

본래 사도행전 9장의 방점은 다비다보다는 활발한 이방 선교와 성령에 의한 이적 사건에 있었을 것입니다. 애니아의 중풍병을 치유하고(행 9:32-35), 죽은 다비다를 일으킨 사도 베드로의 행적에서 확인됩니다. 그리하여 다비다 사건은 누가복음에 있는



회당장 딸 아이로살 살리는 사건(눅 8:49-56)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였고, 베드로의 사역으로 구원과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여제자 다비다'라는 칭호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에 비해 여성의 역할과 활동을 제한적으로 보도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비다의 사건은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그녀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이적과 구원 사건을 의미하겠지만, 생전에 그녀의 활동과 위치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당시 지중해 사회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성역할이 구별되었다 해도 다비다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고대 유대인 회당의 비문에 새겨진 재정 후원자 명단에서 여성의 이름이 종종 발견됩니다. 심지어 여성 회당장과 여성 원로원에 대한 언급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때 다비다 역시 읍바에서는 초대교회의 재정 후원자요 혹은 주요 인물로서 지도력을 갖고 사람들의 신망을 얻은 여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로 불린 다비다의 활동을 '선행과 구제'라는 한정적 표현으로 서술합니다. 그녀는 과부에게 옷을 지어주며 선한 일과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여제자의 칭호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남성 제자의 직무에서는 '섬김'을 의미하는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 행 6:1)를 사용한 반면, 다비다에게는 문자 그대로 선한 일을 의미하는 '아가손 에르곤'(ἀγαθῶν ἔργων, good works)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비다에게 붙여진 여제자라는 칭호, 그녀의 부고 소식에 베드로가 즉시 달려온 점, 그리고 모든 과부들이 애도하고 그녀의 업적에 경의를 표한 점 등을 미뤄 짐작한다면, 지역 공동체,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서 다비다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종한 과부인 다비다는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가난한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구

제했고 이를 통해 복음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여성에게는 '섬김'이라는 제자직의 의미보다는 '선행과 구제'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여성 제자 및 여성 지도자의 역할보다는 교회 내에서 제한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는 교회가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과 상응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과부는 단순히 여성의 결혼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닙니다. 과부는 특정 임무와 기능을 담당할 계층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딤후 5:3-10). 목회 서신과 4세기 「사도 규정」에서는 과부를 '남성의 보호와 지지를 받지 않는, 60세 이상의 홀로되고 원숙한 자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젊은 여인을 교육하고 권고와 위로의 목회적 의무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나중에 과부의 역할이 집사의 역할로 넘어갔습니다만, 우리는 다비다가 초대교회에서 신망받는 여성 지도자로서 목회의 의무를 수행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이끄는 제자이자 교회의 대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부활 소식에 성도들과 과부들이 모였습니다. 결국 이 일은 다비다의 행적과 함께 읍바 지역 공동체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비다만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나 초대교회의 여성은 모두 이방인, 여성, 노동자, 귀족 등 인종, 계급, 출신, 경제, 혼인 여부 등 다양한 차이 가운데 서로 다른 위계와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수많은 차이를 인정하면서 복음 사역에서 남성 이상의 신앙과 헌신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결단하며 나오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선포자와 실천가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은총이 되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에 여전히 상존하는 성차별과 혐오를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여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와 차별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모두의 평등

을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듣고 인정하며 서로가 공존하고 연대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교회 내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02

— 우리를 억압하는 다양한 구조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를 규정짓는 구조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03

— 이주민 난민에 대한 교회의 관점은 무엇이며, 특히 여성일 때 왜 더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지 오늘의 본문과 연결하여 이야기합니다.

### 참고문헌

- \_ <http://women21.or.kr/notice/12951>
- \_ 구미정, 『성경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 옥당, 2012.
- \_ 유연희, 『이브에서 에스더까지: 성서 속 그녀들』, 삼인, 2014.
- \_ 안재희 외 4인, 이나영 역음, 『모두를 위한 성평등 공부』, 프로젝트P, 2020.



# 1

## 가부장제는 정말 정상일까?

오수경

“남자는 조신하게 살림을 잘해야 해. 그깟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

몇 년 전 방송인 김숙이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말입니다. 김숙은 마치 거울을 보여주듯(mirroring) 우리 사회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가부장적 관습을 재현해서 ‘갓숙’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김숙의 말이 우리에게 일명 ‘웃음 버튼’이 된 이유는 무엇 일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김숙의 말의 주어를 바꿔볼까요?

“여자는 조신하게 살림을 잘해야 해. 그깟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

이 말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주로 집안의 가장,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족, 이런 가족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 체계를 ‘가부장제’라 부릅니다.

가부장제(Patriarchy)란 ‘아버지’라는 뜻의 ‘페이트리’(patri)와 ‘지배’라는 뜻의 ‘아키’(archy)의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갓숙이 재현한 것처럼 가부장제 하면 흔히 ‘가족’을 연상하기 쉽지만, 가부장제는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 정치학』의 저자 케이트 밀렛의 “한 출생 집단이 다른 출생 집단을 지배하려는 오래되고 보편적인 하나의 책략”이라는 진단처럼, 가부장제는 오랜 기간 동안 보편적인 사회 지배 체제로서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법과 제도와 문화 등 일상적인 영역에까지 깊게 관여하는 책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해왔습니다. 또한 『가부장제 이론』 저자 실비아 윌비의 진단처럼 가부장제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며, 가족이나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사적 가부장제 외에도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성 불평등을 생산하는 공적 가부장제로 확장해왔습니다.

### 가부장제의 창조와 역사

그렇다면 가부장제는 태초부터 존재한 당연한 질서이자 체제일까요? 『가부장제

의 창조』의 저자 거다 러너는, 가부장제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기원 전 2000년경에 시작된 역사적 결과물이라 주장합니다. 사유재산과 계급사회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여성의 성적 능력 및 재생산 능력은 남성에 의해 거래되고 상품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즉, 국가 체제는 형성기부터 가부장제와 본질적 이해 관계를 같이하며 발전해온 것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여성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인력(자녀)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정복 전쟁이 가속화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복당한 집단의 여성을 노예화 하였으며 이는 노예 제도까지 확대됩니다. 이처럼 가부장제의 역사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역사이기도 합니다.

국가 체제가 가부장제에 기반을 두고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사상과 종교가 실천적 토대를 제공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근거는 셀 수 없이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메논』에서 남성과 여성의 미덕에 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먼저 남성의 미덕을 이야기해보자. 남성라면 무릇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하고, 그 다스림이란 자신의 편을 이롭게 하고 자신의 적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한편 여성의 미덕이란, 진정 그대가 알기를 원한다면, 매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여성의 의무는 집안을 정돈하고, 실내의 물건들을 지키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당시 사회가 여성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잘 드러나는 문장이죠.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서 그 인식이 달라졌을까요? '사회계약론'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이자 교육자 장 자크 루소는 여성을 훌륭한 남성으로 만들지 말고 훌륭한 여성으로 만들라고 당부하며, 여성 교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여성 교육은 남성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남성을 기쁘게 하고 남성에게*

*유용하며 남성에게 사랑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며, 남성이 어렸을 때는 양육하고, 장성해서는 세심하게 돌보며 남성에게 좋은 조언을 하고, 남성을 위로하며, 남성의 생활을 즐겁고 감미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에 변함 없는 여성의 임무이며, 어릴 때부터 여성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종교와 가부장제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성경 텍스트는 말할 것도 없고(이에 관해서는 다른 장에서 다루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교회사 역시 여성 억압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남성 기독교 사상가들은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 아담을 무너뜨린 악마의 관문'(테르툴리아누스), '잘못된 남자'(성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등으로 정의하며 신학적으로 여성 억압을 정당화 해왔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적 성경 해석으로 '성녀와 마녀(장녀)' 프레임으로 여성을 분열시키며 순응적 여성상을 '성경적' 가치로 여기게 했습니다.

현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부장제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주요 교단은 성경을 앞세워 여성 목사 안수조차 허용하지 않고, 여성들에게는 봉사와 헌신의 미덕을 강조하는 반면 '말'의 권위와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은 남성의 몫으로 제한합니다. 이에 관해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의 저자 메리 데일리는 "가부장제 자체가 지구 전체의 지배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며, 가부장적 관점이 기독교 신앙과 강력하게 연동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사상과 종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남성은 공적 영역에 그리고 여성은 사적 영역에 배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담론을 제공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부장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어왔을까요? 학자마다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되며 함께 들어온 『주자가례』(중국 남송시대 학자, 주희(朱熹, 1130~1200)의 저서로 가정 예법이 수록됨)를 통해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한 유교철학이 조선 사회의 지배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

다. 이런 유교적 명분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더욱 심화되어 호주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인구 정책을 실시하여 낙태 시술을 장려하는 등 여성의 재생산권을 통제하였고, 태아 감별이 가능해진 1990년 전후에는 남아를 선호하는 관습에 따라 여아 낙태가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혈연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 모델이 '정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표준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지금-여기의 문제로서의 가부장제

가부장제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앞서 밝혔듯,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을 공적 가부장제로 분류합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심화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적 가부장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오랜 기간 여성들의 문제 제기과 사회운동의 결과로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1987) 등이 제정되고, 여성을 가부장제 아래 종속적 존재로 머물게 한 호주제가 폐지(2005)되는 등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화되며 가부장제는 교묘하게 진화하여 여전히 젠더 불평등 구조를 지속시키는 사회 체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26년째 성별 임금 격차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특히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급락하는 이른바 M자형 곡선이 고착화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이 비정규직에 배치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45퍼센트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장'은 특정 젠더나 인종이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억압을 뜻합니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낸 2,148개 상장기업 임원

의 성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임원이 있는 기업은 33.5퍼센트(720곳)에 불과했습니다. 정치 영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4년에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가 시행되었지만,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유리 천장은 굳건해서 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영역에서의 가부장제를 살펴봅시다. 사적 영역에서는 가부장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여성들의 공적 영역 진출이 늘어났지만 가부장제의 관습인 성별 분업화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가사·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여성은 이중 노동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을 상대로 한 각종 젠더 폭력이 곳곳에서 벌어지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N번방처럼 문화를 넘어 산업으로 심화되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혼인신고 시 합의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부계우성주의 원칙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는 남성이 보편적 사회 체제가 될 수 없음에도 가부장제의 관습은 긴 그림자처럼 남아 있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가부장제의 전략과 공모자들

그렇다면 가부장제는 어떻게 이렇듯 오랫동안 전 지구적 사회 지배 체제로 작동한 것일까요? 온건한 가부장, 협조적 여성, 교묘한 피해자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건한 가부장' 전략입니다. 거다 러너는 가부장제의 지배 전략을 '온정주의적 지배'(paternalistic dominance)로 규정하며, 온건한 가부장제의 보호와 부양을 대가로 피지배 집단(여성)은 복종과 무임 노동을 교환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온건한 가부장제는 낭만적 사랑과 성스러운 결혼과 안전한 가족 제도 속에서 지속되어왔습니다. 이런 전략은 산업사회 이후 교육과 대중문화 등을 통해 핵가족 모델을 적극 재현



하며 ‘일하는 아버지-전업주부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형성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쌍문동 가족들이 그런 이미지의 전형입니다.

온건한 가부장제의 전략은 IMF 이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맞물리며 ‘가장’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이후에 사회가 주목한 것은 ‘고개 숙인 아버지’입니다. 2000년을 전후로 “아빠 힘내세요” 캠페인으로 대표되는 가부장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소설 ‘아버지’, 영화 ‘국제시장’ 등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겪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가부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최근에는 예능 ‘살림남’, ‘슈퍼맨이 돌아왔다’, ‘편스토랑’ 등을 통해 살림하고 육아도 하는 친근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온건한 가부장으로서 그 ‘얼굴’을 바꿀지언정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협조적 여성’의 존재입니다. 거다 러너는 가부장제의 지속과 유지에는 여성들의 협력과 지지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서술하며 그 원인을 이렇게 밝힙니다.

가부장제 체계는 여성의 협조가 있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여성의 협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단에 의해 확보된다. 그 수단들은, 성별교의의 주입(gender indoctrination), 교육 기회 박탈, 여성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여성의 성적 행동에 따라 ‘존중받을 수 있음’(respectability)과 ‘일탈’(deviance)을 규정함에 의해, 제재와 노골적 강압에 의해,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권력에의 접근 차별에 의해, 그리고 동조하는 여성들에게 포상으로 계급적 특전을 줌으로써 여성들을 분리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이다.

즉, 모성을 강조하며 성별 분업 체계를 주입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여 여성을 무지의 상태에 머물게 하며, 존중받는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성녀와 마녀 혹은 창녀)으로 나뉘 포상과 특권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열시켜 가부장제에 능동적

으로 협조하는 여성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묘한 피해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가부장제는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정의(definition)를 남성이 독점하여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공적 영역 진출 비율이 높아지자 이런 전략은 저항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해자는 오랜 기간 억압을 당한 여성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태어난 20대 남성의 얼굴로 등장합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이대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담은 『20대 남자』의 저자들(천관울·정한울)은 “20대 남자 현상의 핵심은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이고, 이런 인식은 20대 남성들을 ‘피해자’ 정체성을 강화한 집단으로 재탄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피해의식은 ‘페미니즘’으로 표상된 여성을 공격하는 형태로 발현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목한 주류·기성 세대는 ‘메갈’로 대표되는 페미니즘을 ‘이대남’이라는 피해자의 대척점에 놓고 성별 갈등을 부추깁니다. 이렇게 ‘교묘한 피해자’를 앞세워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운동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backlash)을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승인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부장제’는 오랜 기간 동안 남성이 가정·국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권을 행사한 권력 체계이며,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관습·문화·법과 제도를 통해 여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존속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부장제의 피해는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남성 중심적 사고 또는 젠더 불평등은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성, 남성다움을 요구하는 남성 동성 문화, 학교와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적인 군대 문화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이나 여성보다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생각과 실천 또한 남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또한 더는 ‘남성 가장’이 보편적이지 않은데도 많은 남성들이 자신을 존재론적으로 가장이라 여기며 스스로 그 짐을 지는 경우가 많고, 사회는 이런 남성들의 ‘장래가 촉망’되어서, ‘예비

가장'이라는 이유로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가부장제는 단지 여성에게만 불평등한 체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가부장제는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젠더의 문제를 넘어 계급과 권력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부장제는 젠더와 계급과 지배 권력의 공모 아래 약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착취하도록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 가부장제 바깥에서 그 너머를 상상하기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미 '탈 가부장 사회'로 진입했다고 진단합니다. 다만 가부장제의 관습이 그들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론적으로도 가부장 사회 너머의 다른 세계로 이행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가부장적 사고 바깥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가부장제가 무엇인지, 그런 체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다면, 그저 주류 권력이 정의하는 프레임에 갇혀 서로를 향한 갈등과 전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등은 가부장제를 존속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노동자와 노동자가 싸우면 고용주가 뒷집 지고 웃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다 러너는 가부장적 사고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사고(thought)의 모든 알려진 체계를 향해 회의적이 되는 것이며, 모든 가정들과 서열 짓는 가치와 정의들에 대해 비판적이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것, 여성의 경험을 신뢰함으로써 누군가의 진술을 검증하기. 그런 경험은 대체로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거나 무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지식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자신 속에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저*

*항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체계를 의심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며, 가부장제에서 삭제되거나 무시되었던 여성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부장제와의 공모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 미즈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체제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공모를 당장 거부하기 시작해야 한다. 여성은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희생자일 뿐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질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 체제의 협력자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의 몸과 삶 전반에 대한 자율권을 다시 획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부장제에 대한 이런 공모를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가부장제와의 공모 관계를 끝내고 우리 몸과 삶, 선택의 자율권을 가지고 성평등을 추구하고, 그에 합당한 문화와 제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공모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흐름이 사회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성에 중심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정상과 표준으로 여기던 사회적 흐름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사회적 논의(생활동반자법 제정,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 등)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대중문화 영역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족' 중심의 가치관과 생활에서 벗어나 '나'를 중심으로 한 일상과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또한 교회 공동체 등에서도 평등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가부장제 바깥’은 우리 생각보다 멀리 있을 수 있고, 단박에 탈출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가부장제를 넘어서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내가 경험한 ‘가부장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내 안의 가부장’을 발견한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일까요?

02

— 내가 생각하는 가부장제 바깥이란 어떤 상태이며,  
어떤 풍경인지 상상해봅시다. 그 바깥을 상상하고 구현하기까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참고문헌

- \_ 케이트 밀렛, 김유경 옮김, 『성 정치학』, 쌤앤파커스, 2020.
- \_ 실비아 윌비, 유희정 옮김, 『가부장제 이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 \_ 거다 러너, 강세영 옮김,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 \_ 메리 데일리, 황혜숙 옮김,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 \_ 마리아 미즈, 최재인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 \_ 천관울·경한울, 『20대 남자』, 시사IN북, 2019.

# 2

## 태초에 가족이 있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족'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인식하는 '가족'은 우리에게 친밀감과 소속감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가족의 다양한 정의를 소개하고, 성경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교회 안에서 가족이 어떻게 해석되고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지금껏 '신앙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가족에 관한 생각이 과연 정말 신앙적이었는지 성찰하고, 복음 안에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족이란 무엇인가?

먼저 가족의 정의를 살펴볼까 합니다. 가족은 결혼, 혈연, 입양 등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혼인을 통한 공동 주거, 사회적으로 허용된 성관계, 입양을 포함한 재생산, 경제 협력 등을 특징으로 가집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안에서 경제적 협력, 성별 분업, 상호 돌봄, 합법적인 성관계, 출산과 양육, 정서적 지지, 애정 관계 유지 등을 기대하거나 요구받습니다.

이러한 가족이라는 단위를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관점입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제도가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경제적 협력을 하고, 생물학적 재생산을 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가족을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제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족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 가족 생활과 가족 관계도 변화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혈연에 기반을 둔, 애정을 주고받는, 함께 사는 공동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볼 때 이 조건에 모두 들어맞는 가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 태초에 가족이 있었다?

교회에서 '가족'은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 장로님의 아들', '○○○ 집사님의 딸'과 같은 표현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가 두 개,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과 ‘교회’다.”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 2: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가족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생물학적 본능으로 생긴다는 입장보다 가족이라는 제도를 훨씬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라고 한다면 가족은 뭔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가족이 '성경적인 가족'일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상적 가족 형태로 보면 될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부족사회였습니다. 베스터호프라는 학자는, 이 시기의 가족은 가부장 중심으로 아내, 자녀들, 첩과 그 아이들, 사위와 며느리, 손자와 손녀, 고아와 과부의 자손과 사생아,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고자 하는 주변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일종의 '부족적 가족'이었다고 말합니다. 산업사회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우리가 이런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누이였다고 하는데(창 20:12), 오늘날 우리가 형제자매와 결혼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은 민법으로 금지까지 하고 있거든요. 또 아브라함은 사라말고 하갈에게서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일부다처제는

그 시대에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도 넘는 구약성경 역사에서 가족의 형태가 어땠는지를 구구절절 살피기에는 지면이 모자라니, 신약으로 풀쩍 건너뛰겠습니다. 신약이 기록된 1세기에 가족은 친척과 하인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구약보다는 간소해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형태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시간이 2,000년이 지났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가족의 형태는 시대마다 변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특정한 가족의 형태를 라지고 '성경적 가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가족 구성원의 올바른(?) 역할을 알려주는 듯한 구절도 등장합니다. 특히 서신서에서 그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22-24를 소개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됴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됴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엡 5:22-24).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가 가족에 대해 설교하는 걸 최소 한 번 이상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들은 설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며 읽어야 합니다. 텍스트가 서술하고 있는 문화·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걸로 치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종(노예)에 관한 본문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본문을 오늘날에도 노예 제도나 인종 차별을 지지하는 본문으로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둘째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몇 구절을 취사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방식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종종 가정 안에서의 위계를 정당화하는 방식, 즉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가부장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이 구절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복종할 것을 당부하는 말입니다. 아울러 2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엡 5:28).

이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기독교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방식의 폭력은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앞뒤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부 구절에 집중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가족’ 혹은 ‘기독교적 가족’이라는 건 대체 어떤 걸까요? 과연 그런 게 있기는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같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고 반문하면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

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 누구도 가족에 대한 이런 정의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 개념에 강력하게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로운 가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혈연을 뛰어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적 가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26).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9).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가족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와 지향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기독교인들은 종종 가정 파괴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오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족의 개념을 확장했고, 피가 섞이지 않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진짜 형제자매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오글거리는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기도 하나봅니다.



## 교회, 그리고 가족

이제 다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말하는 가족의 형태는 암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입니다. 가족에는 결혼을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그들의 돌봄과 양육을 받는 자녀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형태를 갖춘 가족이 기독교 가족의 모범이라고 여겨집니다.

좋은 신앙인이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다거나,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거나 혹은 잘못되었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가치 판단이 개입되었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하여 가족이 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돌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유일한 형태와 기능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한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면 다르게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를 찾기는 어렵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가족의 형태는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가 많다고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한국 사회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1960년대 이후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핵가족을 가족 형태의 규범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런 가족의 형태를 규범화한 현상에 대해 사회학에서는 ‘정상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정상’이라는 말에는 정상이 아닌 상태, 즉 ‘비정상’이 존재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가족의 형태를 정상이라고 말했을까요?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경험했습니다. 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그 당시에는 가장 적합한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대신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가족끼리 뭉쳐서 힘을 모아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정부도 이런 정상 가족이 규범이라는 생각을 부추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가족 중심주의가 강한 민족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대화의 생존 문제까지 더해지니 산업화에 적합한 핵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여기는 독특한 가족주의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상 가족에 대한 규범이 교회에서 수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수용이 된 정도가 아니라 강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요. 이런 정상 가족을 강조하는 것은, 얼핏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지만, 정상 가족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가족 형태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자녀가 이혼했을 경우 장로님, 권사님은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편히 꺼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니까요. 좋은 기독교인은 그래서 안 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혼율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혼율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되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종종 교회 어른들로부터 결혼에 관하여 과도한 관심과 암묵적인 압력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청년들은 교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교회 공동체에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족에 대해 언급할 때도 편견이 담긴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힘드니 아내는 집에서 곱게 단장하고 있다가 사회생활에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성이 담긴 음식을 차려줘야 한다든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이 신앙의 어머니의 몫이라고 말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예화들은 오늘날의 사회구조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가부장적 정상 가족에 대한 생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남편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연봉이 더 높은 아내,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남편, 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서 배제를 경험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에게도 교회에서 그 가정 이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장한 비난)은 주로 여성 성도에게 쏟아집니다.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은 모두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렇듯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중산층 가족이 교회에서 신앙적 규범으로 제시될 때, 오늘날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소외시키게 됩니다. 미혼자, 비혼자, 이혼자를 비롯한 다양한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무자녀 가족, 청소년 이 가장인 가족, 재혼 가족, 만혼 가족, 다문화 가족, 이주민 가족, 빈민 가족, 실업 가족 등은 교회에서 편안하게 발을 딛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외는 앞에서 말한 설교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 교회 행사, 교회의 구조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가족 합창제 혹은 가족 찬양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려질 겁니다. 대부분 전형적인 핵가족 이거나 혹은 조부모까지 포함한 가족이죠. 가족 찬양제에서 혹시 혼자 나와 찬양을 하거나 조손 가족, 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이 에 출연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통계청이 2021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가 1인 가구로 가장 많고, 그다음엔 28퍼센트로 2인 가구가 많아요. 다시 말해 혼자 살거나 둘 이 사는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60퍼센트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가족들은 여전히 주변부에 있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또 매년 5월이면 교회에서 자주 출몰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소위 '가정 사역 세미나'라는 것입니다. 가정 세미나도 아닌 가정 '사역' 세미나지요. 사역은 '일을 시킨다'

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사역 세미나는 곧 가정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세미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편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쉬을 얻어야 할 공동체인 가정에서조차 '사역'을 한다니, 표현 자체가 주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역'이라는 것도 가부장제의 원리를 강화시키고 남성 과 여성의 고정된 젠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 예수의 가족

지구화, 전 세계적 이주 현상, 전통과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포스트모더니즘,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현실, AI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혹은 근대적인 가족의 개념과 형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또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러한 흐름을 성경적 가족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통적 가족, 혹은 가부장적 가족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답인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혈연 공동체인 당시의 가정을 해체하고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가족은 핏줄과 결혼으로 연결된 가족의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새롭고, 다양하고, 급진적이고도 종말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적인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었다는 뜻입

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말한 가족 개념을 이루어 가도록 지금껏 우리가 신앙적 규범으로 생각해온 가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해야 합니다. 김혜령 교수는 예수님이 말한 가족 개념의 확장이 사랑받는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 시대 가족들이 겪는 아픔과 불행이 혹시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교회의 무관심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정의의 관점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꼭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 참고문헌

- \_ 김은혜, "한국 사회의 가족 해체와 가족신학의 정립의 필요성", 『장신논단』 39권, 2010.
- \_ 김혜령, "김은혜 교수님의 <한국 사회의 가족 해체와 가족신학의 정립의 필요성>을 읽고 펼치는 짧은 생각 - 공공신학과 어울리는 가족신학을 위하여", 『여성신학』 75권, 2012.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 혹은 가정과 관련된 행사들을 떠올려보세요. 거기서 가족은 무엇이라고 정의되고 규정되어 있었나요?

02

— 이제까지 내가 들은 설교에서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역할은 어떻게 고정되어 있었고, 또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나요?

03

— 예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가족은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해보세요.

# 3

## 새로운 '가족들'이 온다!

오수경

가족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고 든든한 관계일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징글징글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앞의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이란 아버지가 생계를 부양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를 담당하며 자녀를 돌보는 핵가족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계급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문화를 경험했는지에 따라 '가족'에 관한 경험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하면 흔히 운명적으로 연결된 혈연 공동체로 이해하지만, 가족은 "가족은 사회·경제적 제도"라는 전제처럼 '제도'(family institution)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가족 제도 역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가족에 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젠더 관점에서 가족을 보면 어떨까요? 페미니스트 연구자를 비롯한 가족 연구자들은 대체로 가족을 "사회적 관념으로 구성된 사회적 상상물"이라고 정의합니다(구부리움 & 홀슈타인). 또한 가족의 형태와 생활 방식이 다양하다는 의미에서 '가족'(family) 대신 '가족들'(familie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사적 가부장제로서의 가족이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또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가족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나?

근대 이전까지의 가족은 통치의 모델로 존재합니다. 즉 '가부장'으로 상징되는 군주의 권위와 가족은 서로 유사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부터는 이런 통치 모델은 소멸되고, 개별 가족 제도가 등장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 제도는 삼국 시대부터 이루어져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의례·법률상 엄격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집권 이념인 유교의 영향으로 관혼상제(冠婚喪

祭)의 예절이 보편화 되고, 이에 관한 각종 제도도 구축되었습니다. 산업화 이전까지 대가족이 모여 사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점점 핵가족화 되었습니다.

개인-가족-사회는 개별적 개념이지만 서로 깊게 관여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 사회학자 조은주는 한국 사회의 인구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연구한 『가족과 통치』에서, 가족이란 국가와 개인, 젠더와 계급이 교차하는 한복판이자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힘들이 경합하고 대결하는 장임을 역설합니다. 즉, 가족이란 국가의 모형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국가 체제의 필요에 의해 재구성되기도 하며, 그런 변화에 따라 개인의 존재 방식도 변화한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회는 서구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가족 중심적인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째, 성별 분업화입니다. 물론 전통 가족 시기에도 성별 분업은 강력하게 작동했습니다. 남성이 수렵 활동을 하면 여성은 살림과 재상산 영역을 담당했지요. 이런 흐름에 관해 거다 러너는 『가부장제의 창조』에서 “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쉽게 결합시킬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선택하거나 선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합니다. 가족이라는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성별 분업이 유지된 것이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사회로 접어들어 일과 가정이 분리될수록 ‘일하는 남편-살림하는 아내’ 구도가 선명해집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되었고,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을 물건 취급하던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강력한 가부장제에서 온건한 가부장제로 변화했을 뿐, 가족은 가부장제의 기초 단위로 존재해왔습니다. 사회가 발전하였고 여성이 공적 영역에 배치되며 남성과 동일하게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성별 분업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해 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은 『모성의 발명』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근대 이행기, 근대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남성에게만 해당하며, 여성의 경우 ‘나의 인생 행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외려 그 이전보다도 더욱 가정  
에 속박되었다.

둘째, 가부장적 가족의 존속을 위해 발명된 것이 ‘모성’입니다. 굳이 ‘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모성을 선천적인 것이라 여기지만 많은 학자들은 모성을 현대에 와서 강조되고 신성화 된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농업과 수공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육아는 부차적이거나 공동의 일이었습니다. 여성도 일을 해야 했고 자녀는 ‘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모성이 발명된 건, 산업화 이후 노동 분업이 일어나고 ‘개인’이 중요해지면서부터입니다. 이런 흐름에 관해 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산업사회가 작동하려면 ‘자유로운 시장’과 ‘평화의 오아시스로서의 가족’이 필요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에 대해 정반대되는 성적 특성이 구성되고, 그에 호응하는 대조적인 미덕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인간이 독립된 사회인으로 완성되기까지 가족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당연히 ‘엄마’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 시기와 맞물려 모유 수유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가사 노동 및 교육을 하는 엄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전까지의 성별 분업과 모성이 집단 안에서 형성된 불가피한 분업이었다면, 18세기 이후에는 ‘소명’으로서 발명되어 신성시 하였습니다.

셋째, ‘정상 가족’이 강화됩니다. 핵가족이 가족 제도의 주요 모델이 되며 가족 제도는 더욱 배타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종교 영역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작동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개인보다는 ‘가족’ 중심의 정책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확산으로 지급된 재난 지원



금도 가족 단위로 지급되었고, 주택 정책을 비롯한 사회 제도 역시 가족 중심입니다. 만약 비혼 여성이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결혼을 앞둔 여성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도 '혼인 신고'를 한다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의 범위와 형태를 협소하게 잡아 가족 바깥의 생활 방식을 소외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입양 혹은 계모(부)에 관한 편견을 가진다는 가, 조손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을 오랫동안 '결손 가족'으로 불러온 것이 그 예입니다. 여기에 '혈연 중심'이라는 오래된 관습까지 더해진다면 그 소외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이에 관해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은혜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국 사회는 기존의 친족·지역적 공동체가 철저히 해체되어가고 있고, 혈연적 그것도 아주 근친적 적게 핵가족 중심으로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부를 축적하는 데 전념할 수록 이혼과 사별 가족, 빈곤층 가족, 저소득층 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새로운 가족들이 온다!

통계적으로 봐도 오랫동안 한국 사회 가족의 기본 모델로 자리매김해온 소위 4인 정상 가족은 더는 기본 모델이 아닙니다.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있고, 출생률은 세계 최저입니다. 4인 정상 가족과 함께 그와 유사하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화 중 하나가 '단일민족'입니다. 단일민족도 더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적합한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니 '가족'에 대한 개념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로 적용하는 청년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뿐 아니라 비혈연·비혼 생활 공동체, 청년 동거 커플, 노인 동거 커플, 성소수자 공동체, 미혼 부모, 한부모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도 이런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나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개인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가 키운다」는 다양한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 출연하여 서로의 일상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하여 아이를 낳은 방송인 사유리는 '가족은 무엇인가?'에 관해 한국 사회에 목격한 질문을 던지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부분의 대중문화 콘텐츠는 혈연으로 구성된 정상 가족이 주류이지만,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지요. 대중문화보다는 더디지만 법과 제도도 변화하기 위해 꿈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습니다. 혈연·혼인·입양으로 구성된 전통적 개념의 가족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적 돌봄 체계 안에 속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혈연이나 혼인 형태가 아닌,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등록하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 등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동반자법 논의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가족이 해체된다고 세상이 망하는가?

'가족'을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로 인식하는 교회나 대가족이나 핵가족 안에서 성장한 기성 세대는 이런 흐름을 우려하며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현재까지 우리가 경험한 가족 개념은 해체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을 역동적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그 해체는 다른 사회로의 이행, 즉 재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가족 체제가 모든 성별에게 정의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체제인 가부장제는 여성들을 억압했고,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족 해체는 개인들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사회가 고수한 부정의한 가부장제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체제를 거부하고, 재구성하려는 흐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해체가 없다면 재구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가족 로망스와 성장 소설』의 저자 나병철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가족의 해체’는 세대와 세대, 사회와 사회 사이를 가로지르는 역사적 생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공시적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은 안정된 가족(가정)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을 지키려는 이데올로기에 포위된다. 그러나 통시적·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 같은 이데올로기가 실현될 수 없는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가족의 해체 속에서도 다른 진정한 삶을 꿈꾸게 된다. (중략) 우리 시대의 가족의 해체는 자본주의적 가족질서(그리고 사회질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족 해체를 통시적이며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에 예측되었던 부당한 관습과 개인들이 새로운 질서와 진정한 다른 삶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문제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이 사이에서 이행, 즉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퇴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요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체와 재구성 사이, 이행과 퇴행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여러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회는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다소 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가족 개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부정의로 해체되는 다양한 가족들을 수용하는 확대 가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지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존재와 기능의 평등성입니다. 2020년 합동 교단이 여성 목사 안수에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가 ‘존재론적으로 평등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종속’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신들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의 모범인 예수님과 현대 기독교에도 영향을 끼친 바울도 (시대적 한계는 분명하지만) 존재와 기능면에서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초기 교회를 비롯하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전파된 초기만 하더라도, 교회는 성별과 계급을 넘어선 평등을 추구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즉, 우리가 취해야 할 가족 관계에서의 태도는 평등이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서로’ 정신이며,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적과 사적 영역의 통전성입니다. 이런 평등성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무너뜨립니다. 흔히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가부장제의 역사는 이런 ‘성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성별 분업, 모성성 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태도는 ‘통전성’입니다. 이에 관해 여성학자 정희진은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협상, 생존, 공존을 위한 운동이다. 여성운동은 남성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세계관과 경험만을 보편적 인간의 역사로 만드는 힘을 조금 상대화시키자는 것이다. 남성의 삶이 인간 경험의

일부이듯,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경험도 인간 역사의 일부임을 호소하는 것이다. 또 내가 생각하는 여성운동은 여성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 남성이 '사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성경에 '남성도 육아하라', '가사노동을 하라'는 구체적 구절이 없어서 실천을 못하는 건가 싶어서 여성학자의 말을 빌렸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가족 관계에서 "여성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 남성이 사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개인'의 역할이 강조되며 일하는 여성이 많아졌지만, 그 여성들은 일도 하고 살림도 해야 하는 '이중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사회·교계를 가리지 않고 결혼·출산률 저하를 걱정하며 그것의 책임을 '페미니즘'에게 전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단과 달리 2030세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일이 자신의 존재와 사회적 성취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 사회, 특히 청년 세대에게 결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 체제는 불공정한 제도와 관습이 되버렸습니다.

셋째, 사회적 모성의 실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범위가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족 제도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많은 기능이 '시장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봄과 교육의 대부분이 시장화 되어 계급에 따른 격차가 생겼고, 소외된 존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계급에 따라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고, 교육적 필요에 의해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은 여성 가족 구성원의 무임 노동이나 값싼(여성) 노동 인력으로 대체됩니다. 이에 관한 문제는 점점 심화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혼인·혈연이 중심이 된 가족은 더는 주류 모델이 아닙니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누가 가족인가?'에 관한 질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독교인은 가

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재구성하면 좋을까요?

예수의 가족 이해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그를 따르는 무리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평가와 자녀를 위한 사랑 그리고 학대와 폭력을 배제한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그의 모든 가르침을 고려한다면,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은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를 왜곡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의 가족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 가치는 정치적·경제적 부정의에 대한 비판으로써, 예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놀라운 치유자로, 폭력적인 세상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은혜 교수의 이러한 말을 빌리면, 전통적 가족 제도는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가족은 무엇일까요? 가족은 나-우리-사회가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물론 사랑에 기반을 둔 '친밀한 결사체'는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사회 기초 단위로서 존속될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의 범위 바깥의 존재들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가족이 구성되서는 안 되고, 혈연과 계약 관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의 '확장된 친밀한 결사체'로 존재할 수 있을 때, 가족은 보다 사회에 이로운 방식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적 가족 내에서도 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가부장적 권위를 평등하게 분배하고, 소통과 협력, 신뢰와 사랑을 공유하는 가족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은 단일한 단위가 아니라 개인들의 구성체임을 이해하고, 개인보다 가족이 우선 고려되는 사회·문화적 관습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가족은 나에게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02

— 평등하고 정의로운 가족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03

— 결혼과 혼인 이외의 가족의 형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가족들을 위해 나 혹은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참고문헌**

- \_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2018.
- \_ 거다 러너, 강세영 옮김,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 \_ 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 이재원 옮김, 『모성애의 발명』, 알마, 2014.
- \_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13.
- \_ 나병철, 『가족 로망스와 성장 소설』, 문예출판사, 2007.
- \_ 김은혜, “한국 사회의 가족 해체와 가족신학의 정립의 필요성”, 『장신논단』 39권, 2010,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 1

## 성성(sexuality)과 성성(holiness)의 '거룩한' 관계성

백소영

'성'(性)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연관하여 떠올리는 것은 '육체적 성관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성'(性性)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을 보고 많은 분이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한자로는 똑같은 앞의 '성'과 뒤의 '성'을 구별해야만 이 단어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뒤의 '성'은 분명합니다. '특성'이라는 의미예요. 사물, 사람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것'의 특정한 성질을 '성'이라고 합니다. 동물성, 식물성, 개성, 전문성, 모성 등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든 특징적으로 구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일컫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은 '성성'입니다. 영어에 익숙하다면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단어가 더 명료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섹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섹시' 아니고 '섹시' 말입니다. 언젠가 유치원 학부모로부터 충격적인 일화를 전해들었습니다. 여섯 살 어린이가 옆의 친구를 칭찬하는 어조로 "너는 참 섹시하구나!" 하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주변 학부모들은 잠깐 당황하더니 '귀엽다'는 듯 웃더랍니다. 그 학부모는 곧바로 아이에게 되물었답니다. "섹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니?" 아이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확고한 표정으로 답하더랍니다. "예쁘다는 말이잖아요." 오, 마이 갓(Oh, My God)! 이럴 때 외쳐야 하는 비명이 맞겠지요?

'성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의 '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섹스'(sex)가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과연 '섹시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풀어갈 수가 있겠죠.

### 몸이 '착해야 하는' 세상의 도래

'성관계'라는 말을 하죠. 맞습니다. 성은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 모르고 '관계'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문화와 성산업에 열광하는 문명은 유사 이래 처음이지 싶습니다. 오죽하면 얼굴도 모르는 한 여성의 갈록한 허리와 풍

만한 엉덩이만 보고서 “어머님이 누구니,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셨니?” 흥분하는 남성의 칭찬이 유쾌한 음률, 춤과 함께 버젓이 전파를 탈까요. 자고로 대중가요란 시대 문화를 기민하게 읽어내는 법입니다. 하긴, 드라마도 예능도 온통 ‘착한’ 얼굴과 ‘착한’ 몸매에 대한 선망과 찬양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얼굴과 몸매에 ‘착하다’는 인성적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걸까요? ‘팻미인’과 기타 유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기형이나 사고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힘든 얼굴/몸을 현대 의료 과학 기술로 고쳐주는 사례도 종종 나오지만, 보통은 세상 기준으로 뚱뚱하거나 못생긴 얼굴을 날씬하고 예쁜 모습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결과는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이전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인간관계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그동안 연애 한 번 못 해본 참가자는 ‘의느님’(의사를 창조주에 비유한 말)이 만들어주신 예쁜 얼굴과 몸매로 승부수를 던져 금세 애인을 만들고, 아내가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멀리하고 심지어 폭력도 불사하던 남편은 급변하여 자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연인들 사이에서조차 ‘굵지 않은 복권’ 운운하며 예쁘고 날씬해진 몸에 열광하고, 그 때문에 사랑하고 그 때문에 헤어집니다.

세상이 이러하다보니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세상입니다. 먹거리가 풍요로운 세상에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라면 필요하지요. 그러나 10대 초반의 어린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행’이 되어버린 다이어트의 목적은 ‘미용’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히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버린 것이 ‘아름다운 몸’입니다.

오죽하면 ‘미용 체중’이라는 기준까지 생겼을까요. 몸을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면 될 텐데... 사람마다 다른 개성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수치화한 ‘미용 체중’의 기준에 갇혀, 현대인들은 매일 아침 심판대에 오르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체중계에 오릅니다. 행여 500그램이라도 늘었다면 비명을 지르며 체지방을 분해해준다는 보조제를 성급히 챙겨 먹겠죠. 지하철 광고판에는 지

방 덩어리들이 의인화되어 팔뚝에 주렁주렁 매달려 사람을 괴롭힙니다. “떨어져, 떨어져!” 분명 내 몸의 일부인데 타자화 되어버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 몸의 사회학: 착한 몸, 나쁜 몸, 이상한 몸

육체에 대한 응시는 언제나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생산노동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시절의 육체는 ‘미’의 응시 대상이라기보다는 ‘노동’의 도구였어요. 그러니 누군가의 몸을 바라보는 기준은 ‘저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였을 겁니다. 농경문화권에서 농사로 먹고사는 사회에서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몸이 비리비리하다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도대체 저렇게 약한 몸으로 처자식을 먹여살릴 수 있겠나?”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은 ‘전근대’(pre-modern)에 해당하는 육체노동 시절의 문화적 전제를 반영합니다. 그 시절 강력한 팔뚝과 튼실한 다리는 성적 응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힘으로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어야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죠.

그 시절 여성의 몸에 대한 응시는 어떠했을까요? 귀족 여성이 아닌 다음에야 여성도 ‘노동하는 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전근대 시절의 몸은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으로 나뉘는 차이보다는 귀족의 몸과 노동하는 몸의 차이가 더 컸으니까요. 하지만 귀족의 몸이라 해도 여성이라면 서민 여성의 몸과 공통으로 기대되던 응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재생산에 적합한 몸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을 빌자면 ‘아이를 쑥쑥 낳을 수 있는 몸이어야 했죠. 그때 칭찬의 대상이 되는 펴퍼짐한 엉덩이와 굵은 넓적다리는 결코 성적 응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출산에 경쟁력이 있는 몸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물리적 힘은 이제 ‘무생물 동력 자원’ 즉 기계로 대체되었고, 우리는 ‘초저



출산국'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생산 도구로서의 몸이 사용될 일이 거의 없는 사회로 진입해 있습니다. 출생률의 경우 '0.9 쇼크'를 경험한 것이 불과 3년 전인데 지금은 0.8에 더 가깝게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들은 대부분 출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동력 자원으로서의 인간이 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으니깐요.

그럼 '생각하는 기계'가 도래한다는 4차 산업혁명 이후는 어떨까요? 나라마다 구성원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거시적인 전망으로 볼 때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간의 수는 1차·2차 산업혁명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감소할 겁니다. 그것이 야기할 사회 문제도 심각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몸이 단순한 생산노동에서 크게 사용될 필요가 없고 재생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쓰일 필요가 없다면, 몸의 기능 중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먹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몸의 사회학적 기능은 아닙니다. '사회학적 기능'이란 몸을 사용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혼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 것은 생물학적 기능으로 혼자 해도 됩니다.

결국 생산과 재생산 기능이 축소된 이 사회에서 사회학적 기능으로서 마지막 남은 몸의 사용은 '정관계하는 몸'입니다. 너무 적나라하다면 '사랑하는 몸'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해보죠. 이러한 까닭에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Bryan S. Turner)를 비롯하여 이론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육체 문화'(somatic culture)라고 부릅니다. '소마'(soma), 즉 감각적 열정을 교환하는 몸의 기능만이 살아남은 시대라는 뜻입니다. 육체적 열정을 교환하는 데 적합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몸의 사회학적 요구라는 뜻이죠.

'내 몸은 경쟁력 있는 몸인가?' 이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 답은 사회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인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기대에 비추어 우리 몸을 평가하죠.

대중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저널리스트 발트라우트 포슈(Waltraud Posch)는 자기

협오를 부추기는 현대의 발명품으로 전신거울, 사진술, 체중계 그리고 영화 매체를 언급했습니다. 전신거울의 발명은 우리가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희미하게 봤던 청동 거울이나 조선 시대 양반 여인들이 머리를 손질하며 보았던 거울은 기껏해야 얼굴 정도만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전신거울입니다.

그렇게 비춰본 내 모습이라도 미에 대한 확실화된 기준만 없다면, 뭐 살 만하겠죠. '아, 내 다리는 저렇구나, 내 허리는 이렇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영화를 비롯하여 각종 광고 홍보 매체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완벽한 몸을 매일 보여줍니다. 그것도 HD 화면으로 크고 생생하게요. 버스정류장의 화보 사이즈 광고판을 통해서 본 모델의 얼굴엔 모공도 없습니다. 도자기 피부! 무릇 모든 생명에는 숨구멍이 있는 법인데, 그래야 피부도 숨을 쉬는데, 사람의 피부가 어찌 도자기같이 되나요? 완벽한 얼굴과 몸매를 매일 화면으로 보면서 너무나 다른 나를 전신거울에 비춰본다면 '자기혐오'는 일상의 경험이 될 겁니다.

만약 화장품이나 성형 기술 등의 미용품과 미용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슬퍼하기만 했겠죠. 하지만 '의느낌'이 있잖아요. 아, 필라테스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등의 전문가도 있네요. 경쟁력 있는 몸, 누군가가 기꺼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소비할 만한 몸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 '몸 만들기'에 몰두합니다. 하여 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건강이라는 목적보다는 식스팩을 만들고 애플힙을 만들어 '섹스 어필'하기 위한 동기일 경우가 더 많죠.

전문성에 있어서 '자기 계발'이라는 근현대(modern)적 가치로 내달리던 청년들은, 소비하고 싶은 몸을 만드는 데도 같은 가치를 적용합니다. 이제 똥똥함은 게으름이요 자기 관리의 실패이고, 못생김은 낙오요 도태요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섯 살 유치원생조차도 '섹시함'을 '아름다움'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성'(sex)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 '과시하고 선택되고 소비되는 몸'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쌍팔년도 지나간 드라마에서 멋들어서 외친 이 대사는

이제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궤변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랑은 변하니까요.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아예 우리 시절의 사랑에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끌리는 동안만, 네가 육체적으로 충분히 낯선하고 육감적인 동안만, 내 실적이나 직업 기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시간만큼만, 네가 나에게 정서적 안정과 물질적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 동안만 ‘함께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만약 사랑이 한 개체 생명의 바운더리(경계)를 넘어서 내가 아닌 다른 개체 생명에게로 나의 존재를 내어주는 초월적 행위를 포함한다면, 합류적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엔 자기 초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섹스’는 있고 ‘관계’는 없다는 말이죠.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성관계라기보다는 성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 관계로서의 ‘거룩한’ 성

“그래서 앞의 ‘성’은 뭐란 말인가요?” ‘관계’와 떨어질 수 없는 ‘성’을 생각해봅시다. 한 인간의 통전적 인격과 떼어질 수 없는 ‘성성’ 말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온 날들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계획, 곧 그의 생애 주기 가운데 운명처럼 선물처럼 만나 웃고 말하는 친밀한 관계가 된 것도 하나의 기적인데, 하물며 ‘성관계’라니요! 성관계는 인간이 자신의 바운더리를 타자와 나누는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 방식입니다. 만나자마자 모델부터 찾는 것은 성행위이지 성관계가 아닙니다. 너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친밀함도 없는데, 함께 나는 시간과 공간과 생각과 삶이 없는데 어떻게 성행위를 관계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성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평등한 힘의 관계 가운데 합의하에 한 성행위라면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혼인 빙자 간음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합의 안에 성행위와 결혼을 하나의 필연적 수순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사회구조에서는 ‘비혼’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남너 할 것 없이 사는 데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어도 상투를 틀지 않았다면 어른 대접을 안 해주는 유교 문화도 지나갔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성취가 오직 아들을 낳는 것이었던 가부장 사회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력만으로 따지자면, 나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려면 결혼이라는 매우 지속적이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유리한 세상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육체적 욕망을 억누를 필요는 없겠죠. 그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어른들은 말세라고 혀를 차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타락한 세상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만든 ‘당연함’(taken-for-granted)과 별도의 보편적 원리(principle)를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결혼 전 성행위가 아니라 점점 사라져가는 성관계의 본질입니다. 아직까지도 ‘혼전 순결’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기독교 성윤리의 핵심적 원리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50세 청년부가 교회 안에 생기는 마당에, ‘혼전’이라는 기준이 공동체의 사는 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규범(norm)은 시절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그 어느 순간에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은 규범이 아니라 원리예요.

그럼 성행위와 성관계를 구별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를 독자적이고 주체적이며 고유한 사람으로 응시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성관계에 순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 전이나 후냐 하는 제도·법적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성적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전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서로가 나를 너에게 드러내는 관계가 맺어질 때 상대방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스며들겠지요.

정리하면, 성관계는 결혼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를 개봉하듯’(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던 비유죠) 가장 ‘나중’으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

격과 인격의 가장 친밀한 결합이기 때문에(그래서 인격적 상처도 더 깊고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고요 말라고요?” 그 결정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내릴 답입니다. 성행위를 선택할지, 성관계를 선택할지 말입니다. 물론 성행위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범법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쌍방 합의는 확보해야 하겠죠.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 ‘관계’가 아니라 ‘폭력’인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계적 시선으로 거룩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죠?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면 성자이지!” 이렇게 반문한다면, 글썄요. 일찍이 예수께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응시하고 대해야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수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고로 그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 5:27-30).

교회에서 산상수훈의 이 본문을 보통 앞의 두 구절과 따라 나오는 구절을 따로 떼어서 설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연결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하필 응시의 주체를 남성으로 상징하시고 대상을 ‘여성’이라고만 하셨을까요? 그럼 남성은 음욕을 품고 바라보아도 되나요? 설마, 그럴리가요. 예수님 당시의 응시 주체는 철저하게 ‘남성’이었습니다. 가부장제 한중간이던 시절이니까요. 또한 ‘여성’은 성적 대상화가 일상인 문화 한가운데였습니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응시의 윤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이 아니다, 보고 만지는 행동까지 포함하여 사람을 대상화하여 대하면 “지옥에 던져진다!”라고요,

이 엄중성을 기억한다면 어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타인의 성적 바운더리를 침범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관계’를 놓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나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을 왜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오직 은혜로만!’을 외치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사도 바울의 주장에 힘입어 산상수훈의 본문이 ‘불가능성’의 기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도조차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남성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 아니고서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때론 적반하장으로, 이런 죄에 빠지게 한 ‘자매’가 악마요 사탄, 마귀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뒤의 구절들까지 함께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타인을 성적 대상으로 응시하는 눈, 마음의 음욕대로 행하는 손은 차라리 ‘빼어내고’ ‘찍어 내버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시잖아요. 다른 성경 구절은 일점일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면서, 왜 이 구절이 제시하는 응시의 혁명성은 슬쩍 눈감는 것인지... 그러나 신앙인이려면 기억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통전적 시선과 이에 따른 관계적 행동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든 사람들 보기에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거룩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혼전 순결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자기 현실 사이에서 어떤 '통합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02

— 성행위와 성관계의 차이에 대해 성찰해봅니다.

03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성관계에 대한 새로운 윤리 규범을 만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고문헌**

- \_ 김진호·백소영 외, 『가장 많이 알고 있음에도 가장 속고되지 못한 '십계'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글항아리, 2018.
- \_ 김종갑, 『타자로서의 몸, 몸의 공동체』, 건국대학교출판부, 2004.
- \_ 앤서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2003.
- \_ 크리스 실링, 임인숙 옮김,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사, 2011.
- \_ 발트라우트 포슈, 조현규 옮김, 『몸 숭배와 광기』, 여성신문사, 2004.
- \_ Bryan Turner, *the Body and Society*, Sage, 2008.

# 2

## 금기 너머 성(聖)스러운 성적 쾌락 이야기

심에스더

### 섹스, 그리고 교회

성(섹슈얼리티, sexuality, 이 글에서 sexuality는 gender와 sex 등의 모든 성적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습니다)과 관련한 이슈들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부득이하게) 음지에서 생명력을 키워왔던 섹스(sex)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밤낮없이 우리 일상 곳곳에서 드러나고 꽤 활발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넘치고 가치관이 변해가도 한국 사회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성은, 동성애를 비롯하여 ‘불온한 쾌락’의 이미지가 더 강하기에 일상의 언어로 나타내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남성에 비해 여성은 드러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성이 관계, 경험, 섹스...와 같은 단어를 입에 올렸을 때, 대놓고 비판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솔까말, 그 여성의 평판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익숙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섹스와 관련 된 이야기를 할라치면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밖에서 따로”, “그런 걸 여기(교회)에서 하기에는 좀...” 과 같은 피드백을 받기 쉽습니다. 혹은 불편한 눈빛 레이저를 맞기도 합니다. 여차하면 거룩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교회와 기독교 가치관을 흐리는 ‘음·문란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기독교지만 ‘음란의 바이러스’가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흐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SK(순결/거룩) 지수 100 마스크를 단단하게 쓰고 ‘음·문란’을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물론 불온을 막고 거룩을 채우려는 의도 자체를 다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음란하다/문란하다/이건 거룩하다’ 정의하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의지해서 내리는 판단을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교회 안의 사람들도 일단 믿고 봅니다. 그러나 의심과 질문이 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일상적인 성(sexuality) 이슈들, 예를 들



어 사람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성적 호기심, 욕망, 성적 행동, 고민, 어려움, 쾌락, 취향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이미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민감한 성 이슈들, 곧 섹스,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망의 차이, 혼전 순결, 동성애 등에 관해서도 역시 제대로 알고 생각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생각하고 이해할 기회도 덩달아 잃게 됩니다. 나의 욕망과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쾌락과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한 고민들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타인과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서로 성(sexuality)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성을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에 질문하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 쾌락이 죄악이 되기까지

모범을 보일 겸 제가 먼저 질문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성을, 특히 성적 쾌락을, 왜 언제부터 터부시하고 금기시켰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잠시 돌아보면, 성적 쾌락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대접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종족 번식의 필요와 더불어 성적 쾌락을 중요시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서구 문화에서는 어땠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는 어땠을까요? 지도자에 따라 중간중간 조절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답게 대부분 쾌락의, 쾌락에 의한, 쾌락을 위한 성문화를 누렸습니다. 다만 지나쳐보일 정도였던 쾌락의 자유는 남성에게만 허락되었을 뿐 여성은 쾌락을 누릴 자유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은, 지금까지 이 책을 읽어 왔으니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의 쇠퇴와 더불어 맞이한 중세 시대로 넘어가볼까요? 이 시기에 기독교와 교

회는 큰 힘을 소유했습니다. 교회는 이방신을 섬기며 방탕하게 쾌락을 좇는 삶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썩어 없어질 육체보다 썩지 않는 정신과 영혼에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생각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어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어졌고, 이후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더욱 단단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가치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육체와 영혼을 대립 구도로 바라보면서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는 육체의 욕망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 욕망과 쾌락은 당연히 육체 욕망의 영역이었으니 금지해야 했지요.

이 대립 구도나 제한점이 적당하면 괜찮았을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다양한 욕망과 쾌락을 긍정하거나 실천하는 행동을 영혼의 타락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략 4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성적 욕망이나 섹스는 오직 종족 보존을 위해서만 허용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보태자면, 이 시기 여성의 위치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성(하와)은 남성(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 존재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미개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던 여성이, 중세에 와서는 설상가상으로 영적인 길을 가로막는 악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죄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그에 따른 행동까지도 모두 여성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종교지도자=권력자)들은 여성의 몸과 생각과 영혼을 통제하려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 쾌락을 원하는 여성들은 마녀로 규정해 매우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이후 기독교 가치관을 앞세워 나라를 지배하던 서구 나라들은 세력을 키우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진출했고, 서구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와 사회가 덩달아 '성적 쾌락=타락'이라는 공식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시



선도 또 그 여성이 가진 성적 욕망과 누릴 수 있는 쾌락도 억압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악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유교... 후, 너무 길어지니 유교 이야기는 나아~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 대다수의 보수적인 교회는 여전히 혼전 순결과 금욕주의 등을 주장하며 ‘성’과 선을 그으며 정체도 아닌 퇴화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비교적 입체적으로 성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사회와도 사람들과도 괴리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상에 나타나는 성과 관련된 ‘이슈와 ‘현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제와 절제를 말하는 교회에서 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죄책감에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 성의 일상성을 회복하라!

성은 내 몸, 정체성, 타인과의 관계, 사회·문화·정치법 등 어디에나 있고 일상적이며,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을 금기와 터부로 여기고 느끼는 우리는 성을 ‘일상적’으로 바라보기 힘듭니다. 특히 여성들이 성적 욕망을 가지거나 몸의 쾌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은 순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쾌락을 타락으로 통치고 터부시할수록 성을 바라보는 편견은 강해지고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큼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욕망할 수 있는 성적 쾌락이, 음지의 영역에서는 오로지 일탈과 자극이 전부인 듯 다뤄지는 것입니다. 쾌락이 오염된 거예요. 쾌락의 오염은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와 느낌으로 쾌락을 생각하고 누릴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쾌락을 타락의 영역 속에 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거나 변화를 꾀하

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 나의 욕망과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쾌락과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한 고민들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도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교회가 성의 일상성에 주목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성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죄가 아니라 성의 도구화, 상품화, 범죄화 등이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에 대해 막연하게 가졌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나의 몸, 욕구, 건강한 쾌락을 생각하고 누리고 핸들링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성을 입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양지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성적 쾌락을 누리며 왜곡된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범죄는 분별하면서 스스로와 서로를 지킬 힘을 얻을 것입니다.

## 성과 쾌락, 포기하고도 유쾌한 유혹

이제까지 우리는 성이란 무엇인지, 성적 쾌락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또 기독교와 교회가 성적 쾌락을 터부시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더 이상 금기시하거나 쉬쉬하지 않고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대략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나눈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그동안 ‘성과 쾌락’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나 느낌을 떠올렸나요? 문란하거나 성스러운가요? 혹은 따뜻하고 유쾌한가요? 아니면 평범하고 잔잔한가요? 지루하고 관심이 잘 가지 않나요? 잠시 내가 생각해온 성과 앞으로 누리고 싶은 성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성과 쾌락’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려니 쉽지 않지요? 어디서부터 어

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적 쾌락을 생각할 때 길잡이가 될 만한 키워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몇 개의 키워드가 마중물이 되어 여러분의 성적 지식과 가치들이 더 풍성하게 이야기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적 쾌락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들, 섹스, 성적 흥분, 자위, 오르가즘, 혼전 순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 1/ 섹스(sex)

먼저 섹스란 무엇일까요? 섹스(sex)란 생물학적 성별과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성관계로서의 섹스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섹스를 떠올리면 흔히 이성 간의 성기 결합이라는 스킨십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개인에게 섹스의 의미와 정의, 대상과 행동의 범위를 물어보면 그 대답은 다 다릅니다.

모임이나 교육에서 섹스 이야기를 할 때 참가자 각자가 생각하는 섹스의 시작과 끝을 꼭 물어보곤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눈빛으로 시작 해서 눈빛으로 끝난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욕구가 생긴 순간부터 사라질 때까지'라고 합니다. 또 '포르노에서 본 모든 과정'라는 답도, '손 잡는 것에서부터 그냥 내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라는 답도, '삽입으로 시작해서 내가 오르가즘을 느낄 때까지'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섹스는 사람마다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키스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사정을 하지 않으면 섹스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 육체와 정서가 얽힌 관계를 맺는 만큼,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섹스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섹스, 그리고 타인이 생각하는 섹스를 공부하고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 2/ 성적 흥분

성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성적으로 흥분하면 호르몬이 성기 쪽의 혈류를 활발하게 해서 근질근질하고 욕신거리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남성은 음경이 발기하고 여성은 음핵이 발기합니다. 평소 크기보다 두 배 정도로 커지면서 성기에 압박을 느끼는데, 여성은 이때 소변이 마려운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남성은 성적 흥분 시 쿠퍼액이라는 액체가, 여성은 질액이 나와 속옷이 축축해지기도 합니다.

성적 흥분이 느껴진다고 혹은 상대가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섹스를 해야 하거나 하고 싶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흥분은 저절로 가라앉기도 하고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성적 흥분을 느꼈고 같이 섹스를 하고 싶어했다면, 서로의 동의하에 여러분만의 합의된 방식으로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정의 감각(오르가즘)을 느낄 수도 느끼지 않을 수도, 사정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 파트너와 삽입 섹스를 한다면 성병 예방과 피임을 위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임신 계획이 없다면, 성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혹은 둘 다 하고 싶다면 'NO 콘돔 NO 섹스'를 잊지 마세요!

## 3/ 자위

자위는 '독립적인 섹스'로써 내가 나와 맺는 건강하고 적극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위를 통해 내 몸의 상태, 싫은 감각, 좋아하는 애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위를 통해 타인과의 섹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위 역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죄로 여겨져왔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남성의 자위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여겨지고 방법도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의 자위는 여전히 이야기되지 않거나 매우 소극

적으로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여성의 자위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자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먼저 사생활이 보장되는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서서, 앉아서, 누워서, 샤워 중에, 어떻게든 괜찮습니다. 내 몸에 집중하며 깨끗한 손으로 귀, 목, 가슴, 배, 성기 등을 쓰다듬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디를 만지면 좋은지 천천히 찾아봅니다. 음핵 주변과 외음부를 손으로 살살 눌러보기도 하고 문질러 보기도 합니다. 음핵은 매우 민감함 부위이기 때문에 처음엔 살살 조심스럽게 만져보는 게 좋습니다.

자위를 할 때는 내가 내 몸의 주체가 되어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욕구에 충실해야 합니다. 타인의 욕구에 의해 내 자위를 남에게 보여주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위를 통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적 만족과 쾌락을 누리려면 어떨까요?

#### 4/ 오르가즘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성적 행동에 따르는 절정의 감각이라고 말하는 오르가즘 역시 사람마다 그 경험이 다양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각각 음경과 음핵에 피가 몰려 발기했다가 오르가즘을 느낄 경우 각자마다의 감각이 짧고 강렬하게 몸에 느껴집니다. 오르가즘이 끝나면 음경은 늘어지고 음핵 역시 그곳에 몰려 있던 피가 빠져나갑니다. 이 절정의 감각에 대해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울렁거림’, ‘닭살이 돋고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오고 반드시 그 끝이 느껴지는’, ‘짜증이 나면서도 좋고 복잡한’, ‘느꼈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느낌 등으로 설명합니다.

성 전문가들은 오르가즘을 느끼는 방식도 느낌도 다양할 수 있지만, 오르가즘을 겪었다면 헷갈리지 않고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패한 섹스를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느끼고 싶고 자주 누리고 싶다면 노력이 분명 필요합니다. 내가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편안하지 않은 파트너, 심리적 불안, 몸의 질병 등) 내 몸을 알아가면서 기분 좋은 감각을 발전시키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 연습에 자위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르가즘을 더 잘 느끼도록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라도 연습과 노력에 의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오르가즘은 선물이지 반드시 수행하고 성취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 5/ 마지막으로, 혼전 순결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안 하면 순결한 거고, 성관계 하면 더러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오빠한테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럼 혼전 순결을 못 지킨 거죠..?”

“저희 교회 리더가 그러는데, 스킨십 할 때 다른 거 다 해도 성기 삽입만 안 하면 된다던데요?”

“근데요, 저 진짜 궁금한데요, 순결이 뭐예요?”

위의 질문들은 실제로 제가 하고 또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혼전 순결’은 성적 행동과 쾌락을 생각할 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질문들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애초에 명확한 답이 있기는 할까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타협하기를 바라지만,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대답을 듣고 안심하길 원합니다. 사실 기독교와 교회가 기독교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대답은 매우 신중해야 합

니다. 그 답을 듣는 것이 나름의 안심을 안겨주겠지만, 어떤 대답을 바라기 전에 우리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순결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순결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결은 무엇인가? 섹스 경험의 유무는 순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시대에 따라 혼인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혼전과 혼후의 순결은 어떻게 다른가? 순결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섹스의 수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섹스의 경험에 따라 순결을 판단하는 분이신가?’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혼전 순결’은 누구에게 더 요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순결은 여성에게 더 요구되는 가치관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여성은 ‘혼전 순결’ 여부에 따라 그 존재가치가 결정되어왔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그것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미덕이라고 강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혼전 순결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참 난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섹스 경험’과 ‘순결을 잃다’를 같은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섹스 앤 더 처치』에서 ‘섹슈얼리티’는 ‘영성과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 문제를 논의하는 데 무능했던 탓에 성관계의 영적 차원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섹스를 기독교 공동체와 하느님의 일과 관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섹슈얼리티와 영성의 관련성을 논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행위에 수반되는 기독교인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성행위를 통해 타인과 하나가 되려는 욕구를,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는 욕구로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과 성적 쾌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배우며 공동체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적 쾌락은 타락의 상징이 아니라 영성과 공동체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여러분은 성과 쾌락을 동시에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02

— 순결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만의 개념을 정리해봅시다.

03

— 만지면 기분 좋아지는 몸의 부위가 있나요?  
어느 부위이고 만졌을 때 느낌은 어떤가요? 썩스럽다면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도 돼요!

04

—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 참고문헌

- \_ 니나 브로크만·엘렌 스투겐 달, 김명남 옮김, 『질의응답』, 열린책들, 2019.
- \_ 윤가현, 『성, 그 억압과 진보의 역사』, 살림, 2006.
- \_ 필리프 브르노-레티시아 코랭, 이정은 옮김, 『만화로 보는 성의 역사』, 다룬, 2017.
- \_ 캐시 루디, 박광호 옮김, 『섹스 앤 더 처치』, 한울아카데미, 2012.

# 3

## 성(性)과 성(聖)이 만날 때

이주아

### 우리를 둘러싼 '위험한 성'?

성(性), 성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성이라고 하면 일단 은밀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위험한 부분으로 치부합니다. '거룩'한 이야기만 하고 '순결'을 지켜나가야 하는 기독교인에게 육체로 행하는 성, 성욕, 성행위라는 것은 욕망, 죄악, 금기와 같은 단어와 결부되는,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영역으로 치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바디 프로필'이 유행인 육체 문화 시대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성이란 정말로 그런 것일까를 진지하게 탐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현대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보면 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다루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이 아니더라도, 주양육자들이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어디까지 보도록 허용해줄지가 가장 큰 고민일 정도로 수시로 보이는 음란물에 가까운 광고, 나체에 가까운 복장을 한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임, '그냥 성기구일 뿐'이라는 리얼돌(섹스돌) 판매점과 체험방까지... 게다가 불법 촬영이나 딥페이크 불법 합성, 몸캠 피싱까지, 음성적인 성문화가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들어 있으니, 저마다 아우성을 치며 특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위험한 성'이 물들지 않도록 철벽 장막을 치려고 애쓰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 기독교 전통에 나타나는 성(性) 이해

기독교에서 성을 보는 관점은 크게 금욕주의와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금욕주의 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가 로마로 전파되고 공인 및 국교화 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그리스로마 철학의 이원론적 세계 이해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 신앙은 원래 정신과 육체 혹은 영과 육이 나뉘지 않고 전체적인 하나인 '몸'을 구성한다는 일원론적인 이해로 인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실을 구분하고 이데아를 이상시하며 이 둘을 나누는 방식으로 세계를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정신과 육체, 신과 세계,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등으로 분화하여 전자를 후자의 상위 위계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원론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연, 육체, 여성은 동일시되면서 열등한 지위에 놓였습니다. 그러면서 우월한 정신을 높이고 갈고닦기 위해서 육체는 방해가 되는 열등한 것으로 취급받았고, 따라서 육체의 욕구를 가능한 한 억압하고 심지어는 학대까지 하는 전통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금욕주의 전통이라고 하고, 몸과 성을 파악하는 기독교 전통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리겐(Origen)은 이성적 영혼만을 인간의 본질로 이해했고,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몸을 사망과 무지, 현세의 욕망에 얽매어 있다가 전락하는 저주 덩어리로 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몸이 죄악의 원천이라는 생각은 중세까지 지속되어,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적 성격을 영혼으로 설명하면서 육체적 실존과 성을 극히 경시하였습니다. 독신을 진정한 '영'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인간의 성을 타락을 통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죄의 영역과 연결시키며, 성행위가 결혼 관계 안에서 행해질 때라도 이는 욕정, 즉 죄로 더럽혀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몸과 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성의 타락에 대한 강조는 금욕주의와 독신주의로 이어져 기독교 성윤리의 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재생산을 담당하는 성의 기능적 면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도덕적 제도 안에서 성행위와 재생산을 포함하려는 신학적 이해가 필요했고, 이 관점은 기독교의 성에 대한 시각의 다른 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육체의 악함을 강조하는 영지주의(靈智主義, Gnosticism)에 대항하여 성육신이라는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혼을 재생산(출산)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보았고, 결혼 관

계 안에서의 도덕적 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세 이후 청교도 시대로 접어들면서, 성욕을 위한 구제책과 재생산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는 결혼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소명으로 보는 관점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보수적·전통적 기독교 성윤리에서 '성'이란 결혼 관계 안에서만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동시에 그 외의 영역에서는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n Paul II)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피임, 혼전 성관계나 동거, 자위 행위, 혼외 성관계, 동성애적 행위를 모두 죄로 규정하는 동시에, 성은 관계의 시작이 아니라 관계의 '봉인'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보수적·전통적 기독교는 그동안 인간의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몸을 죄악시했던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선회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전통은 몸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지 않고 그 자체로 유기적인 하나로 보았는데, 이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전체로서의 하나를 일컫는 통전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움직이는 몸이고, 이때 생명의 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나누어지거나 죽으면 빠져나가는 영혼이나 정신이 아니라 우리 몸 그 자체라는 것이 바로 통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 전통에서 이원론적 사고가 강했기 때문에, 원래 존재했던 통전적인 인간의 성성(性性)을 놓치고 성을 생식 기능에 국한시킨 시각이 강조되어 성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상실했다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는 가톨릭과 기독교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성적인 존재이며 인격적 성과 몸이라는 개념이 성경적이라는 시각이며, 성과 몸의 긍정성을 부각시키고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금욕주의 시대가 얼마나 길고 강력했는가를 되짚어보면 이는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에 등장한 알리사를 떠올려보면, 고작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청교도 시대의 성윤리가 지금과 얼마나 다른 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주인공인 알리사는 제물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부정하는 정신적 사랑이 가장 숭고한 것이라 생각하며 수도원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전통적 기독교가 결혼 관계 안에서의 인격적인 몸과 성 개념을 회복하고, 이원론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몸을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일원론적인 것임을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은 여전히 견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만을 인정하면서 이 둘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가족 형태를 지지하고,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인정하며,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행위 및 정체성으로 표출해야 하고, 결혼 관계 이외의 성관계에서는 금욕주의와 혼전순결주의를 실천하는 것을 주요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성경적인 성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영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현장에서 약간은 생소한 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통전성으로서의 성

다양한 여성 신학자들이 여성신학 성윤리를 탐구해왔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첫째로 몸과 성에 대한 재개념화로서의 통전적 성, 둘째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상호연대적인 성, 셋째로 전 지구 공동체에도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성신학에서는 전통적 신학의 몸과 성 이해에 질문을 제기하며, 인간의 몸은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체적 존재라는, 일원론적인 이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테 쾰레 및 다른 여성 신학자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인간은 몸 전체이고 전체로서의 몸이 곧 성이라는, 부분적으로 나누

거나 떼어놓을 수 있는 것들의 합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실체로서의 몸과 성을 '통전성으로서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성교육이나 성윤리에서 다루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금욕주의와 혼전순결주의 등이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성을 '몸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몸은 또 '인간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원론적인 인간 이해는 현대 사회의 미디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빙의, 생령이나 유체 이탈, 영혼이 서로 뒤바뀐 등의 각종 클리셰(Cliche)가 웹툰, 영화, 드라마 등 곳곳에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포진해 있고, 이러한 미디어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 콘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전체인 이원론적인 인간 이해를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 합니다. 사실 이처럼 인간을 양분하는 것은 인간들의 아주 오래된 인식이니만큼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혼을 부르는 초혼(招魂) 의식 등도 종교를 가리지 않고 동서고금 시행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몸은 도대체 왜 존재할까요? 영혼이나 정신만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몸으로 만드신 걸까요? 몸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만나고, 자연 안에서 감각을 느끼고, 웃고 울고, 관계를 맺거나 단절하는 모든 행위가 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거리는 봄바람, 방금 세탁해서 건조하여 뽀송뽀송한 이불, 꽃다발에 코를 묻으며 맡는 향기, 다른 이와 공유하는 웃음, 반갑다며 악수를 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등 삶의 모든 행위가 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정신과 몸은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분리되는 것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두통이 오는지, 몸이 오래 아프면 왜 우울해지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도,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세기 들어 주목받고 있는 몸학(somatics) 또는 몸심리학에서도 같은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며 학문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리처드 슈스터만(Richard Shusterman)은 인간의 몸은 단지 물질로 된 육체가 아니며, 내면의 경험적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실체라고 하였고, 토머스 한나(Thomas Hanna)도 몸은 우리가 보통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감정·지성·의지·기억·영성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과정이자 그 결과물들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의 신학은 성육신 교리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몸은 정신과 육체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경험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감성적인 수용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주목합니다. 몸과 성, 영성은 상보적인 관계로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볼트만(Rudolf Bultmann)은,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신적 생명의 숨이 인간을 신체적·영혼적 면 모두를 산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며, 따라서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은 그 육과 영이 천하거나 고귀한 것으로 대립되거나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몸에 대한 인식, 살아 있는 실재이자 나의 내면과 결합되어 있는 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성을 인식함에 반드시 밝아야 할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전적인 성이란 인간의 몸이 그의 삶의 본질적 터전이라는 이해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른 이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다시 대두됩니다. 이전까지 성과 성행위는 주로 생식기적 결합으로 이해되어왔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행하는 성교육을 보십시오. 수영복을 입은 남녀 그림을 보여주며 수영복으로 가려진 부분은 조심해야 하고 다른 이에게 만지게 해서도, 다른 이를 함부로 만져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개념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에 대한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전의 성 이해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본다고 닳아?”, “몸을 만지고 성추행은 했지만 생식기적 결합은 아니었으므로 폭행은 아니다.” 낯선 말이 아닐 겁니다. 독일의 여성 신학자 도로테 쾰레(Dorothee Steffensky Sölle)는 인간의 성은 몸의 감각 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생산과 직결되는 생식기 위주의 성 개념에 익숙한 현대인들도 사실은 이와 같은 성 개념을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기의 결합 여부로 성

폭력을 정의했다면, 지금은 슬쩍 만지거나 닿는 것, 성적 대상화의 시선으로 보는 것, 성적 어감이 담긴 말이나 제스처 모두 성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모든 감각들을 모두 인간의 성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선만으로도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성이 몸의 모든 감각, 나의 몸 전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몸의 감각인 성은 우리 자신 그 자체입니다.

##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상호 연대성으로서의 성

두 번째로 여성신학에서 보는 몸과 성은, 인간이 다른 이 및 사회와 관계를 맺도록 경험과 감정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개념으로,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상호연대성으로서의 성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쾰레는 성이란 몸의 감각 전체이므로 자연스럽게 타인과 연결되는 것이고, 여러 신체적인 경험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성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몸은 물질로서의 육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살아 있는 감각 전체를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의 성과 몸 역시 그렇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말초적 쾌락이나 재생산만을 위해서 상대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모독하고 관계성을 망가뜨리는 죄가 됩니다.

타인의 몸은 그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여성신학은 성을 볼 때 인간의 성적 쾌락과 욕망을 좌약시하거나 성의 경계선이 결혼 관계나 재생산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상호 보살핌과 존중 그리고 책임감이 바탕이 되는 상호적 쾌락 인지에 더욱 중점을 둡니다. 실제 결혼 생활 안에서 안전하지 못하거나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 안에서의 성행위를 격려해온 것은, 아마도 인간의 역사 안에서 성이 타인에게 얼마나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으로 깨달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경계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 역시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닌 동시에 자칫하면 행위 위주의 성윤리로 가게 되므로, 또 다른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란, 인격적인 생명 자체인 누군가의 몸과 또한 그러한 존재로서의 내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깊이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야다'(יָדָה)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인간을 깊이 아시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방을 진실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경적 전통이 그 단어에는 잘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지음 받은 존재이며, 상호성, 동등성, 연대성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기뻐해야 합니다. 거리낌 없이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관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입니다.

## 전 지구에 대해 동료적 보살핌으로 나아가는 영성으로서의 성

이제 세 번째 관점, 전 지구 공동체으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 헌신 아래 이루어나가는 온전한 통합으로서의 성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존재의 단단함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신뢰와 친밀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여본 사람이 과연 다른 이에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라는 세간의 말은 이러한 경험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은 인간이 삶의 영역 안에서 이해와 일치 가능성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우선적인 것이 인간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몸과 성을 긍정

적으로 받아들여서 통전적 성을 구성한 인간이,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안에서 그 어떤 착취나 억압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경험을 할 경우, 그의 삶에 대한 인식과 감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쥘레는 이를 '포괄적 공동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자기 방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얻는 경험은 이후 더욱 확장되면서 그 외의 타인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나아가 삶의 전 영역에서 해방과 정의를 추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성은 단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인간의 육체와 실제 삶 안으로 들어오는 '성사적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 공동체성은 인간, 자연, 모든 피조물의 유기체적 생명망을 인식하고 지구 위의 모든 존재들이 사랑과 정의의 관계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몸의 감각 전체를 가지고 만물과 교감하는 경험을, 쥘레는 '원초적 연대감'의 회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몸과 성을 통해 다른 인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대화를 하며 '만물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쥘레가 보는 몸과 성이란, 보다 큰 공동체와의 근본적인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입니다. 즉 몸과 성에 대한 긍정은 곧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몸과 성이 터전이 되어 만나는 전 지구 생태에 대한 긍정적 관심,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인 인간이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 세계와의 깊고 친밀한 연대감을 회복하는 영성으로 이어집니다.

생명을 경축하고 경외하는 것은 많은 종교들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이의 우주 안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경외'는 인간인 우리 자신보다 더욱 크고 신비한 어떤 힘이 우주에서 작용하며 생명을 준다는 것, 우리 역시 그 선물을 값없이 받는 자로서 모든 존재와 함께 이를 공동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생명으로서의 몸을 주시고, 다른 이와 깊은 친밀감 속에서 몸의 감각인 성(性)을 나누면서,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전 지구의 모든 동료 피조물들과 함께 오늘의 삶에 겸손해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이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온전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영성(靈性)으로 가는 통로를, 우리의 성과 몸이 열어줄 것입니다.

#### 참고문헌

- \_ 구완서, 『성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고찰』, 한국전문대학 기독교교육학회 논문집, 2000.
- \_ 백은미, 『여성과 기독교교육』,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 \_ 한국여성신학회, 『성과 여성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1.
- \_ 오광철, “영성과 성의 통합, 유심론과 성차별주의의 이원론을 넘어”, 『신학과 선교』 39, 2011.
- \_ 임희숙, 『교회와 섹슈얼리티』, 동연, 2017.
- \_ 스탠리 그렌즈, 남경우 옮김, 『성 윤리학』, 살림, 2003.
- \_ 앤서니 퍼시, 김한수 옮김, 『쉽게 쓴 몸의 신학』,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 \_ 로즈마리 래드퍼드 류터, 최광복 옮김, 『여성 해방과 성의 혁명』, 일월서각, 1983.
- \_ 로즈마리 래드퍼드 류터, 전현식 옮김, 『가이아와 하느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 \_ 도로테 쾰레, 박경미 옮김, 『사랑과 노동』, 분도출판사, 2018.
- \_ 리처드 슈스터만, 이해진 옮김, 『몸의 미학』, 북코리아, 2013.
- \_ E. M. Wendel, *I am my body*, Continuum, 1995.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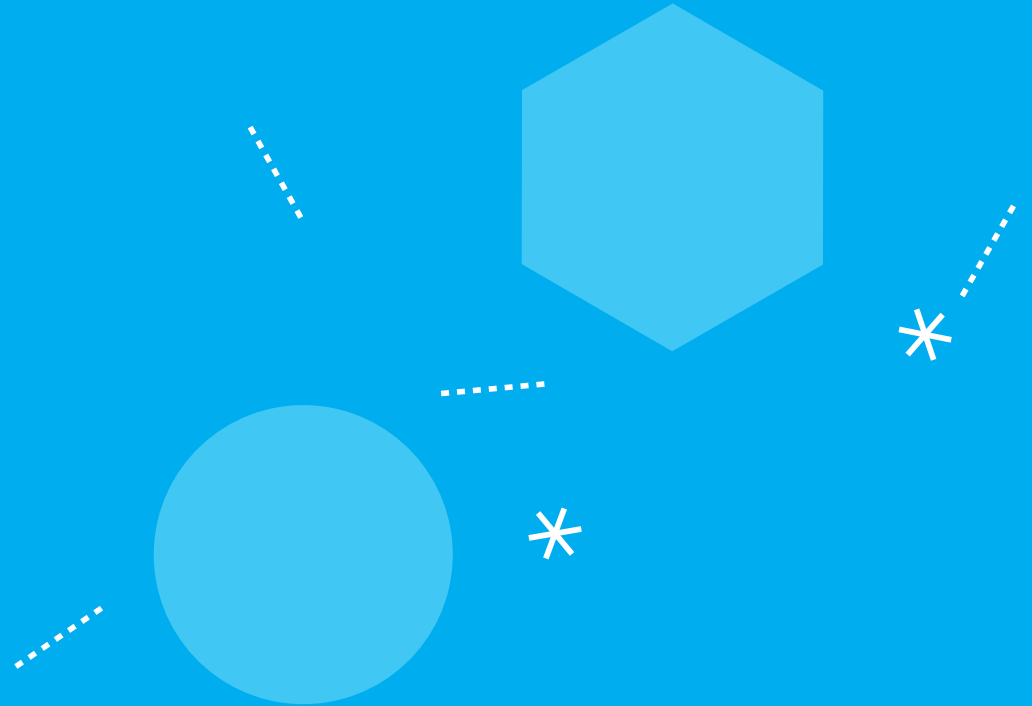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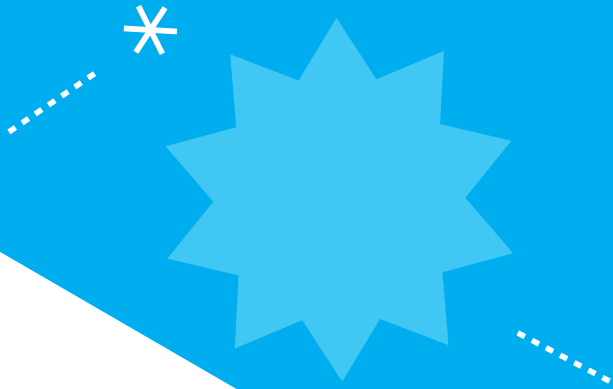
01

— 교회 가르침이나 문화적 태도 안에서 육체(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언급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나누어봅시다.  
또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이나 전제가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02

— 본장에서 이야기한 성 및 영성 개념에 대해 자유로이 질문하고 토론해봅시다.

# 교회안의 선량한 성차별과 성폭력





# 1

성차별적인 교리와 법, 직분 제도는 어떻게 생산되었을까?

## 누가 성경을 말하고 정책을 결정하는가?

강호숙

### 교회는 남녀 모두를 위한 유기적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남녀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위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을 보면, 남성과 여성은 뗄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종을 뜻하는 ‘헬라인’과 ‘유대인’ 그리고 신분을 뜻하는 ‘자유자’와 ‘종’은 ‘우데’(οὐδέ)라는 부정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과 ‘여성’을 표현할 때는 등위 접속사(and)인 ‘카이’(καί)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성과 여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등한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따라 인종 차별과 신분 차별 그리고 성차별을 허문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말씀을 들라면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입니다. 독일성서공회의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말씀하셨다고 강조된 점이 중요하다. 남성과 여성 둘이 하나인 가운데서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전체이다”라고 해설함으로써, 남녀가 하나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 전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성령의 뜻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연합해야 할 존재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인 각각은 몸의 한 부분으로서 위아래 없이,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며 친교를 나누는 지체들로 나타납니다(고전 12:26). 그리고 분쟁 없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돌보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고전 12:25).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장 빛나는 유기적 공동체의 특징을 꼽으라면 ‘머리 부분이라고 해서 우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몸의

약한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보며, 더욱 존귀를 더해주는'(고전 12:22-24) 방식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성별과 연령,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법과 교리 그리고 직분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교회 직분 제도는, 교단의 교리(장로, 감독, 회중)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당회, 노회, 총회라는 남성 대표 중심의 교회 정치로 팽배해서 여성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권, 대표직을 인정하는 일은 매우 인색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직분 제도는 교회 대표를 통해 정치질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칼뱅의 가르침에서 연유하였는데, 그는 교회 정치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기초하여 권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권정과 목회적 돌봄보다는 오직 남성만이 대표직을 갖는다는 남성 권위주의적인 직분 제도로 강화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적인 연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교회 직분 제도와 의사 결정 구조는 중세 교회의 신분 위계 구조를 뒤집은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설과도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만인제사장설은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뿐 아니라, 개인의식과 양심의 자유, 인권과 직업의 평등사상까지 내포하면서 근·현대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도 이바지해온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 영화 「설국열차」와 닮은 꼴, 교회의 성차별적인 직분 제도

2012년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20~40대 교회 여성 1,340명을 대상으로 젊은 여성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설문한 결과, 교회 내 불평등한 성역할과 성차별, 소통 부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여성들은 교회 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여성 리더 할당제, 성역할 고정 및 여성 차별과 배제 해소, 의사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 보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젊은 여성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는 “교회를 향한 30개조 반박문”(2016)에서 여성과 청년을 배제하는 남성 중심의 기형적인 의사 결정 구조(당회, 노회, 총회)가 한국 교회의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민주적인 교회의 의사 결정 구조는 남녀 교역자들의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이라는 시대 역행적인 모습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는 개교회로 이뤄진 당회,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회, 그리고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라는 의사 결정 기구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남성이 성경 해석을 하고 교회법을 제정하며(입법), 성도를 치리, 감독하고(사법), 교회 행정까지 독식하므로(행정), 여성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결정들이 도출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으로만 구성된 당회, 노회, 총회에서는 성추행 가해 남성 목회자를 보호하면서, 성추행 피해자 여성을 ‘꽃뱀’이나 ‘이단’으로 몰아잡습니다. 또 여성 사역자들은 남성과 똑같은 학위와 전문성을 구비하였음에도 목사와 교수가 될 수 없다며 직위와 사례비, 사역 영역에서도 성차별을 받는 등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가 임신이라도 하면 가차 없이 사임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사역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남녀 위계적인 직분 제도는 영화 「설국열차」나 「기생충」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별에 따른 ‘항존직’과 ‘임시직’의 구분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남성은 대부분은 상층 칸인 ‘항존직’에 몰려 있는 반면에, 여성은 대부분 하층 칸인 ‘임시직’에 쏠려 있습니다.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직’이란 개교회에조차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 직분을 뜻합니다. 교단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합동 교단 헌법에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가 항존직에 속하며, 권사와 서리 집사는 임시직에 속합니다.

이러한 남녀 위계 직분 구조 안에서 여성은 남성이 선점한 대표직의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믿음 좋은 여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남성이 정해 놓은 법과 제도 그리

고 성별화된 정체성과 역할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주체성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여성의 의견과 관점이 반영될 수 없는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은 무시되며,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견제와 균형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불평등한 교회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성 목사 중심의 항존직은 '자질 검증' 시스템 없이, 또 윤리적-목회적 책임을 지는 일 없이도 70세까지 시무 연한이 보장되면서, 교회 대표와 교회의 결정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남성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항존직으로서 교회의 리더나 대표가 되기에,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여성 안수 반대'를 주장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모습입니다. 합동 교단 내 의사 결정 기구인 당회, 노회, 총회는 오직 남성들만이 의사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금녀의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4회 (사진=© 평화나무 제공)

## 가부장적 성경 해석은 어떻게 성차별적인 교회법과 직분 제도를 생산하였나?

2000여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남성 신학자들과 남성 목회자들만이 성경을 해석

하고 신학 담론을 주도해오면서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교회법과 직분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남성은 언어 권력을 가지고 성차별적 성경 해석과 설교, 신학 교육과 교회 용어들을 생산해냈고, 의사 결정권을 통해 성차별적인 교회법과 교회 정치 그리고 직분 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회헌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그리스도 복음의 강령을 보면, 신앙과 성 활동(sexuality)에서의 거룩함은 남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이며 실천 윤리입니다. 하지만 예장합동 총회가 발행한 『교회헌법』(2018) 신조 5번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라고 명기하여 남성적 권위를 궁극적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고신 총회에서 발행한 『교회헌법 해설』에서는 "이혼 권력이 있는 자를 항존직분자로 세우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남성만 항존직을 받는 상황에서 직분의 자격 요소에 '이혼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배우자의 부정과 가정폭력 등과 같은 젠더 불의와 젠더 폭력의 문제를 방지 및 방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남성 중심의 직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호명입니다. 현재 기독교 내에서는 '남성 안수', '남성 목사', '남성 교수', '사부'라는 용어는 없는데, '여성 안수', '여성 목사', '여성 교수', '사모', '장로 부인'이라는 호칭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나 '장로 부인'이라는 호칭은 교회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소명'을 빙자한 가부장적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목회자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전문성과 직업을 갖고 맘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독립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목회를 돕는 결정은 오롯이 그녀의 자유와 선택에 달려 있음에도, 교회가 부부가 결정할 사적인 부분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여성에게 가부장적으로 성별화된 호명을 통해 과중한 책임감을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사하는 자유와 기쁨과도 어울리지 않는 악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회복되었다는 기독교 구원론에서 볼 때, 성차별적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 구원의 복

음을 ‘남녀 질서’ 교리로 대체시켜 여성을 통제하며 수단화 하고 있다고 진단됩니다.

그렇다면 성차별적인 교리와 법, 직분 제도를 생산해온 성경 해석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필자가 45년 동안 보수 교단에 머물면서 규정하는 성차별적 성경 해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 타락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 혐오를 정당화하며, 여성을 남성에게 정신적, 신앙적, 육체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해석입니다. 진 에드워즈(Gene Edwards)의 『하나님의 딸들』을 보면, 초대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여성은 악마의 출입구이다…여성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며…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다”라고 하면서 원죄의 책임을 모두 여성에게 돌렸으며, 심지어 여성을 악마화 했습니다. 또 중세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결혼 반대 운동을 벌일 때, 성직자의 아내들을 희생양 삼아 “사제의 유혹자들이여, 탐스러운 악마의 육체여, 천국에서 버림받은 이, 정신의 독약, 영혼의 죽음, 죄를 만드는 동반자, 파멸의 근원이여!”라는 경악스러운 말로 탄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성경 해석은 여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과 불필요한 죄책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남성 목회자에게 정신적, 신앙적, 성적으로 종속되는 성적 메커니즘을 양산하였습니다. 여기엔 종교개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칼뱅(J. Calvin)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성에 대한 주석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이혼할 권리가 없었고 오로지 경제력을 주도한 남편만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여성의 빈번한 결혼은 ‘생존권’일 수밖에 없었던 가부장적 시대 배경을 간과한 채, 오로지 사마리아 여성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남성 교부와 남성 신학자, 종교개혁자들의 성차별적인 성경 해석이 21세기 현재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관’인 양 답습되어 성역할 분업이 더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부장적 구속사 중심의 성경 해석입니다. 이는 성경 속 남성 인물만을 구속사의 중심에 놓으면서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해석하는 반면에, 성경 속 여성 인물은 구속사와 관련 없는 ‘일반계시’로 해석하여, 가정 영역 안에서 남편을 돕는 ‘보조자’ 정

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같은 남성으로 이어지는 가부장적 구속사 중심의 성경 해석은, 성경에서 주도적이고 단독적인 여성의 신앙적 행위를 단지 ‘아들 낳는 존재’나 ‘현모양처’와 같은 일반계시의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여성과 하나님의 만남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그리고 여성의 주체적인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가부장적 질서에만 순응하도록 해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를 단지 족장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내로,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세운 레아와 라헬을 아들을 낳기 위해 경쟁하는 자매 정도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나는 단지 사무엘의 엄마로, 기생 라합과 롯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데 일조한 여성으로,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를 내조한 여성으로, 드보라는 “남성을 부끄럽게 하려고 임시 방편으로 세운 여성 사사로, 마리아는 성탄절에 ‘예수를 낳은 어머니’로,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정도로 해석해왔습니다.

가부장적 구속사 중심의 성차별적 성경 해석은 마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듯하지만 ‘남성성’을 지나치게 특권화 한 나머지 여성을 통한 구속의 섭리와 은혜를 무시하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불의와 혐오의 죄악을 정당화해왔습니다. 아울러 페미니즘과 젠더의 현실성을 무시하면서, 인격적인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과 성윤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과 시대착오적 성경 해석입니다.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보수 교단(합동, 합신, 고신)은 바울 서신인 고린도전서 11장 3절(“여자의 머리는 남자”)과 10절(“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여성 안수 반대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갑중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바울의 여성 관련 본문에 대한 해석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여성도 중에 복음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곡해해 남녀 구분과 남편과 아내의 질서까지 부정하여 가정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여성들에게 주는 바울의 특별 교훈으로 봐야 한다...여성의 역할 문제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뤄지는 새 창조 관점에서 해석하여, 여성 안수를 포함해 교회 안에서 모든 제도와 법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오히려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해석할 때는 11절(“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과 12절(“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 창조 때는 여성이 남성에게서 나왔지만, 그 후로 남성은 ‘모든 산 자의 어미’인 여성 하와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창 3:20)에서, 남녀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열 없이 상보성과 평등성을 지닌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잠잠해야 할 부류가 ‘방언하는 자들’(28절), ‘예언하는 자들’(30절), 그리고 ‘여자들’(34절) 이렇게 세 부류에게 똑같이 한 말씀인데도 “여자는 잠잠하라”를 만고불변의 진리로 고집하는 건 지나친 남성 중심의 선택적 문자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36절의 “하나님의 말씀이...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에서 ‘만’(모누스)이라는 단어는 남성 복수형 형용사로서 34-35절의 여성을 향한 지시 문맥의 흐름과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36절에서 ‘남녀 성도 공동체’를 지칭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는 게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계시의 방편으로서 예언과 방언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그 당시 성령의 은사에 따라 남녀를 가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울과 함께 일한 여성들인 유니아 사도, 뵤뵤 집사, 브리스길라 동역자, 다비다 제자, 빌립의 네 딸의 역할에

서도 확인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39-40절 ‘예언과 방언을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에 말씀을 적용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계시의 방편이었던 예언과 방언에 가담했던 여성들의 역할은 성경을 해석하며 가르치는 역할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의 의미는 ‘떠들지 말라’, ‘소란스럽게 하여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며, 교회 안에서 남녀 모두가 성령의 은사와 전문성을 갖고 헌신하도록 직분을 부여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해석입니다.

21세기 현대 사회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 인권과 남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적이며 열린 사회입니다. 아울러 성(性)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국내의 법 모두 성차별은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로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성별의 평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젠더 법학에서도 여성의 인권과 젠더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 본문의 역사적 배경의 민첩함과 성평등 시대에 맞는 인간다움과 헌신을 갖고서 적절한 적용이 이뤄지도록 남녀가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나누어 온전한 성경 해석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 자유와 평등이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며!

현대 사회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이나 대표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도장치로서 ‘여성 정치 할당제’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성 대표성 확대 전략 차원에서 ‘남녀동수법’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대변자를 세워 그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물며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고 믿는 교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대변할 대표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유성과 대표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허무는 일입니다.

제임스 B. 프리처드가 편집한 『고대 근동 문학 선집』을 보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을 종처럼 부리기 위해 창조한 투쟁과 풍요의 신들로 묘사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한 인격적인 신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의 원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구원의 복음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으로 왜곡되고 굴절된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을 십자가로 허물어, 마침내 남녀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자유와 평등이 있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녀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공회 사제이자 학자인 로완 윌리엄스(Rowan Williams)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와 마주했을 때 그는 '나와는 너무도 다른,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마치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인 하느님을 마주하는 것 같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상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그의 내면을 훑내 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남녀 각자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고유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남녀는 진리와 복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진리와 복음은 어느 한쪽 성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풍성한 깊이와 넓이를 깨

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주인공 유진 초이는 “당신이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거기에는 백정은 살 수 있소? 노비는 살 수 있소?”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지, 막상 하나님 나라에서 남녀 각자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관계를 맺고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사야서에서 기술된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린양, 표범과 어린 염소, 젖 먹는 아이와 독사가 함께 뛰노는 곳입니다(사 11:6-8). 즉 하나님 나라는 약자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강자가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신앙고백 하는 유기적 공동체라면, 기존에 남성 중심의 리더십 구조와 원로 대우의 계급적 직분 제도를 탈피하고, 여성의 돌봄의 경험과 입장을 존중하며, 이를 교회의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권과 대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남녀 목회자들의 전문성과 은사에 따라 팀 목회와 청년 목회, 다문화 목회와 청소년 목회, 여성 목회와 생태적 목회 등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보여준 평등성과 전복성, 만인제사장설의 주체성과 평등 사상,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남녀의 '하나 됨'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통한 유기체성이 교회의 직분 제도에서 실현되려면, 먼저는 여성 정치 할당제와 점증적인 남녀 동수의 대표직 선출이 교단 차원에서 제도와 법으로써 다뤄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목회자 자질 검증을 위해서는 개인적 소명에 의존하여 항존직을 부여하기보다는 '선출직 제도'나 '재신임 투표', '임기제'를 실시하여 성찰과 지도력 변화가 이뤄지도록 실행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유와 평등이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존과 평화, 사랑과 돌봄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며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 지도력은 우월의식이나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한 섬김의 지도력으로 나타나야 하며, 인간과 사회를 돌보아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여 세상 속에 모범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성의 입장과 견해를 존중하여 교회의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을 포함하여 세대별 남녀 비율에 따라 의사 결정권과 대표권을 부여하고, 여성의 은사와 전문성 그리고 여성 리더십 역량이 발휘되도록 교단법과 교리, 당회와 노회,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실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 \_ 제임스 B. 프리처드, 강승일 외 5인 옮김, 『고대 근동 문학 선집』, CLC, 2016.
- \_ 로완 윌리엄스, 김병준 옮김, 『어둠 속의 촛불들』, 비아, 2021.
- \_ 진 에드워즈, 임정은 옮김, 『하나님의 딸들』, 조이선교회, 2009.
- \_ 최갑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가-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에 대한 문화-사회학 적 접근”, 『목회와 신학』 7월호, 2005.
- \_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합동』, 2018 개정판.
- \_ 이광호, 『교회헌법해설』, 교회와성경, 2018.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을 묵상하면서, 교회 내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남녀 관계는 어떠해야 할지 얘기 해봅시다.

02

—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 교리(창 1:27)와 예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요 15:12)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의 직분 제도와 교리,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어떤 변화와 개혁을 모색할 수 있을지 토론해봅시다.

# 2

## 신앙의 탈을 쓴 차별

### 한국 기독교와 여성

한국 기독교는 여성과 다층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1885년 처음 기독교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근대 정신과 기독교 평등 이념은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시달리던 여성들에게 해방의 빛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선언해주는 기독교 안에서 여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느끼고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초기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한국 기독교는 19세기 말 서구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문화적인 한계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로 인정되었으나, 독자적인 개인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어머니'이자 '남성의 동반자'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즉 초기 한국 기독교는 여성들을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삶의 질곡에서 해방시키며 여성들에게 존엄성과 잠재력, 지도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였으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주로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가정과 여성, 사회와 남성이라는 성역할 구분 의식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적 역할로 고정하는 것을 성별 고정관념, 성별 분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알아왔던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다소곳하고 희생적이고 인내를 잘하고', '남성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담대하고' 등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발전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그와 같은 성별 고정관념이 더 이상은 진리가 아님을 현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카를 융(Carl Gustav Jung)은 남성 안에도 여성성이, 여성 안에도 남성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를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라고 명명했습니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 "여자가 참아라" 등의 이야기는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는 지나간 시대의 억압적 표현이라는 것을 특히 2030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19세기에는 이러한 말들이 아직 살아 있는 진리

였습니다. 더구나 기독교는 이를 하나님의 질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담(אָדָם)을 남성(ישׁוּב, זָכָר)과 여성(יִשְׂרָאֵל, נְקֵמָה)으로 나누어 만드신 언급이 나올 뿐, 여성과 남성에게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따로 부여하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이루어진 인간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분업을 ‘하나님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던 19세기 서구 기독교의 한계는 21세기 한국 교회 현장에서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래야 한다”, “남성은 이래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시대문화적 가치들이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 질서와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 신학자들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문화적 관습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부장적 성경 해석이 교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형성하였고 여기에서 비롯된 구성원들의 문화적 태도-규칙과 보상 체계 등-역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인데,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독교 공동체의 교육 구조

### : 명시적 교육과정, 내재적 교육과정, 0의 교육과정

교회의 환경과 문화에 담겨 있는 성차별적 요소들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것이 왜 교육과정이 되어 학습자들에게 내면화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학자인 엘리엇 아이즈너(Elliott Eisner)는 교육과정을 크게 명시적 커리큘럼(explicit curriculum), 내재적 커리큘럼(implicit curriculum), 0 커리큘럼(null curriculum) 개념으로 분류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중 내재적 교육과정이 이 장의 내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명시적 교육과정은 우리가 받는 공식적 교육 내용이고, 0의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에서 배제된 것 즉,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내재적 교육과정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은 교육기관에서의 경험과 교육 환경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교육과정에 교사, 학습자, 교육 자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에는 사실 교육기관의 조직 체계, 교육 규칙, 보상 체계, 수업 시간이나 배정, 건축물, 가구의 디자인 등이 생각보다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대부분 교육기관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교육과정 전체에 파고들어 지적이고 사회적인 덕목들을 가르치고 강화하기 때문에 지배 문화와 가치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명시적 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학습자들에게 미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전인적 인간’을 명시적으로 교육하지만, 실제 학교 수업 시간이거나 수험 과목에서는 일부 과목에 성적 비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잠이 쏟아지는 오후 시간에는 예체능을, 집중이 잘 되는 오전 시간에는 ‘주요’ 과목을 배치하는 학교를 다니며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 ‘이 과목들이 더 중요하니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혹은 ‘이 과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말이지요.

인격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인간의 품위를 지키라고 하지만 실제 사회 유명 인사들의 비리나 도덕적 흠결이 사소하게 묻히는 것을 보고 사회 구성원들은 학습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구나.’ ‘우선은 출세해서 힘을 가져야 하는구나.’ 창조성이 중요하다, 창조적 인재가 되어라 하고 아무리 주문해도, 교사가 네모반듯한 강단 위에 올라가 있고 학생들의 책상이 일렬로 주르륵 놓여 있는 곳에서는 창조성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난 너희를 똑같이 사랑해”라고 하지만 주양육자의 태도에서 편애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녀마다 미묘하게 다른 보상 체계가 자녀들에게 내면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말보다 훨씬 더 잘 들리는’ 문화적 가치, 관습의 영향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환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각했다 하더라도 쉽게 떨치기 어려운 강력한 교육입니다. ‘우리는 둘 다 가장이며 평등한 사이’라고 외치는 맞벌이 부부조차도 남성은 가장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여성은 가사와 육아 부분에 자신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문화적 관습에서 자유롭기 힘든

것도 사례의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재적 교육과정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음 지라도 교육과정 전반에 편재한 기대와 규칙 때문에 중요한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내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은 그동안 여러 조사나 분석에서 다루어온 명시적 차별(겉으로 드러나는 차별) 외에 교회 안의 조직이나 제도, 문화적 태도와 관습 등도 학습자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교육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설교 등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 명시적 차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비판과 분석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심층적이고 보다 구조적이며 은밀하게 작동되는 사실들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런 바탕 지식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한국 교회 현장에 존재하는 내재적 차별에 대해 2020년 서울YWCA와 제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직분 구조: 여성은 보조적 존재

한국 교회의 직분 구조는 교회가 여성을 보조적 존재로 역할 짓는 경향을 짚어 보여줍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의 등록률을 보이지만 주요 직분에서는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제 구조를 보면, 여성의 리더십 모델이 되어야 할 여성 총대(총회 대표) 비율과 여성 목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은 것은 물론이고, 그 역할 역시 상당 부분 보조적인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통계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교회 내 여성 비율은 57퍼센트로 남성보다 조금 더 많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당회와 총회에는 여성을 찾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성이 대부분인 교단 총회에서 어렵게 찾아볼 수 있었던 몇몇 여성들은 식당에서 식

사를 준비하거나 총회 준비를 위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요직에서의 여성의 소외는 개교회 현장에서도 그다지 다르지 않아서, 여성 목회자들은 설교나 강의, 예배 인도보다는 청소, 상담, 기타 잡일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고등부나 장년 사역을 원하더라도 영·유아부나 유치부 및 아동부 등을 주로 담당하고, 설교권 등에서도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 성도들이 맡는 역할에서도 이와 같은 위계 구조, 곧 남성은 주체적 존재이고 여성은 보조적 존재로 보는 이분화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999년의 한 보고서에서, 여성은 교회 일을 성역할에 따라 분담한 것에 대하여 남성(50.9%)보다 비판적 반응(71.1%)을 보였으며, 소속 교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교회의 성별 위계 구조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실시된 조사에서도 여전히 응답자들은 (주요 직분을 담당하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과 식당 봉사나 안내에 남녀가 구분 없이 참여할 것, 장로 선출이 성별과 관계없이 자질을 중시하여 이루어질 것, 목회자의 역할 분담에서도 설교나 교육 등 남녀의 영역 구분 없이 더 잘하는 것을 맡아야 할 것 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 및 주일 예배 준비 등에 여성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연구자는, 여성들이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보다 여성들이 무슨 일을 '중첩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은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괴리를 느끼고 있으며, 1995년에 한국 교회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는 여성들의 주된 사역인 청소와 음식 만들기(51%)는 2019년에도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0년 서울YWCA의 보고서에도 여성과 남성이 맡는 직분 또는 역할에서 성별 고정관념이 존재함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523명의 응답자들은 당회(장로회)는 물론 각 부서장, 재정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등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 구조는 주로 남성이 맡고 있으며, 여성은 청소관리부 및 주방봉사부를 맡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학생부의 경우 임원진의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서의 장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맡고 있었습니다. 젊은 1020세대가 사회에서 받는 교육이나 경험에서는 이미 성별 고정관념이 상당히 축소되거나 지양되고 있는데,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런 환경은 젊은 세대 특히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교재의 삽화, 건축물(교실)과 부서 명칭 : 여성은 공동체의 이름 없는 구성원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이 소외되는 것은 조직 구조나 목회 현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의 지배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교재나 교회 환경에서도 드러납니다. 여성은 분명히 교회에 존재하지만, 교회는 여성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요한 자격이나 이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명시적 교육과정과 내재적 교육과정, 0의 교육과정은 모두가 긴밀히 연결되는데, 명시적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성경 속의 남성 인물들을 가르치고, 내재적 교육과정에서는 주요 직분들을 남성에게 맡기고, 0의 교육과정에서는 성경 속 여성 인물에 대한 교육을 배제시켜, 교회의 여성은 공동체의 이름 없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 한국 교회 인권 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는 교회 교육교재 안에 나타난 남성 중심주의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 유년부 교재의 “그리스도의 대사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에 제시되는 성경 인물 50명 중 여성은 롯과 드보라 두 명에 불과하며,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는 ‘예쁜’ 여자, ‘비록 여자였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용감한 장군, ‘가정에서는 상냥한 아내, 밖에서는 지혜로운 재판관이었다’라고 묘사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면을 묘사하는 교재의 삽화에서도 일반 공동체 구성원은 대부분 남성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기뻐하

는 삽화에서 20명 가량의 일반 구성원들이 나오는데 그중 여성은 아기를 안고 있는 한 명만이 나옵니다.

교회 부서 명칭에서도 여성의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의 건축물과 부서 명칭을 조사한 결과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이름, 건축물이나 교실의 이름에 성경 속 여성 인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모데, 다윗, 다니엘부터 노아, 마가, 엘리야, 여호수아, 스테반, 이사야, 사무엘 등 다양한 남성의 이름이 부서와 건축물(○○성전)이나 공간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것은, 적어도 2020년 서울YWCA의 조사 과정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 남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설교나 가르침에서 빈번히 나오는 여성 중 하나인 에스터조차 없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여성만으로 구성된 모임에는 성경 속 여성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성과 남성이 모두 있는 공동체인 부서나 누구나 사용하는 교실과 건축물에는 거의 성경 속 남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현장에서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남성을 성경적 모델로 생각하게 되고, 성경 속의 여성들의 역할이나 중요성 등이 현장에서 배제된 채 교육받고 있습니다.

교재의 삽화나 부서와 교회 건축물에 붙은 명칭들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강력한 교육과정으로 작용합니다. 교육 환경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수자가 돌출된 강단 위에 서서 이야기하고 학습자들은 아래에 앉아서 듣는 것, 좌석마다 이름이 배치된 긴 사각형 구조의 테이블만 찬 자리가 위계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건축물 구조나 명칭, 곳곳에 걸린 삽화나 그림, 조각상 등이 매우 강력한 교육 미디어라는 연구와 이의 한계를 탈피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수직적인 교수-학습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교실의 일률적 형태인 강단 구조를 변경한 다든지, 학생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건물 전체의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등의 설계와 시공 등은 교육 환경이 주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들입니다.

교재의 삽화에, 중고등부와 청년부 모임 혹은 기도회나 성경 공부 프로그램 등의 이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의 건축물 명칭에 주로 성경 속 남성 이름만 존재하는 교회 현장에서, 지금도 여성들은 이름 없는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술하였다시피 이것은 한국 교회의 명시적 교육과정과 0의 교육과정이 긴밀히 연계되어 일어나는 내재적 교육과정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공동체에서의 여성의 소외라는 현상학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여성 롤모델을 상실한 여성들이 주체적인 신앙인이자 성숙한 교회 공동체 리더로 성장하는 교육적 과정에도 상당한 역기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교회 건축물의 구조와 교사의 비율 : 주양육자는 여성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여성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역할은 바로 주양육자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여성의 본질을 (생물학적) 모성으로 규정하거나 가장 우선시하고, 자녀 양육의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성 이해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신은 어느 곳이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등의 모성 신화화 또는 모성 낭만화로 나타나는 동시에 여성의 역할을 주로 모성으로만 한정짓게 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모성의 길을 택하지 않거나 택할 수 없는 사람도 다수 존재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성의 삶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성=엄마’라고 규정지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이자 여성의 소명이라고 하는 문화적 전제가 교회 현장에 매우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양육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생물학적 모성 자체를 삶의 선택지 중 하나로 보면서 이를 거부하거

나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주양육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나 생명 양육이라는 인간의 덕목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여성에게 ‘만’ 강하게 요청될 때, 한 인간으로서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가지고자 하는 여성들이 받는 심리적 부담은 억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적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주양육자를 규정하는지는 목회자의 성별이나 성향, 세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 양육 또는 아버지의 양육 동참 등을 논하고 가르치는 교회 현장이 늘어가고 있으며, 여성의 주요 임무를 자녀 양육으로 규정하는 설교가 과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축소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가정 사역 프로그램 중 어머니를 주양육자로 규정하는 ‘마더와이즈’에 이어 아버지를 양육에 참여시키는 ‘파더와이즈’ 프로그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물의 구조는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돌보는 설비에 있어 교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본 실태조사에서, 남성 화장실에 어린이용 대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거나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와 주양육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의 명칭은 대부분 ‘모자 예배실’ 또는 ‘자모실’입니다. 영아부부 터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까지의 교사 중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돌보는 자로, 남성은 가르치는 자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에 매우 오래되고 강력한 문화적 관습입니다.

가정에서 주양육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들이 교회에서도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설문 응답에서, 여성은 현실과 달리 다양한 역할을 맡고 싶어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기획부나 재정위원회, 미디어위원회 등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은 문화적 환경 안의 ‘숨겨진 이데올로기적 의도’ 즉 의도의 ‘비공식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의 대부분은 학생



독자적으로, 학생 상호 간에,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 간에 비형식적이고 암묵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지거나 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교사의 성별 비율과 교회 건축물의 구조 및 명칭들은 여성을 주양육자로 호명하는 강력한 교육기제로 기능합니다. 남성과 동일한 교육을 받고 후기 산업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에의 참여를 요구받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가정의 주양육자'라는 무언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 여성들이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 양육이란 주양육자인 부모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도 실제로 교회의 교육 환경은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했거니와 이런 내재적 교육과정은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명시적 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니기 때문에, 주양육자들의 개념에 혼돈이 오거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보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교회의 내재적 교육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 참고문헌

- \_ 엘리엇 아이즈너, 이해명 옮김, 『교육적 상상력: 교육과정의 구성과 평가』, 단국대학교출판부, 1999.
- \_ 서울YWCA, 『교회 성차별 실태조사 보고서 2020』, 서울YWCA, 2020.
- \_ 김상임, "기독교인 성·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신학』, 1999.
- \_ 이덕주, 『한국 교회 처음 여성들』, 기독교문사, 1990.
- \_ 이우정, 『한국 기독교 여성 백년의 발자취』, 민중사, 1985.
- \_ 정재영 외,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IVP, 2018.
- \_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여성,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한국기독교 여성 100년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_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8 한국 교회 인권 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2018.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교육 내용에서 언급된 교회 교재, 부서와 건축물의 명칭, 직분 구조, 여성과 남성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의 성별 분업 구조 등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수정될 수 있을까요?

02

—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03

— 교육 내용에 대해 반론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 3

모두가  
“아멘” 할 수 있는  
설교와 교육

이주아

## 거룩함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1992년에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에서 발행한 『여성이 바라는 설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설교』는, 가부장제가 기대하는 여성의 역할 강조, 여성의 부정적 묘사, 여성의 의도적인 배제가 설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017년 뉴스앤조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94.1퍼센트에 달하는 응답자가 직·간접적으로 교회의 여성 혐오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실시한 「한국 기독교인의 성평등 의식 조사」(2018)에서도 응답자의 67.6퍼센트가 교회 내의 성차별이 있음에 동의했습니다.

성차별은 단지 설교나 성도들의 태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실시한 「2018 한국 교회 인권 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는 교재에 나타난 남성 중심주의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신앙 영웅의 모델은 전부 남성이고, 삽화의 인물들 역시 -일반 백성 구성원들을 묘사할 때- 남성이 절대 다수인 동시에 여성 및 노인 구성원은 거의 없어, 전형적인 젠더 정체성과 고정적인 성역할 관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사랑과 평등과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가르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관계성을 토대로 은밀한 방법으로 여성 혐오를 형성하여 왔고, 한국 사회의 전통적 남성 중심적 유교 사상이 기독교의 가부장적 관계 사상과 만나 더욱 강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남성중심주의와 가부장적인 관계성의 교회 문화는 인간의 기준을 남성으로 놓는 것을 당연시하며 여성을 남성의 보조적 존재로 응시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차별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차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신성시되며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제2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목사고시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기장 여성 연대, 한신대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한신대 신학대학

여학생회, 한신대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등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교계의 성차별 행태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며 “성차별적 질문들은 비단 목사고시 뿐 아니라 현재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 목회자들에게도 오랜 세월 지속돼온 악습이다. 여성 목사들은 왜 늘 같은 질문을 받아야 할까? 남성 목사들은 결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을!”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성경, 신학, 교회 제도, 종교의식 등 각 분야의 기독교 전통 속에 스며 있는 성차별주의와 여성 억압적인 요인들은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간화와 해방 그리고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교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습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할 장을 마련하고, 기독교의 성차별적 문화를 성찰할 계기와 전환의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장에서는 각종 기사와 논문, 보고서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현장성을 바탕으로 명시적 교육과정인 설교와 교재, 예화,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공고히 하는 O의 교육과정 등에서 우리가 인식하거나 혹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성차별을 살펴보고, 한국 기독교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교 : 성차별적인 성경 본문의 문자주의적 해석과 일반 본문에 대한 성차별적 해석

### 1/ 성차별적인 성경 본문의 문자주의적 해석

우선 설교는, 성차별적인 성경 본문을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성경 본문은 성차별적이지 않으나 이를 남성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성차별적인’ 본문이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구약에는 무시무시하다고 할 정도로 여성에게 잔혹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이 쓰인 시대문화적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몇 천 년 전의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의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니면 도로 쳐 죽이고(신),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숨이 끊어지자 열두 조각으로 잘려 각 지파에 보내지고(삿), 공주의 신분인데도 이복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정당한 형벌을 요구하지 못합니다(삼하). 이런 본문들은 교회 현장에서 그다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지나치고, 구시대적이고, 오늘날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들은 신약의 서신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엡),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딤후),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이러한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또는 성경적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진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신약의 서신서에는 ‘서로 입맞추어 문안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은 말 그대로 따르지 않는지 물으면 ‘그것은 당시의 관습을 반영한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같은 서신서이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 구절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이자 바뀔 수 없는 진리이고, 하나는 당시의 관습이 반영되어 있는 구절이니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성경 본문들이 그 자체로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를 보여주는가 아니면 상황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는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노예 제도를 찬성한 백인들은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를 들며,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이 흑인의 조상이므로 백인이 흑인을 다스리는 노예 제도가 성경적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여전히 구약에서 먹으면 안 되는 짐승 목록과 요리 방법을 따릅니다.

전술한 신약의 본문들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성은 순종하고 남성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성도 여성의 구별이 없이 다 하나'라는 세례고백문과 상충되므로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그건 원칙이고, 기능적으로는 질서가 있어야 하므로 질서를 잡으려면 여성이 남성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대답이 또 돌아옵니다. 이런 해석법을 따랐기 때문에 여성 목사 안수가 거부되었고, 지금도 거부하는 교단이 있으며, 여성 장로와 목사는 있더라도 부수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은 본문들은 그 시대,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 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혼을 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고 예배의 질서가 흐트러진 특수한 일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 경계의 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의 본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교단이라 할지라도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에 대한 본문들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자의 개인적 기준이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 2/ 일반 본문의 성차별적 해석

성차별적 요소가 문자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서 성차별을 성경적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설교들도 많습니다. 먼저 '돕는 배필'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여성의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한국어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는 떠오르는 이미지는, 주체자로 일하는 누군가를 옆에서 보조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에제르 케네그도'(עֲזָרָה קַנְיָדוֹ)는 '꼭 맞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못해서 주체자인 누군가를 보조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나아가 '돕다'라는 뜻인 '에젤'(עָזַל)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심을 나타낼 때 쓰인 단어입니다. 아굽에 대한

도움도(시), 사무엘에 대한 도움도(삼상) 모두 이 단어로 하나님의 도움을 표현합니다.

남성이 중요한 일을 하고 여성이 그것을 보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을까요? 물론, 누가 우월한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꼭 맞는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상호연대성과 존중이 그 단어에 들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뜻이 그동안 차별적 설교로 가르쳐졌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창조 이야기도 많이 쓰이는 본문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남성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었으니, 여성은 그 원재료(?)인 남성에게 종속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설교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선 창조 순서를 봅시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 순서가 조금 다른데, 1장에서는 간단히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설교에서 듣는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후 갈빗대 하나로 여성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은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아다마'(אָדָמָה)에서 파생된, '인간'이라는 뜻의 단어이지 특정 남성의 이름이 아닙니다.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le)의 예리한 분석에 의하면, 아담이 잠들고 갈비뼈를 빼내 기까지 성별의 구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여성(אִשָּׁה)을 지으시고 그를 아담(אָדָם)에게로 데려오시자 아담이 감탄하며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고 감탄한 후에야 '여자'(אִשָּׁה)와 '남자'(אָרֶץ)라는 구분이 나옵니다. 즉, 아담이라고 하는 원인간의 형태에서 하나님의 2차 작업(?)을 통하여 드디어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등장하였습니다.

원재료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말도 여성 신학자들은 히브리어를 섬세하게 분석하여 통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이를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분량상 힘들 듯 합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트리블의 저서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남성의 갈비뼈로 -남성이 아니라 원인간인 아담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만- 여성을 만들었으니 여성

이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면, 흠으로 만들어진 원인간(혹은 남성)은 흠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는, 반은 진담이고 반은 농담인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와에 대해서는, 수많은 교부들이 이미 엄청난 비난을 했고 하와의 후예인 여성들에게 모든 죄를 돌린 전적이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에 그러한 언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에서 여성이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았다고 풀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일종의 선택적 해석입니다. 창조 이야기에서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이 한자리에 있고, 뱀과 여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남성은 여성을 말리거나 뱀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여성이 준 선악과를 받아서 먹은 후에 하나님께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이슬람교의 경전 꾸란에서는 이 장면과 그 후의 해석에서 항상 복수형을 사용하여 ‘그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들은 공범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여성에게 “네가 죄를 더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부활의 증인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남성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복음서들은 남성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여성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빈 무덤을 발견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영광스러운 명령을 받습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로는 공적인 일의 증인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인으로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한 여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여성’이 입이 싸기 때문에 널리 퍼뜨리라는 뜻에서’ 여성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설교가 있다는 보고가 종종 들어옵니다. 미리암은 당시 히브리 공동체의 주요 리더로, 홍해를 건넌 뒤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와 여호와의 찬양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에게 불순종하여 피부병을 앓았다’는 것만 강조됩니다. 미리암이 병에 걸리자 모든 공동체는 행진을 멈추고 그녀의 병이 낫기를 기다릴 정도로 큰 위치를 차지한 리더였는데, 그런 설교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남성 중심적 시선으로만 보다보니 본래의 의미를 잃고 성차별적인 해석으로 설교되는 성경 본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교육

성경을 가르칠 때 설교 외에 공과 공부 및 연령별 공부에서 사용되는 교재에서도 여성은 차별받습니다. 각 교단의 초·중·고등부 교재를 분석한 결과, 교단을 가리지 않고 여성을 차별하는 언어와 삽화 등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등을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시아버지와 결혼했고,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했으며, 룻은 모압 사람이고, 라합은 기생이었으니,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다말이 그래야만 했던 사회문화적 상황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불구하고 신전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유다의 잘못도, 신하의 아내를 탐한 다윗의 죄악도, 어머니를 따라 결단을 내린 룻의 용기도, 뛰어난 상황 판단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에 크게 공헌한 라합의 결단력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소개하는 장에서는 ‘음녀(淫女)’라는 한자를 쓰면서 음녀의 의미를 함께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초등부 교재에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젠더 정체성 강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 인물을 소개할 때에는 외모에 대한 언급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드보라가 누구였는지를 묻는 질문의 정답은 성경 구절에도 없는 ‘예쁜 여자’입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어려서부터 예쁘기로 소문났었어요”라는 언급이 빠지지 않습니다. 외모는 이들의 사역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교재 전반에 ‘여성’은 예뻐야 한다’는 왜곡된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기존 문화에서 비판받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교재에서 여러 단어와 삽화를 통해 확대되고 재생산됩니다. 신앙의 선배를 소개하는 장에서 여성인 방애인 선생님은 희생적 사랑, 헌신, 타인을 돌보는 나눔과 섬김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큰 소리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외치는 굳건하고 목숨을 건 믿음으로 묘사하며, 전형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을 구현합니다. 목사님은 거의 남성으로 그려져 있고, 성만찬을 묘사한 삽화에 남성 목사와 남성 성도만을 그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울동을 가르치는 사람은 여성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교재에 소개되는 신앙 영웅들은 절대 다수가 남성이고, 일반적 영웅 역시 나폴레옹이나 슈퍼맨 등 남성만을 소개한 것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세대가 어떤 인간상을 형성하게 될지, 이것이 과연 성경적 진리와 합치하는 방향인지 고민하고 질문할 때입니다.

##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가르쳐지는 것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보아야 할 교회의 구조는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교육의 내용에 넣고 무엇을 넣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광범위하고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앞 장에서 말했던 교육학자 엘리엇 아이즈너(Elliot Eisner)의 개념인 0(null) 커리큘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역설적인 교육과정입니다. 그는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정이 명시적으로나 내재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교육과정에서 배제되어 발생한 무지는 단순히 가치중립적인 공백 상태가 아니라 선택의 범위, 대안의 가능성, 상황이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관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배제되거나 소홀히 취급된 내용을 알지 못해 단순하고 편협한 사고를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영웅의 이야기만 배운 학습자는 여성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힘듭니다. 자신이 자란 마을이나 도시만 아는 사람은 다른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에 관용보다는 배척과 의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네모가 세상의 전부라고 배운 사람이 동그라미나 삼각형을 상상조차 할 수 없듯이, 성경 속 인물 가운데 남성의 이야기, 남성의 시각으로 해석한 여성의 이야기만 배우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를 교육에서 배제하고 여성의 시각을 교회 공동체에서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서 큰 역할을 했던 여선지자 ‘홀다’의 이름을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거의 들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한 성경 구절(이사야, 호세아 등 다수)도 잘 모르거나 교회에서 배운 적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어머니이시고, 충성스러운 여성 제자와 초대교회 공동체의 여성 동역자가 무수히 많았으며, 많이 묻히거나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성경 안의 여성 영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교회 공동체는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한 여학생이 ‘도대체 나는 성경 안의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하나? 여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 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연구 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지, 그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다시 질문하고, 현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하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로 성경적 진리란 무엇인지, 기능적 위계나 성별 고정관념이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메시아의 소명,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설교와 교육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강처럼 모든 공동체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 참고문헌

- \_ 엘리엇 아이즈너, 이해명 옮김, 『교육적 상상력』, 단국대학교출판부, 1999.
- \_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여성이 바라는 설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설교』, 평화사, 1992.
- \_ “이것이 ‘교회 내 여성 혐오’ 아무말 대잔치다”, 『뉴스앤조이』, 2017. 3. 25.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45>
- \_ 박용미, “목회자 의식조사 여성 안수 금지”, 『기독신문』, 2015. 02. 26.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11>
- \_ 박향숙, “한국 기독교 여성 목회자의 배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전자매체본], 『종교교육학연구』 63권 0호, 2020.
- \_ 백은미, “기독교 교육과정에 내재한 여성 혐오 분석과 대안 모색”[전자매체본], 『기독교교육논총』 51, 2017.
- \_ 서울YWCA, 『교회 성차별 실태조사 보고서 2020』, 서울YWCA, 2020.
- \_ 김애희 외,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IVP, 2018.
- \_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8 한국 교회 인권 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http://www.kncc.or.kr/news/View/knc201811210002>
- \_ 필리스 트리블, 유연희 옮김,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태초, 1996.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성차별적 성경 본문을 문자주의적 해석하는 것과 일반 본문을 성차별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각각의 경험이나 의견을 이야기해봅시다.

02

— 우리는 성경 속의 여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미리암, 드보라, 훌다, 예수님의 여성 제자, 초대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들이었던 여성들에 대해 다시 읽고 서로 토론해봅시다.

03

—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0의 커리큘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지 방향과 방법을 논의해봅시다.

# 4

## 교회 성폭력에 대한 이해

김희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는 듣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조금은 불편하게 만듭니다.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관련 기사,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 혹은 내 주위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은폐되는 교회 성폭력에 대한 논의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즘 많이 쓰이는 용어가 '성인지 감수성'(sensitivity)입니다. 다소 생소한 이 용어를 쉽게 풀어보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젠더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 경우 성폭력의 주제에 접근하게 됩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언어적·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성폭력이라는 상위 개념의 단어 아래에 성폭행(강간 및 강간미수 등을 의미), 성추행(강제 추행), 성희롱(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같은 매체를 통해 사이버(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폭력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 교회 성폭력이란?

교회 성폭력은 교회나 기독교기관, 선교단체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나 목회자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 신학교 등에서 목회자와 성도, 직원, 학생 등의 위계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포괄합니다.

교회 성폭력은 누구를 대상으로 많이 발생할까요? 목회자-성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목회자와 목회자(부교역자나 전도사), 그리고 장로, 집사, 각

부서의 교사나 리더 등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 공동체 내 상대적 약자(성도, 청소년)를 대상으로 하여 일어납니다.

## 교회 성폭력의 유형

교회 성폭력은 개인 상담, 심방, 안수 등의 치유 행위나 종교 체험, 그리고 안마를 빙자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종교 행위를 빙자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관련 상담기관에 접수된 교회 성폭력 사례와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교회 성폭력 유형 |  |
|-----------|--|
| 성폭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방 중에 강간한 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li> <li>• 결혼을 빙자하여 여신도와 성관계를 갖고 폭행</li> <li>• 여신도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이라고 접근하여 유혹하며 성폭행</li> <li>• ‘아내와 목회 비전이 맞지 않아 목회하기 어렵고, 네가 진정 하나님이 찍지어준 배우자라며 접근하여 성폭행</li> <li>•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 하고 “딸아, 딸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라며 성폭행</li> <li>•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첫 열매(처녀막)를 바쳐야 한다며 추행하고 성폭행</li> <li>• 성령 체험을 빙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li> <li>• 죄를 씻기 위해서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해야 한다며 성폭행</li> <li>• 혼자 사는 여신도를 상담해 준다며 모텔로 불러내 강간</li> <li>• (디지털 성폭력) 자신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공개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 강요</li> </ul> |

## 교회 성폭력 유형

|     |  |
|-----|--|
| 성추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수기도를 해준다며 성추행</li> <li>• 성적인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한 후 음란마귀를 쫓아주겠다고 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li> <li>• 성교육을 한다며 청소년과 비혼인 여신도들을 강제 추행</li> <li>• 수련회 같은 교회 행사 후 피곤하다며 안마를 요구하고 이후에 본인도 직접 안마를 해주겠다고 성추행</li> </ul>   |
| 성희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려한다고 어깨를 두드리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li> <li>• (포옹, 입맞춤, 뒤에서 껴안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행위</li> <li>•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li> <li>• “우리 ○○씨, 우리 이쁜이, 내 애인이야.”</li> <li>• “아가씨 엉덩이라 탕탕하네.”</li> <li>• “몸매 진짜 좋다. 누가 보면 처녀인 줄 알겠어.”</li> <li>•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li> <li>• “남자 전도사가 그거 먹고 힘쓸 수 있겠어요?”</li> <li>• “차는 여자가 타줘야 제 맛이지.”<br/>(“여성 목사님/전도사님이 커피 타주니 더 맛있네요.”)</li> <li>• “여신도들이 가득하니 꽃밭에 있는 것 같습니다.”</li> <li>• 일하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하는 행위</li> <li>• 자신의 무릎에 억지로 앉히는 행위</li> <li>• “피곤해 보이네. 어젯밤 뭐 했어? 너무 무리하지 마.”<br/>(듣는 사람이 성적 의미를 느꼈을 경우)</li> <li>• “왜 이렇게 까칠해? 왜 히스테리를 부려? 오늘 그날이야?”</li> <li>• 악수를 하며 상대의 손바닥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긁는 등의 행위</li> <li>• 포옹을 하면서 다른 부분을 접촉하거나 허리에 손을 두르는 행위</li> <li>• (디지털 성폭력)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주거나 카톡 단톡방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li> </ul> |

이 외에도 신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 발언이 있습니다. 신학생 채플에서 남성 신학생들에게 “주위를 둘러봐라. 신학 교육을 받은 훌륭한 사모감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거나, 성폭력 예방 교육 때 “목회자는 여신도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것, 목사 후보생 면접에서 “남편도 목사인데 왜 사모를 안 하고 목사를 하고 싶어 하나?”, “남편이 담임목사가 되면 사모 역할을 하라고 할 텐데, 그때는 목사직을 포기할 건가?”, (부부 사역자에게)“남편 앞길 막지 마라” 등 성차별 발언들의 예는 많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신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예로 든다면, 자신의 첫 목회지를 ‘처녀 목회’라고 설명하거나 목사 안수와 관련해서 ‘머리 올린다’, ‘누가 머리 올려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행위나 성적 비유가 내포되어 있는 여러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면,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공동체 일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맞아, 나도 좀 불편하던데”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전혀 못 느꼈는데? 네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교회 성폭력의 특성

첫째,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대부분 권위/권력 관계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목회자가 악용한 것이며, 이러한 신뢰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하나님의 대변자’, ‘주의 종’이라고 여기는 목회자의 성적 요구에 의문을 느끼면서도 순응하기 쉽습니다. 이 점이 교회 성폭력이 일반 성폭력과 가장 다른 점이고 교회 성폭력의 특수성입니다.

그러다보니 교회 성폭력이 장기간 지속되기도 하고, 한 교회 안에서 여러 여성이 피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교회에서 피해 여성이 몇 십 명에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성폭력은 신앙 공동체에서 힘을 더 가진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자신을 믿는 성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둘째, 가해자는 위계 관계를 이용한 그루밍(가해자가 친밀감과 신뢰감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길들인 후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과 심리적 조종으로 가벼운 접촉과 언행부터 시작하여 수위를 높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성적 착취를 신앙적인 행위나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탈적 행위’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셋째, 교회 성폭력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왔다’,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교회 일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 법을 끌어 들인다’라는 등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믿었던 목회자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데 주변에는 주의 종을 용서하라고 강요하니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목회자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신앙의 회의와 위기가 오고, 동시에 ‘내가 지고 갈 십자가다. 기독교인이라면 같은 기독교인(목회자)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같은 생각도 들어 신앙적 혼란을 겪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신앙적 위기는 일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피해를 넘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여, 목회자와 주위 사람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3자들의 2차 가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행이 2차 가해에 속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한 예를 소개하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 성폭력 2차 가해

성폭력 2차 가해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소속 교회, 시찰회, 노회, 학교, 교단, 사법 및 의료기관 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지원단체, 변호인 등에게 보이는 부정적 반응으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주로 가장 교단의 『성폭력 예방 지침서』를 참고했습니다.

### 2차 가해의 예

- 피해자에게 사건 유발의 책임 씌우기
- 피해자 신상과 개인정보 노출 혹은 유포
- 사건을 가십거리로 삼는 행위
- 언어적인 폭력
-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 행동, 성격, 사생활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나 지지자, 조력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피해자의 지지자나 조력자를 음해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 가해자와의 관계를 연애, 사랑 등으로 규정하여 유포하는 행위
-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 출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고 화해를 종용하는 것
- 사건의 빠른 종결 시도
- 페미니즘/여성신학의 영향이라며 비난하는 것
- 기타, 피해자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2차 가해 글이나 같은 공동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의심하여 비난하는 언행 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적 규제 방안과 그에 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차 가해를 한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안내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목회자의 실수나 일탈로 여겨지며,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 간에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고, 침묵과 조용한 해결과 화해가 강요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2차 가해의 예처럼 피해자는 교회를 분열시킨 ‘문제적’ 인물이 되어 또 다른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 성폭력 문제를 미숙하고 불공정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사건을 미루거나 떠넘기고 외면하거나 쉬쉬해왔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본 매뉴얼도 부실했습니다. 근래에 와서야 교회 성폭력 대처 방안에 관한 책이나 교단별 매뉴얼(예장, 기장, 감리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피해자, 제3자, 가해자, 신앙 공동체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 나와 있는 『미투 처치투 위드유』와 각 교단 매뉴얼(온라인 PDF 다운로드 가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조금 더 민감한 젠더 감수성을 길러 성평등한 공동체,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은,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롬 13:10, 표준새번역).

(Love does no harm to a neighbor.)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01

—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주위에 일어났던 성차별적 혹은 성적 언행이 기억난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02

— 교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의 대처 행동 리스트를 만들어봅시다.  
(예: 성차별 혹은 성적인 발언에 웃지 않기, 불편함을 표시하기 등)

03

—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함께 나눠봅시다.

04

— 교회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참고문헌

- \_ 기독교반성폭력센터·뉴스앤조이, 『미투 처치투 위드유: 교회 성폭력 해결을 위한 가이드북』, 뉴스앤조이, 2018.
- \_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감리회 성폭력 예방지침서』, 2018.
- \_ 한국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2019.
- \_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1.



# 5

## 성폭력 없는 세상, 정의로운 교회

이은재

### 영화 「밀양」과 교회

영화 「밀양」은 2007년에 개봉한 이후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교회에 ‘용서’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하게 합니다. 영화 속에서 가해자는 주인공(신애)의 아들을 납치해 살해합니다. 아들을 잃은 신애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조금씩 회복해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가해자는 평온한 얼굴로 신애에게 ‘나는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께 눈물로 죄를 회개해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입에서 신애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다고, 신애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고백이 나올 땐 저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신애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용서받았다. 하나님한테!”라며 절규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특히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장면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서지현 검사는 뉴스에 나와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이 겪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미투의 계기로 성추행 가해자의 ‘간증’을 언급했습니다. 서 검사는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밀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인 2018년에 한 중등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지만, 아직 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사가 제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정죄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영화나 현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용서’, ‘회개’ 같은 교회의 언어를 가해자들이 전유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가해자의 회개를 받아주고 용서한 것처럼 느끼며 깊은 절망과 고민에 휩싸입니다. 이런 기사나 이야기를 접하다보면 마치 교회가 반성과 책임 없는 회개를 승인해주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용서를 말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무책

입한 길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심사숙고하며 성찰해야 합니다.

## 순결 이데올로기와 성폭력

교회는 왜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할까요? 왜 그런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성폭력운동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정조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정조란 성적 관계의 순결을 지키는 일로, 배우자나 미래의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여성들에게 요구됩니다. ‘성적인 순결’,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여성은 순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순결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 순결 이데올로기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입막음시켜왔습니다.

성적 관계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 ‘정조’는 우리 형법 조항에 40년간 존재했습니다. 형법에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1953년 형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난 뒤 1995년까지 ‘정조에 관한 죄’로 불렸습니다. 법이 성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지켜야 할 정조를 보호해온 것입니다. 심지어 법이 보호해야 할 정조와 보호하지 않는 정조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성차별을 재생산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 하는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정조에 관한 죄’는 만들어진 지 42년 만에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다는 친고죄가 2013년에 이르러서 폐지되었는데, 60년간이나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친고죄 규정은 성폭력 피해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게 하고 성폭력 범죄를 은폐시키는 기능을 해왔기에 여성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폐지를 요

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1997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친고죄 폐지, 2011년 장애인 대상의 친고죄 폐지, 그리고 2013년이 되어서야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친고죄 유지에는 성폭력 피해자는 순결을 잃어 명예롭지 못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역시 순결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폭력’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성폭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유형까지 포함하느냐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개념 형성 과정이 곧 운동의 과정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성폭력은 강제적 성교와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성추행과 성희롱이 성적인 폭력, 즉 성폭력으로 재정의되며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 되고 법의 규제를 받게 된 것도 여성운동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간을 인정받기 위해선 여전히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최협의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강간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투운동 이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러한 강간죄의 요건을 개정하라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한 후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자 은행에 갔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차레가 오지 않아 창구에 갔더니, 직원이 성폭력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없어서 부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교회법을 개정하는 총회에서 교회법 조항에 성폭력과 관계된 단어-성폭력, 강간, 추행 등-가 들어가면 마음이 아프니 세부조항은 빼기로 결정했다는 목사의 발언이 201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아직까지 1990년대 이전의 정조 관념과 순결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한 성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순결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자, 큐티 공과, 신앙 서적을 통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폭력 문제에 올

바르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순결 이데올로기는 성폭력을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순결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한 편견, 즉 성폭력은 명예롭지 못하다는 편견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일어난 피해를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성폭력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과 공동체 안에서 여러 건의 성폭력 사건을 접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대형 교회 목사들, 진보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상관없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되었을 때 자신을 가해자로 모는 것이 정치적인 모함이고 꾸며진 것이라는 주장은 신학대학 교수나 대형 교회 목사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성폭력은 불균형한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대부분은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행위를 빙자하여 행하는 성적인 행위나 성적인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 전반을 성폭력으로 봐야 합니다. 종교적 권위와 신뢰, 친밀함을 미끼 삼아 쉽게 성적인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여성상담소에서 접수된 상담 사례를 통해 교회 성폭력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는데, 이 유형을 보면 교회 성폭력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신도에게 사랑한다며 접근해 강간미수를 하거나, 심방 중 강간 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강제형/위력형'입니다. 둘째는 결혼을 빙자해 여신도와 성관계를 갖거나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라며 접근해 성폭행하는 '결혼/예정 빙자형', 셋째는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성추행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라

며 성폭행을 하는 경우, 또 성령 체험을 빙자해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성폭력을 저지르는 '종교 체험 빙자형'입니다. 넷째는 죄를 씻기 위해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성폭행을 저지르는 '치유 빙자형'이고, 다섯째는 성교육을 한다며 성추행을 하거나 상담을 해준다고 불러내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교육/상담 빙자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여신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할 때 폭력을 휘두르며 스토킹하는 '협박형'입니다.

교회 성폭력은 신앙 행위 속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교 행위를 빙자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가 유혹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로 탈바꿈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피해가 고발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가해자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모함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공감과 경청은 피해자에게, 질문은 가해자를 향해야 합니다. 더불어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성적 관계는 평등할 수 없습니다. 혹여 피해자가 약간의 호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성적 친밀함의 경계선을 그어야 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성폭력에 정의로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된 상황이라면 영화 「밀양」과 같은 일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사랑, 희생, 십자가 고난, 인내를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피해자 스스로 교회에서 배운 사랑

과 용서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가해자를 용서해야 할지 갈등을 느끼거나,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에 막대한 부담을 느껴 '나 하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침묵하여, 결국은 성폭력이 은폐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 1/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

대부분의 피해 당사자들이 최우선으로 원하는 요구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입니다. 가해자의 사과는 피해자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안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2/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용

성폭력 가해자가 책임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력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피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는 것, 보상할 방법을 찾는 것, 최대한 바로잡으려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지 않고 잘못을 명명하게 돕는 것, 가해 행위를 축소하지 않고 행위를 인정하게 돕는 것은, 가해자가 성폭력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 3/ 성폭력에 정의로운 공동체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한 구조에 연루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폭력에 안전한 공간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성폭력 문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연대하며 정의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성폭력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은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을 조장하고 허용하는 사회구조적 배경과 문화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에 정의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사회로부터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말 못 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과 미투운동

「타임즈 신문」은 2017년 올해의 인물로 '침묵을 깬 사람들'(Silence breakers)을 선정했는데, 이들은 미국 사회에서 벌어져온 오래된 성폭력을 고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운동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미투운동 이전부터 2016년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과 '#OO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침묵을 깨고 말하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은 폭발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었고, 너 나 할 것 없이 연대하고 함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미투운동으로 고발되었을 때 몇몇 사람들은 고발자들이 거짓 미투로 모함을 한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투운동 이후의 한국 사회를 함께 고민했

습니다.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침묵을 깨고 말하는 것,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14-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말 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후 무리 안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말 못 하게 하는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거나 의심하거나 시험하려 했을까요.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비평가인 리베카 솔닛은 “목소리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인간다움을 상실하거나 자신의 인간다움으로부터 차단되는 것”이라며, 침묵의 역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없는 것은 살아 있는 죽음이나 다름없고, 가끔은 말 그대로 살아 있는 죽음과 같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도와달라고 말하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도와달라는 말조차 감히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는 말

로 남들을 귀찮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왔을 때” 살아 있는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꾸며낸 짓이라고 모함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을 다시 침묵시키려고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힘주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20절).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가 경험한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묵을 끊고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 참고문헌

- \_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역음,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 \_ 권김현영,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 휴머니스트, 2020.
- \_ 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2018.
- \_ 주다 오드손 외, 김재희·조현지 옮김, 『성학대와 회복적 정의』, 대장간, 2020.
- \_ 리베카 솔닛, 김명남 옮김,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창비, 2017.

## THINK ABOUT • 함께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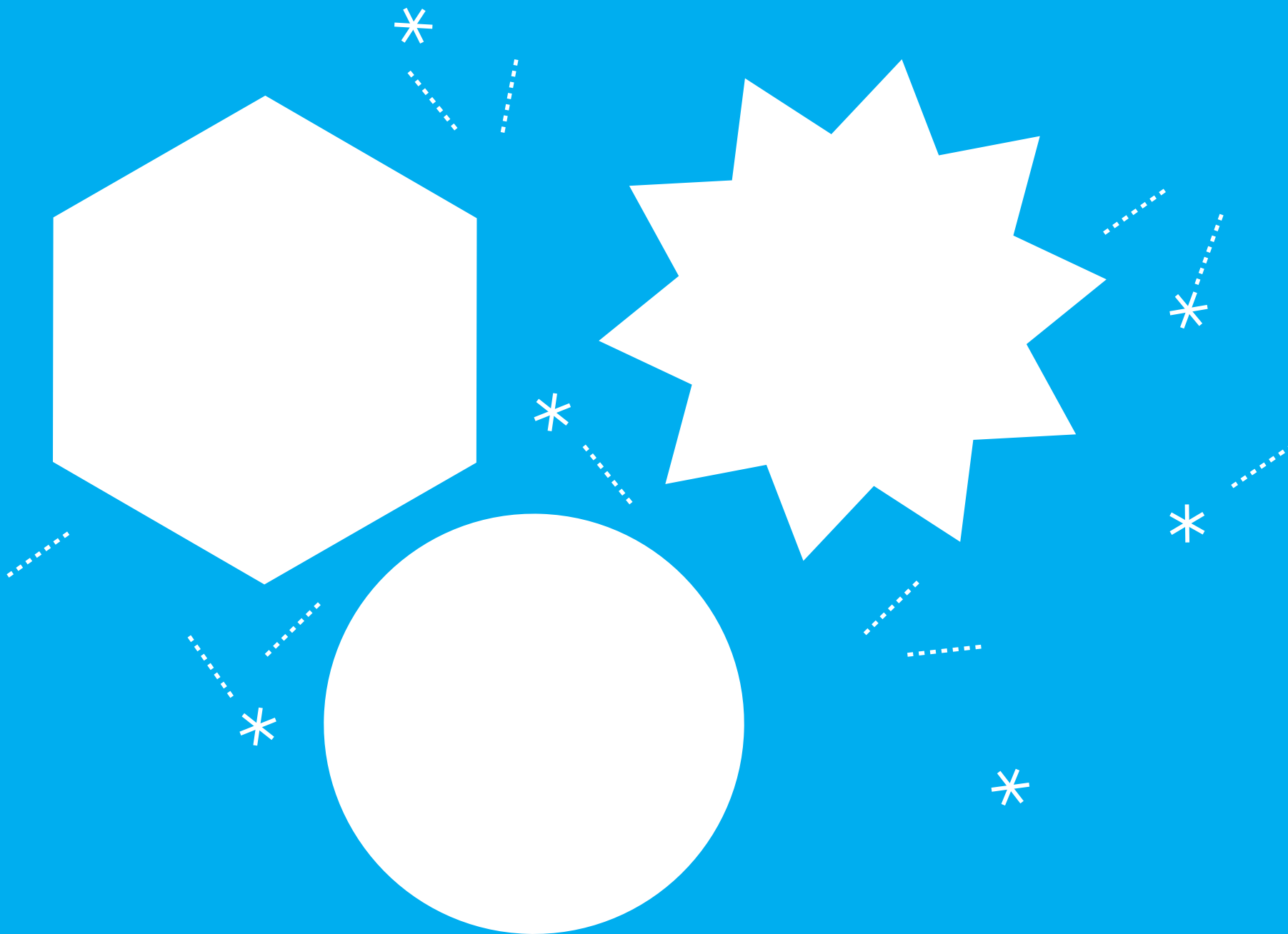
01

— 교회에서 경험한 순결 이데올로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2

—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강호숙 박사

총신대학교에서 '교회 여성 리더십'으로 실천신학 박사학위(Ph. D.)를 받은 후, 동 대학에서 '현대 사회와 여성', '한국 사회와 여성 문제'를 강의하였고, 현재는 기독교인문학연구원에서 '여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 강의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보수 교단의 차별적이며 종속적인 여성관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가져,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보수 개신교 내 젠더 인식과 젠더 문제', 「젠더 정의 관점에서 본 교회 직제와 교회,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교회헌법 재고'와 '복음주의 내 생태적 설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여성이 만난 하나님』,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 공저로는 『성폭력, 성경, 한국 교회』, 『혐오를 부르는 이름, 차별』, 『생태 위기와 개신교』, 역서로는 『세상은 미로, 마음은 천국』 등이 있다.

### 김희선 교수

명지대 상담복지학과 객원교수로,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 이론을 가르치고 사 람들을 상담하는 (여성과 아동에게 일어나는 폭력을 주로 다루는) 상담 전문가다. 저서로 『위험 사회와 여성신학』(공저), 『가장 많이 알고 있음에도 가장 숙고되지 못한 '십계'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공저), 『여성주의와 기독교(목회)상담』(공저) 등이 있다. 유튜브 브 '교회 언니 페미 토크' 채널을 통해 기독교와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박유미 교수

일반 대학 졸업 후 총신대학교에서 신대원부터 시작해서 구약으로 석사·박사를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사사기 4-5장으로 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동안 성경의 여성 주인공에 대해 남성 학자들이 상당히 왜곡된 해석을 해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영향으로 구약의 여성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 비판, 여성적 관점에서 구약 인물과 본문 보기에 관한 논문을 많이 쓰고 있다. 현재 비블로스성경인문학연구소 소장과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리고 저서로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

보라』,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가 있고, 공저로는 『혐오를 부르는 이름, 차별』, 『성폭력, 성경, 한국 교회』, 『이런 악한 일을 내게 하지 말라』가 있다.

### 백소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학·기독교사회윤리학을 전공했고(B.A./M.A.), 미국 보스턴 대학교 신과대학에서 기독교사회윤리학·비교신학으로 박사학위(Th.D.)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HK 연구교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는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유튜브 '교회 언니 페미 토크'에 참여하고 있다. 『엄마 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 『드라마틱: 예수와 함께 보는 드라마』, 『잉여의 시선에서 본 공공성의 인문학』, 『인터뷰 ON 예수』,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 『삶, 그 은총의 바다』,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 송진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신약신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젠더와 생태 영역에 관심을 갖고 대중과 함께 성경을 읽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연구실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 기후위기기독교신학포럼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는 『혐오와 여성신학』, 『성폭력, 성경,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보수화, 어느 지점에 있나』,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의 사회 인식』, 『기후 위기, 한국 교회에 묻는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시대, 생물다양성에 주목하다』 외 다수가 있다.

### 심에스터 작가

일곱 살 때부터 성 영재로 불리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자랐다. 성을 사랑하고 성이

야기를 즐겨워하는 사람이며, 일상, 성(性) 다양, 성(性)을 주제로 소통하는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의 공동 저자이다.

### 오수경 대표

대학 졸업 후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청어람ARMC 대표이다. 본업 외 자유기고가라는 ‘부캐’로도 활동하고 있다. ‘드라마는 아줌마들이나 보는 것’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 상황」에 드라마 칼럼을 연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주간 경향», 「시사인», 「경향신문」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했거나 기고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렌즈로 신앙을 재검토하고 사회 문화를 보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여성·시민·기독교인으로서 종교와 사회 사이에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젠더들’ 사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일을 하고 글을 쓰고 있다. 함께 지은 책으로는 『일 못 하는 사람 유니온』, 『불편할 준비』, 『을들의 당나귀 귀』가 있다.

### 이은애 교수

독일 대학에서 구약성서신학 정언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이화여대, 성결대, 성공회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현재는 기독교여성연구원 홀디의 대표로서 ‘교회 언니 페미 토크’ 유튜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시각에서 그리고 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성경을 읽어내려는 학문적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비체, 흐르는 것에 대한 혐오」,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매장의 권리」, 「대립 구도로 읽는 유딧가-통념 뒤집기」 등이 있으며, 함께 지은 책으로는 『여성의 눈으로 읽는 성서 구약성서개론』, 구약성경과 성폭력, 권력의 관계를 다룬 『이런 악한 일을 내게 하지 말라』 등이 있다.

### 이은재 연구원

목사를 꿈꾸며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신학대학에서 페미니즘과 여성신학을 배우

면서 교회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 바뀌었다. 거대한 성차별의 벽 앞에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을 만났고, ‘나도 목사가 될 수 있다’ 다짐하게 됐다.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연구원이고, 얼마 전부터 서울시 성평등지원센터에 청년 성평등 교육 활동가로 이름을 올렸다. ‘모두를 위한 교회를 꿈꾸며 목사가 되기 위한 험난한 길 가운데 서성이고 있다.

### 이주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강사이다. 미디어와 여성에 관심을 갖는 하는 여성신학 교육학자로, 첨단기술 시대에 대한 여성신학의 비판적 성찰을 연구하고 있다.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이해와 그로 인해 차별받아온 여성의 몸과 성, 여성의 목소리 내기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공 자궁 태반 기술 시대, 모성 담론 재개념화 연구’와 기독교 여성주의 유튜브 ‘교회 언니 페미 토크’에 참여 중이며 「한국 교회 성평등을 위한 내재적 교육과정 분석과 여성주의 기독교 교육 방안 모색」, 「첨단기술 권력 사회에 대한 여성주의 기독교 교육적 성찰-섹스 로봇을 중심으로」, 「개항기부터 1919년 민족운동 시기까지의 여성에 대한 기독교 교육의 도전과 응전」, 『혐오와 여성신학』(공저), 『위험사회와 여성신학』(공저) 등이 있다.

### 장근지 연구원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에서 상임 연구원, 교회성폭력 TF팀장을 맡고 있다. NCKK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통합교육 위촉강사로도 활동한다. 신앙의 언어로 페미니즘을 소개하며, 페미니즘 관점으로 평등한 예배를 기획하고 드리는 데 관심이 있다. 현재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함께 지은 책으로는 『언니들의 뜰밖 기도』가 있다.

## 채송희 목사

예장통합 목사이며, 교단 여성들의 모임인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 기관목사로 일하면서 젠더와 페미니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을 안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교회 여성 네트워크인 움트다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여성들과 함께 이런저런 신나는 일들을 하고 있다. 함께 지은 책으로는 『한국에 비쳐진 복음의 빛』이 있다.



# 시공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과 신앙 사이에  
선  
장년들에게 건네는 인사